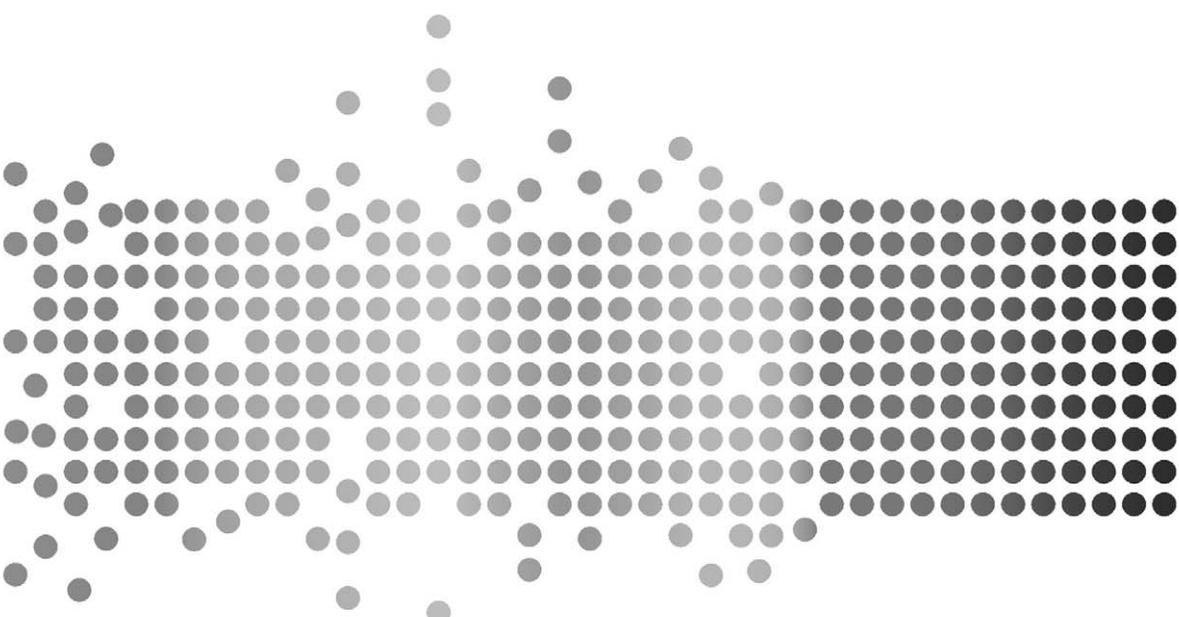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 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The Life and Work of the Poor: A Psychological Approach

이현주 · 안서연 · 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평가센터

연구보고서 2009-26-2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 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발행일 2009년 12월
저자 이현주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예원기획
가격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ISBN 978-89-8187-602-9 93330

머리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빈곤연구는 한 단계 도약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빈곤의 규모와 빈곤의 구성, 그리고 빈곤의 원인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쏟아졌다. 빈곤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그 즈음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분석 자료의 생산도 한 몫을 하였을 것이다. 빈곤연구가 축적되면서 빈곤에 대한 이해가 진일보하였지만 빈곤을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빈곤은 경제적인 결핍이면서 동시에 생활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총체적 삶의 조건이자 방식이다. 빈곤은 경제적 결핍 외에도 정치적이고 동시에 심리사회적인 측면을 지닌다. 최근 해외에서는 빈곤에 대한 보다 다면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과거의 빈곤연구를 반성하고 빈곤의 총체성을 수용하려는 노력으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빈곤층의 일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성, 태도에 주목하고 있다. 지금도 각국에서 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여 탈빈곤을 유도할 목적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고안되어 실험되고 있다. 하지만 빈곤층의 근로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 정책들은 빈곤층에게 또 다른 좌절을 경험하게 하고 비빈곤층에게는 빈곤층에 대한 그릇된 선입관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빈곤정책

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근로는 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에 기초한 행위이다. 당연 빈곤층의 근로지원은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성공적일 수 없다. 빈곤층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의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는 정책이 설계되는데 본 연구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랄 뿐이다.

본 연구는 본 원의 이현주 부연구위원 책임 하에 본 원의 박경희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의 안서연의 공동연구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특히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 이 분들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주셨을 뿐 아니라 빈곤정책의 발전을 진심으로 걱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인 전문적 조언을 하여준 한국기독교대학교의 우국희 교수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우국희 교수의 질적 연구에 대한 애정이 큰 도움을 주었다. 본고를 세심하게 읽고 귀중한 의견을 주신 원외의 홍경준 교수, 원내의 김미곤 연구위원, 이소정 부연구위원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인터뷰의 사례를 소개하고 빈곤층의 일상을 생생하게 전하여준 일선의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이분들의 빈곤층에 대한 고민은 역시 남달랐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문제	17
제3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19
제4절 연구방법의 개요	22
제2장 이론적 배경	29
제1절 근로동기와 빈곤	29
제2절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근로	36
제3절 무엇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41
제3장 국가 간 근로 관련 심리사회적 특이성 비교	45
제1절 자료 및 분석방법	46
제2절 근로형태와 근로동기 비교	50
제3절 국가별 직업 및 근로에 대한 태도 비교: 군집분석결과	63
제4절 근로에 대한 관련 요인의 영향 분석	78
제5절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시론적 해석	89

제4장 우리나라 빈곤층의 일에 대한 태도와 관련 요인	97
제1절 자료 및 분석방법	98
제2절 빈곤층의 근로관련 일반 실태	102
제3절 심리사회적 특성과 근로	110
제4절 심리사회적 특성의 근원	113
제5절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성의 영향	121
제5장 가난한 삶과 알 그 관계에 대한 회의	131
제1절 자료의 설명	131
제2절 빈곤과 일에 관한 전제의 오류	138
제3절 희망의 단서	149
제6장 결론	159
제1절 주요 결과	159
제2절 정책적 함의	163
참고문헌	170

표 목차

〈표 3- 1〉 일지향성 관련 변수의 구성	49
〈표 3- 2〉 국가별 전계층 고용상태 비교	51
〈표 3- 3〉 국가별 빈곤계층 고용상태 비교	52
〈표 3- 4〉 국가별 고용형태 비교	54
〈표 3- 5〉 국가별 근로시간 형태 비교	55
〈표 3- 6〉 국가별 근로시간 형태 비교: 노인 제외	56
〈표 3- 7〉 국가별 선호하는 근로시간과 급여의 비교	57
〈표 3- 8〉 국가별 선호하는 근로시간과 급여 비교: 65세 이상 노인제외	58
〈표 3- 9〉 국가별 전계층 비근로의 원인 비교: 65세 이상 노인제외	59
〈표 3-10〉 국가별 빈곤계층 비근로의 원인 비교: 65세 이상 노인제외	60
〈표 3-11〉 국가별 전 계층 실직자 소득원천 비교	61
〈표 3-12〉 국가별 빈곤계층 실직자 소득원천 비교	62
〈표 3-13〉 직업 선택의 기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64
〈표 3-14〉 국가별 직업선택의 기준 평균값 비교	66
〈표 3-15〉 군집별 직업선택의 기준 평균 및 분산분석 결과	68
〈표 3-16〉 국가별 근로몰입 평균값 비교	70
〈표 3-17〉 군집별 근로몰입 평균 및 분산분석 결과	72
〈표 3-18〉 국가별 조직몰입 및 직업만족도 평균 비교	73
〈표 3-19〉 군집별 조직몰입과 직업만족도 평균 및 분산분석 결과	75
〈표 3-20〉 빈곤계층 근로지향성 평균 및 분산분석 결과	77
〈표 3-21〉 변수 구분 및 측정방법	80
〈표 3-22〉 근로여부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81
〈표 3-23〉 근로여부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 노인제외	82

〈표 3-24〉 구직활동 여부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결과	83
〈표 3-25〉 구직활동 여부의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노인제외	84
〈표 3-26〉 직업갓기 희망여부의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85
〈표 3-27〉 직업갓기 희망여부의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노인제외	86
〈표 3-28〉 선호하는 근로시간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결과	88
〈표 3-29〉 국가별 근로지향성 관련변수 평균값	90
〈표 3-30〉 군집별 근로지향성 관련 변수 평균 및 분산분석 결과	92
〈표 4- 1〉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100
〈표 4- 2〉 계층별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	101
〈표 4- 3〉 계층별 가구주의 근로능력 정도	102
〈표 4- 4〉 계층별 가구주의 근로무능력 사유	103
〈표 4- 5〉 계층별 증상상태	103
〈표 4- 6〉 계층별 비경제활동 사유	104
〈표 4- 7〉 계층별 근로 유형	105
〈표 4- 8〉 계층별 직장 사임 사유	106
〈표 4- 9〉 계층별 구직활동	107
〈표 4-10〉 계층별 구직 장애요인	108
〈표 4-11〉 계층별 우울감 및 자아존중감	111
〈표 4-12〉 근로여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	112
〈표 4-13〉 구직여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	113
〈표 4-14〉 아동기 경제적 수준 별 소득계층	114
〈표 4-15〉 계층별 아동기 경제적 수준	115
〈표 4-16〉 계층별 아동기 경제적 어려움의 경험 유무	115

〈표 4-17〉 계층별 부의 교육수준	116
〈표 4-18〉 계층별 부의 교육수준: 50세 미만	117
〈표 4-19〉 아동기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	118
〈표 4-20〉 아동기의 경제적 수준별 경제활동상태	119
〈표 4-21〉 아동기의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활동상태	120
〈표 4-22〉 아동기 경제적 수준별 근로여부	120
〈표 4-23〉 근로여부와 아동기의 경제적 수준	121
〈표 4-25〉 변수의 처리	123
〈표 4-26〉 근로여부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124
〈표 4-27〉 근로여부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노인제외	125
〈표 4-28〉 우울감에 대한 관련요인의 영향 분석	126
〈표 5- 1〉 대상의 개요	136

그림 목차

[그림 3-1] 직업선택의 기준 군집분석 결과	67
[그림 3-2] 근로몰입 군집분석결과	71
[그림 3-3] 조직몰입과 직업만족도 군집분석결과	74
[그림 3-4] 근로지향성 군집분석결과	76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perties in the psycho-social attitude of the poor to work and explain how past experiences make it. On the basis of result, this study gains the guiding principle for workfare policy.

Using the ISSP data, module for work orientation in 2005, cross 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is done. The results say work incentive of the poor in our country is not low. But work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are low. The interesting fact is intrinsic factors among work incentive is high comparatively.

Logistic analysis and regression using the welfare panel data is done to explain the causal relation between work and psychosocial properties of the poor. Then the result is that psychosocial properties have an effect on the work and psychosocial properties are under the influence of economic level of childhood.

To identify the mechanism past experiences make the attitudes to work, qualitative method is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 Repeated frustrations in work have broken down the hope of success, so some poor become to work as less as possible. There is no future in the concepts of time of the poor so they don't make goal or plan. But qualitative data shows the hopeful clues to overcome the attitudes. Family is powerful incentive for work. And some poor people doing a job appropriate to one's aptitude and capability have more positive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빈곤계층의 일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이성과 그 형성 기제를 밝히고 이를 기초로 근로 장려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빈곤정책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단서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심리 사회적 이해가 없이는 근로를 통하여 빈곤탈출을 도모하는 제 빈곤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근로는 당연 근로를 하는 사람의 심리나 태도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층의 일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밝히려는 시도가 별로 없었다. 학문적, 정책적 관심은 주로 빈곤층을 가려내는 작업에 두어졌고 빈곤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우리나라 빈곤층의 일에 대한 심리사회적 태도는 외국이나 비빈곤층의 그것과 구별되는 특이한 것인가? 다르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일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이성은 근로동기의 수준과 근로동기의 내용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근로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특이성의 형성 원인에 관한 것이다. 근로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특이성이 있다면 과연 무엇을 이유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문제는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이성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심리사회적 특이성이 빈곤층의 근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는 무엇일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함에 있어 필요한 기존 이론의 검토는 주로 다

른 영역의 연구들로 한정되었고 시사점도 간접적인 것들이었다. 빈곤계층의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태도의 특이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다. 일반 근로자의 근로 동기에 대한 연구, 빈곤층의 심리적 특성 일반을 분석한 연구가 가장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원천이었다. 근로동기에 관한 연구들은 빈곤층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결국 보수나 승진과 거리가 먼 빈곤층의 환경에서 초래되는 동기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 심리학계의 연구들은 빈곤층의 개인적 측면에 많은 강조를 두어 사회적 영향이나 심리사회적 특성이 형성되는 기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기회를 잃었다. 결국 두 분야의 연구 모두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가중되는 빈곤층의 어려움을 줄여줄 단서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성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기 위하여 ISSP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수준이 낮다고 할 근거는 없었다. 우리나라 빈곤층 중 노인의 비율이 높아서 은퇴의 비중이 높지만 전일제고용과 파트타임, 그리고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낮지 않다.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태도를 외국과 비교한 결과, 근로에서 자율성에 대한 의미부여는 낮고 근로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고 당연 직업만족도 낮다. 즉 강요된 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한 듯하다. 반면 직업선택에서 내적보상이나 조직몰입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일에 대한 의미부여의 욕구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을 설명변수로 투입한 회귀분석에서도 인적자본이나 가구요인 외에도 개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일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가 근로 및 근로에 대한 기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성의 영향을 확인하고 또, 그 심리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 자료 중 아동기 경제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복지패널을 활용하여 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빈곤층은 불안정한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동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경험한 경우도 다른 계층보다 많았다. 뿐만 아니라 이동기에 매우 가난한 생활을 경험한 가구주는 더 높은 우울감과 더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근로여부를 종속변수로 그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도 우울감은 근로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한편 근로여부에 영향을 주었던 심리지표 우울감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의 연령이나 근로능력, 소득계층, 가족구성 등을 통제하여도 이동기 경제수준을 대변하는 부의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빈곤층의 근로에 대하여 심리사회적 특성이 영향을 주는데 심리사회적 특성은 현재의 요인들 뿐 아니라 과거 이동기의 빈곤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태도의 특이성이 형성되는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적분석방법이 필요하였다. 빈곤층 총 17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주요 의미들을 모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층의 특정 태도를 형성하던 과거 경험이나 인식과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빈곤층의 그 변화 이유를 이해할만한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빈곤층은 빈곤한 상황에서 좌절의 반복을 경험하면서 일에 대한 기대가 상실된다. 빈곤층은 근로 동기 중 특히 승진이나 높은 임금 등 외적 요인에 대한 기대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험이 축적되면서 일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을 형성한다. 또한 빈곤층은 살기 위하여 해야 하는 공색하고 허접한 일을 대하면서 나름의 합리적 선택을 한다.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일은 불행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수준으로만 최소화하여 한다.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였던 빈곤층은 구체적 계획의 유용성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한다. 이들의 시간 개념에서 미래보다 당장의 시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이러한 배경에서 설명된다.

분석 결과, 빈곤층의 일에 대한 태도도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의 단서들이 발견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의 고리는 근로동기 중 내적 요인에 속하는 것들이었다. 빈곤층은 일에 아름다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변화시킨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족을 위한 노동은 언제나 이름답고 모범적인 것이다. 빈곤층은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일을 한다. 또 다른 하나의 변화 요인은 적성에 맞는 일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이 즐거운 사회적 교류를 제공할 때도 빈곤층의 일에 대한 태도는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빈곤층은 목표를 갖게 되면서 근로에 대한 입장을 변화시킨다.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빈곤층은 그들의 근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목표와 계획을 이끌어 가는데 저축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관리가 지원된다면 더 큰 변화를 보일 수 있을 것을 암시하는 사례들도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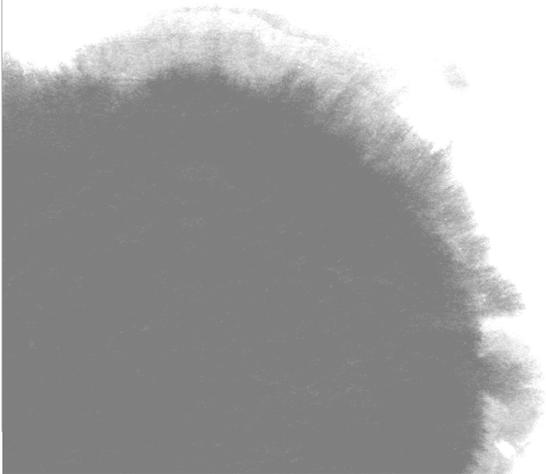
빈곤층의 삶과 근로, 그 관계에 대하여 심리사회적으로 분석한 후 얻은 정책적 함의는 아래의 몇 가지로 정리된다. ① 빈곤층의 일에 대한 기대를 복원하는 장기적 정책설계와 개입이 필요하다. 일에서 크고 작은 성공경험이 누적되어야 하고 일에서 얻은 성과를 공유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② 빈곤층이 스스로 참여하여 계획하고 다양한 선택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의 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빈곤층의 선택이 실패를 되풀이 할 위험을 줄여야 한다. ③ 건강한 가족의 유지와 복원이 필요하다. 빈곤층의 일에 가장 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이다. ④ 빈곤층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일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람들과 일상적인 교분을 유지할 장을 제공하도록 한다. ⑤ 빈곤층의 경험과 소양을 존중한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만 일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그 일에서 더 큰 희망을 품게 되기도 한다. ⑥ 중기의 적정 수준의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목표를 세우면 일을 하는 데 있어 더 적극적으로 된다. ⑦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를 이끌어 갈 구체적 지원도 병행한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축이나 보험의 활용, 그리고 알콜이나 약물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유용할 것이다.

위의 정책적 함의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안하거나 기술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근로빈곤층을 위한 고용 및 근로지원, 자활, 탈빈곤정책, 또

는 더 확대하여 빈곤층을 위한 각종 정책의 기획과 집행에서 하나의 원리로 고려할만한 것들이라고 본다. 언급한 세 원칙들이 지켜지자면 우선은 정책이 집행되는 토대를 개선하여야 한다. 위의 세 원칙들은 빈곤층 개인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개별화가 가능하자면 면대면(face to face)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에서 이러한 개별화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01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빈곤계층의 일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이성과 그 형성 기제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근로의 장려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빈곤정책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점들을 밝히고자 한다.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은 어느 사회에서나 신념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각종 빈곤 정책도 빈곤층의 근로를 기본 조건으로 채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 빈곤층의 일에 대한 태도와 그 형성의 근원적 배경에 대한 이해는 아직 취약하다. 일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이성이 사회마다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으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빈곤층의 이 점에 대한 규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에 더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이해가 없이는 제 빈곤 정책은 현실성이나 유효성이 보증되기 어렵다. 리버와 유랄드(Lever & Uralde, 2005)는 빈곤이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전략과 유형을 형성하는 삶의 조건이라는 가설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가설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 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이 시도된 바 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전략이나 유형을 이해하고 이를 변화시킬 새로운 조건이나 환경을 형성하지 않고서는 빈곤층의 행동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측면의 변화는 단지 주관적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행동 전반과 물질적 삶의 조건까지도 변화시키

도록 하는데 있어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빈곤연구에서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빈곤정책 연구 분야에서는 심리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매우 취약하였다. 정책적 관심은 주로 빈곤층을 가려내는 일을 우선으로 빈곤의 원인을 밝히는 것에 한정되어 왔다. 반면 빈곤을 보다 폭넓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은 아직 부족했다.

기존의 연구들이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도외시하도록 한 학문적 배경은 아래의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우선 빈곤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착이다. 빈곤은 생활의 제 측면을 포괄하는 현상이지만 소득의 부족, 물질적 결핍으로 한정하여 빈곤을 파악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배제와 박탈이라는 확장된 개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정책일선에서는 과거의 개념이 여전히 유효하였다. 소득의 증진이나 지원을 초점으로 하는 정책개발에 필요한 연구들이 대세였다.

최근 배제와 박탈을 넘어 빈곤에 대한 대안적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2001년 World Bank는 빈곤을 “물질적 결핍, 취약한 사회적 관계, 불안정(insecurity and precariousness), 극소의 자기 혁신, 그리고 무기력”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센(Sen)도 빈곤은 낮은 수입이라고 단순화하기보다 더 많은 다양한 개념으로 정치적, 심리적 힘의 부족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제안(Turner, 2007 참조)하였다. 한편 최근 강조되는 다측면의 지표(multidimensional measurements)가 빈곤이라는 관념적인 대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되기도 한다. 특히 물질적, 비물질적 지표를 모두 포괄하는 혼합척도(mixed measurements)가 빈곤을 잘 표현할 수 있다고 기대를 모으기도 한다. 이러한 최근 경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빈곤연구는 아직 경제적 측면에 몰두하고 있다.

한편 양적 분석이 대세인 가운데,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자료의 한계로 분석이 가능한 변수는 한정되어 있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빈곤층의 이해를 일정 측면으로 국한시키는 경향을 초래하였다. 분석에서 빈곤의 원인으로 자주 투입되어 왔던 학력, 성, 연령, 건강, 가족구성만 다루면서 빈곤층의

이해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제 측면들을 사상하고 말았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근로중심의 정책적 접근마저 단순화시키는 위험을 초래하고 말았다. 가능한 제 정책적 수단이 제한되고 소극적이 되도록 하였다.

성, 연령처럼 주어진 변수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차별의 감소만이 답이다. 그리고 학력은 계속교육으로 대응하지만 그 개입의 효과도 그리 크지 않았다. 가족구성의 변화를 유도하기는 당연 어렵고 가족 구성에 따른 정책의 개별화가 시도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제 접근은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가구여건을 조성하며 일자리를 제공하면 바로 근로를 통한 자활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가정이나 기대를 갖도록 하였다. 하지만 정책 일선에서는 일자리를 제공해도 빈곤층은 선뜻 일을 선택하지 않았고 일을 한다고 적극성이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결국 자활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가끔 일선에서 빈곤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이 빈곤층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느끼면서 당혹스러워하기도 하였다. 빈곤층이 기회를 주어도 열심히 일을 하지도 않고 빈곤을 탈피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복지에 의존하려 한다는 우려를 토로하기도 한다. 이러한 실무자들의 반응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초기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빈곤층이 단기간에 바꿀 수 없는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빈곤층은 비빈곤층과 다른 경험을 하여 왔고 당연 이러한 경험이 빈곤층으로 하여금 비빈곤층과 구분되는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갖도록 하였을 것이다.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심리사회적 특이성과 그 형성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정책의 효과보다는 더 많은 오해와 갈등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결과로서의 현재 양상 뿐 아니라 빈곤층의 이러한 제 측면을 형성하는 기전들에 접근하는, 보다 근본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다. 반성이 필요하다.

대안적 연구로 일부 연구들은 질적 분석을 통하여 빈곤층의 심리나 태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은 단편적이고 빈곤노인이나 여성가

구주기구 등 빈곤층 중 일부 집단에 한정하고 다소 기술적인 분석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인다(황정임 송치선, 2002; 옥선화, 2002 등). 기초보장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질적 분석을 시도한 대표적 연구로는 2007년에 수행된 본 원의 한 연구(이태진 외)를 들 수 있다. 비교적 많은 사례를 다루면서 수급자의 근로에 대한 태도 및 제 특이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하지만 대상이 수급자로 제한되어 빈곤층의 일반적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다루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이성이 무엇인지뿐만 아니라 그 형성 기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비중을 두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연구에서 질적 연구가 필요한 단계임을 재인식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8년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근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또 다른 연구(구인회 등, 2008)에서도 질적 분석이 시도된 바 있다. 이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근로와 관련된 과거 이력과 이에 대한 수급자의 인식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역시 수급자로 한정하여 기초보장제도의 근로촉진에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어 빈곤층의 일반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설문조사와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진행한 박경숙 등의 연구(박경숙 등, 2005~6; 박경숙, 2008)도 역시 수급자로 대상을 한정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단 이 연구는 수급자의 다양한 측면에서 그 심리사회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외 연구에서는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이성에 대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이 공히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분석한 해외의 질적 연구로는 기초보장수급자와 빈곤여성이나 부자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등이 있다(Underlid, 2007; Lightman et al., 2005; Glikman, 2004; Monroe and Tiller, 2001; Tuason, 2008 등). 하지만 이 역시 근로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거나 빈곤층의 현상적 특이성을 밝히는데 그치고 있다. 즉 여전히 해외에서도 빈곤층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에 대한 접근이 우세하고 근로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특이성에 대한 분석은 빈곤층을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경향

이 있다. 간접적으로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태도나 인식을 짐작해볼만한 이론적 축적은 있지만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결과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정책의 집행과 그 결과는 당연 그 대상의 참여와 반응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빈곤정책의 경우 빈곤층의 심리 및 태도가 빈곤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이나 그 효과에 상당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연 빈곤층의 참여와 반응에 영향을 주는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선결조건이 된다.

대개 심리사회적 특성은 비교적 오랫동안 일정한 유형의 경험을 반복하면서 형성된다. 결국 이러한 심리사회적 특이성은 빠른 시간 안에 몇 가지 선택지를 새롭게 제시한다고 바로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분석하는 제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은 반영되어야만 한다. 심리사회적 특성의 시간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칫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빈곤층의 빈곤원인으로서만 간주하기 쉽다. 대표적으로 빈곤문화론이 이러한 방식으로 오도된 바 있다). 과거 사회사업을 중심으로 빈곤층을 개인병리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이들의 인식이나 태도를 수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개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병리적 관점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부족한 탓이기도 하지만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시간 개념의 고려가 부족한 탓도 있다.

장기간 형성된 태도와 인식은 나름의 사회구성을 만들어 낸다. 빈곤이 빈곤층의 사회구성을 초래하였다면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차원도 장기간의 시기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본 연구는 현재의 각종 변수를

1) 빈곤문화론의 요지가 빈곤층의 특정 문화와 정서, 태도가 빈곤을 초래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라는 견해는 빈곤문화론에 대한 오해라고 반박되기도 하였다. 르위스(Lewis)의 빈곤하위문화론은 빈곤하위문화를 단지 병리라고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는 적응 기제로 설명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르위스는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선택한 일상의 적응 기제가 빈곤하위문화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빈곤하위문화론은 희생자비난(blames the victim)이라는 이유로 비판받아왔다(Harvey & Reed 1996 참조).

고려할 뿐 아니라 과거의 양상을 분석의 대상으로 포괄하고자 하였다. 양적 분석에서 과거 상태를 반영하는 변수를 함께 투입하도록 하고 질적 분석에서도 과거의 사건이나 상황 뿐 아니라 과거에 대한 인식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징은 그러한 심리사회적 특징을 구성하는 빈곤층의 환경과 이러한 환경에 대한 적응기제로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빈곤을 완화 또는 해소하려는 정책이 중산층 가치나 정서를 기준으로 일방적이거나 억압적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지 않도록 이러한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활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개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사회정책 외 사회학이나 경영학, 심리학 등 다른 학문영역에서 연구의 단서를 찾아 좀 더 포괄적인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 분석이 되도록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그 분석방법에서도 가용한 양적 자료의 분석과 함께 질적 분석을 공히 활용함으로써 분석을 더 풍부하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빈곤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것이다. 그동안 도외시 되어왔던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빈곤을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았던 연구경향의 균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이해함으로써 빈곤정책에 대한 새로운 고려변수를 제기하고 이로써 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된다.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고려는 정책의 설계와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제 단계에서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고려는 정책의 질적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한다. 셋째,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빈곤층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줄임으로써 빈곤층과 비빈곤층, 빈곤층과 빈곤정책 집행 인력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제 갈등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빈곤층의 일에 대한 심리사회적 태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우리나라 빈곤층은 특정한 일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 특징이 외국의 그것이나 국내의 상층과 구별될만한 것인가? 첫 번째 문제제기에서 우리나라 빈곤층의 특이성은 근로동기의 수준과 근로동기의 내용 등에서 규명이 가능하다. 즉, 우리나라 빈곤층은 과연 일에 대한 동기가 약한가? 우리나라 빈곤층 그 것은 외국의 빈곤층과 유사한가, 아니면 다른가? 약 10년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정책의 수준이 일천하기 그지 없었으며 반면 실업의 수준은 낮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근로를 하여 삶을 꾸려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근로하지 않고 공적 지원에 의지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근로동기는 매우 높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공부조 등의 사회정책이 발달하고, 반면 실업과 고용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근로동기도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과연 그럴까? 만약 낮다면 외국의 여러 나라들과 비교하여 어느 수준일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근로동기의 수준 뿐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우리나라 빈곤층이 특이성을 갖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근로동기에 대한 각종 연구들은 대체로 근로동기를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집단의 영향이나 조직 또는 사회의 보상체계가 형평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동기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근로동기의 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규명하여 보고자 한다.

두 번째 문제는 근로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특이성의 형성 원인에 관한 것이다. 근로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특이성이 있다면 과연 무엇을 이유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것일까? 일을 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일에 대한 태도가 비빈곤층과 차별화된다면 그 형성의 과정이나 배경은 무엇인가? 심리사회적 요인의 영향인가, 그 이

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형성되는 보다 근원적 요인이나 과정이 존재하는가?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빈곤층의 과거 이력 등에 대한 부차적 분석도 함께 시도되어야 하였다.

마지막으로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이성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심리사회적 특이성이 빈곤층의 근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는 무엇일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제 빈곤정책에서 빈곤층의 근로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 문제나 앞의 심리사회적 특이성 형성 배경을 밝히자면 기존의 자료를 활용한 양적분석을 넘어서는 대안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과거의 사건이나 과거 사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보다 민감한 자료 해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빈곤층의 일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는 매우 부진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양적 자료를 분석하여 변수화가 가능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기존 자료 중 일에 대한 특정 태도를 형성하는 기제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결국 일에 대한 심리사회적 기제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대안적 연구로 등장하는 질적 연구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로 활성화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이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수용한다. 개인의 빈곤역사가 길수록 이 특이성은 더 강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자면 한국의 근로 동기가 아직 높고 복지의존은 약할 것이다. 그러나 일로 행복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근로에 대한 만족이나 근로를 통한 탈빈곤에 대한 희망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우려하는 점들이다. 이는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이성이 형성되는 기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서를 찾는 일이고 이러한 작업은 기존의 자료 한계를 따질 일이 아니다.

심리사회적 요인의 작용이기는 하지만 심리사회적 요인이 형성되는 과거 기제들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하다. 빈곤층은 다른 계층과 비교하여 과거 더 많은 환경적 제약을 경험하였고 성공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더 적었다. 좌절과 수동적 반응이 계속되면서 빈곤층의 일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나 이해가 형성되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들을 이해하고 현재 이러한 경험을 극복할 수 있는 단서들을 밝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도덕적 판단보다 어쩌면 사실의 기저를 파악하고 대응하려는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자세가 더 중요할지 모른다.

제3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1. 주요 연구내용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하였다. 우선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존의 이론이나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이들의 유용성과 한계를 정리하였다. 기존 이론과 연구의 한계로부터 본 연구의 과제를 확인하고 연구의 의의를 보다 분명하게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가 간 근로동기의 수준과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으로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과연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동기가 낮은 것인지는 다분히 상대적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제 외국의 그 것과 비교를 실시하였다. 근로동기의 수준 뿐 아니라 근로동기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차이도 우리나라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가 간 비교는 근로에 대한 태도 그 자체 뿐 아니라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성이 발현되는 사회적 배경,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결국 국가 간 비교는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이

해하는데 있어 거시적 접근을 견지하도록 돕는다.

국내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특이성을 상세하게 재분석하기 위하여 빈곤층의 근로와 과거 경험을 조사 내용의 일부로 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양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양적 분석에서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 실태를 기술하고 빈곤층의 과거 경험을 비롯하여 제 요인이 빈곤층의 근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제 요인 중 빈곤층의 사회심리적 요인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빈곤층의 사회심리적 요인은 어떤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빈곤층의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을 생성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앞의 분석으로는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과거의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과정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거 빈곤층이 경험한 제 상황이 어떻게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특정 태도를 형성하는지를 질적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질적 자료 수집은 일에 대한 경험과 태도, 일에 대한 정서 및 태도 등을 중심으로 이를 형성하는 배경을 이해하고, 특정 태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상되었다. 17개 사례를 기초로 한 질적 분석으로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형성되는 기제 뿐 아니라 이러한 심리사회적 특성을 극복하는 사례들의 공통점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이후 결론에서 정책적 단서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본문에 앞서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문제, 그리고 연구의 개요와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제2장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이론적 검토부분에서는 빈곤층의 일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기존 이론과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한계와 본 연구의 새로운 시도를 소개하였다. 이론적 검토는 크게 두 가지 분야를 중심

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근로동기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로 이 연구들의 빈곤과의 관련성, 그리고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 연구들의 기여와 한계를 살폈다. 다른 하나는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다룬 연구들로 이 연구들이 빈곤층의 근로와 관련하여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 정리하였다.

연구의 본문은 크게 세 개의 장, 제3장, 제4장, 제5장으로 구성되었다. 제3장에서는 국가 간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주로 ISSP 자료를 활용하여 양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가 간 특성이 근로동기 수준과 근로동기의 내용, 그리고 국가 간 차이가 다른 변인들의 통제 상태에서도 유의미한지 여부 등이 분석되었고, 국가 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도 실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근로와의 관련성, 그리고 근로에 대한 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성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한편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여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성의 영향이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분석은 빈곤이 심리사회적 특성을 결정하는지, 또는 심리사회적 특성이 빈곤을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완벽하지는 않아도 얼마간의 설명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보았다.

제5장에서는 빈곤층의 일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성 중 기존의 양적 분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질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빈곤층의 일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이성이 과거 어떠한 경험과 인식을 통하여 형성되었는지, 현재 빈곤층의 어떠한 특징들이 이러한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폈다. 제6장 결론에서는 결과를 재정리하고 이 결과들이 갖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는 제 정책들이 고려하여야 하는 점들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제4절 연구방법의 개요

본 연구는 문헌연구, 2차 자료에 대한 양적분석, 질적 연구방법, 그리고 전문가의 토론 등 매우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유는 각 장이 다루는 자료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의 양적 분석으로 의도한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대안적 연구방법으로 질적 연구를 병행 활용하여야 했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각장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기로 하고 본 절에서는 연구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기로 한다. 제2장의 이론적 고찰에서는 주로 문헌검토가 이루어졌다. 제3장에서는 ISSP(Internal Social Survey Programme) 자료에 대하여 기술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회귀분석, one-way Anova 등 다양한 양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1984년, 영국과 호주가 참여하면서 조직된 ISSP는 매년 이루어지는 조사마다 참여하는 국가의 수는 다소 달라지지만 최근 약 4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이후 우리나라도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참여한 조사는 약 5종이 배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2005년 근로지향성에 대한 조사(module on work orientation)는 주로 노동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것으로 31개국이 참여하였다. 이 조사 자료에서 활용이 가능한 변수는 근로동기, 근로와 관련되어 주요하다고 인식하는 사항, 일에 대한 태도, 선호하는 직무형태, 추가근로동기, 본인 직업에 대한 평가, 근로의 영향, 일에 대한 통제력 인식, 과거의 직업이력과 현 직업의 관계, 미래 직업이동에 대한 과거 이력의 영향 전망, 일터의 인간관계, 직업에 대한 만족, 이직에 대한 두려움, 구직방식이나 일을 그만둔 이유, 경제적 지원의 원천, 본인에 대한 평가 등으로 근로에 대한 각종 분석이 가능하다. 단, 근로를 둘러싼 심리사회적 변수는 여전히 충분하지는 않고 아직 자료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제4장에서는 국내 빈곤층의 일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

하여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복지패널 2007년, 2006년 기준 조사를 모두 사용하였는데 각 년도마다 조사한 내용의 일부 변경이 있어 필요한 변수를 모두 분석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단, 일반 가구 사항 등은 자료의 매치를 통하여 통일하였다. 관련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와 함께 집단비교 그리고 근로와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로짓 분석, 회귀분석 등이 활용되었다.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대변하는 두 변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 중 본 연구는 우울감을 주로 활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이미 우울감이 우리나라 빈곤층의 주된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지목된 바 있는 반면 자아존중감은 계층 간 구별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이라는 새로운 발견을 위해서는 질적 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방법은 정책에서 등한시하기 쉬운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환기를 가능하게 하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라이트맨(Lightman)과 그의 동료들은(Lightman et al., 2005: 11) 질적 연구의 이점을 아래와 같이 역설하기도 하였다.

설문조사나 행정자료는 대상자들의 삶, 그들이 직면하는 일상적인 선택이나 결정의 성격, 복지와 근로가 그들의 기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통찰(insight)을 제공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질적인 종적 연구방법은 설문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깊이까지 파고들어가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들은 질적 인터뷰(interview)가 양적 분석에서 얻기 어려운 빈곤층의 행태와 관련된 새로운 단서(key)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분석결과에 기초한 정책 설계를 세련되도록 하는데 참고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질적 분석은 대상의 이해와 소비자의 접근에 개방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강점을 가진다. 양적 분석은 대개 선형적 인과관계를 전제로 이를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시도된다. 선형적 인과관계로는 빈곤층의 일상과 생활

사를 반영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중산층의 생활규범이나 양식 등을 준거로 놓게 되고 빈곤층 행태의 기저를 이루는 여타의 조건들을 이해하는 데 제한을 두게 된다. 반면 질적 연구는 세상의 복잡한 양상을 개방적인 상태에서 이해하고자 하며 당사자들의 주관적 세계 속에서 해석한다.

이러한 질적 사례연구는 독자 또는 연구의 소비자에게도 개방적인 접근을 하도록 지원하는데, 빌 맥켄지(Bill Mackenzie, 1975, pp.142-143)는 사례연구 방법의 강점을 논하면서, “사례연구 방법은 사실들을 구성하고 그것을 통해 사실들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이다. 독자들로 하여금 정보를 제공받은 위치에 서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료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독자는 결정하거나 일반화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단순히 다양한 상황의 경험을 배울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Evans, 1999에서 재인용). 위에서 언급한 질적 연구방법의 제 강점은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있어 필요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 믿었다.

최근 질적 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적 분석을 수행하면서도 질적 자료를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양적 분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된다. 런던(London et al, 2007)은 양적방법과 질적방법이 하나의 연구에서 동시 활용됨으로써 강점을 갖는다는 점을 증명해보이기도 하였다. 그의 연구는 미국의 복지개혁정책을 주제로 미국 패널 자료를 구성하고 이과 함께 일부 추가 표본을 대상으로 질적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결론적으로 혼용연구방법(mixed methods research)은 정책과 프로그램 효과 평가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질적 자료는 양적 자료로 예상하지 못한 통찰(insights)을 제공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양적방법과 질적방법을 혼용하는 방법은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후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 연구방법은 맥락이 다른 사회의 빈곤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질적 자료의 분석에서는 특정의 분석 방식을 고수하기 보다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의 구성과 자료의 개방적 해석에 집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지를 활용, 빈곤층 중 17개 사례를 심층 인터뷰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녹취된 자료는 콜린스와 로프터스(Collins and Loftus, 1975)의 연구를 참조로 언의망기법(technique of semantic networks)등을 참조하되 개방적인 의미를 주로 탐색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감성을 유지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여 녹취록을 검토하고 여기에서 표현된 빈곤층의 심리를 정확하게 정교하게 파악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연구의 진행기간 동안 심리사회학 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였다. 가장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 전문가로부터 연구방법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3-4회 얻었으며 이를 통하여 기존 질적 분석을 수행한 연구자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빈곤문제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 빈곤층의 각종 심리사회적 특성 중 유의할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FGI를 개최하여 빈곤층의 정서와 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인터뷰 내용구성이나 분석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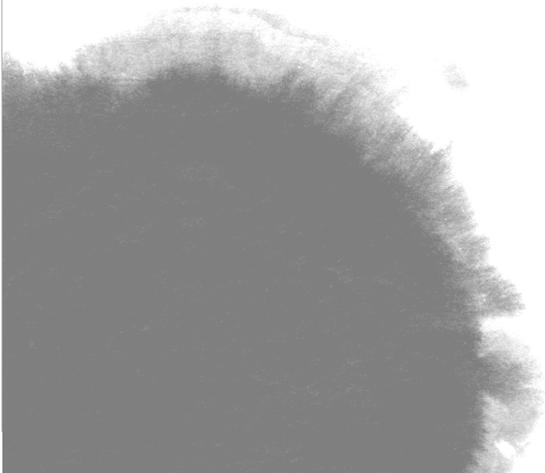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쟁점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일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성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더 좁게는 보편적으로 궁금해하는 근로동기의 수준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이다. 근로동기는 연구자에 따라 만족과 같은 태도나 성과와 같은 행위, 그 밖에 목표설정 등으로 다양하게 대변되어 왔다(Ambrose and Kulik, 1999: 232).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용한 자료의 제한으로 그 선택이 몇 가지로 한정되었다. 실제 일하는가 또는 일하지 않는 경우 일하고자 하는가, 또는 일을 더하려 하는가로 구성되는 질문 중 무엇이 가장 적절한 근로동기 대변변수인가?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경우 실제 근로하는지와 근로를 더하려 하는지 등을 모두 활용하였다. 실제 근로하는지는 환경적 제약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동기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일하고자 하여도 일할 수 없는 경우들은

매우 많다. 반면 더 일하고자 하는지, 일하지 않는 경우 일하고자 하는지는 근로동기를 표현하기에 현실성을 결여하였다. 도덕적 응답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일자리가 주어져도 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하여도 일할 것이라고 응답할 수 있다. 결국 가능한 모든 변수를 함께 분석에 활용하였다. 하지만 제4장의 근로에 대한 제 요인의 영향 분석에서는 근로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즉 근로여부가 근로동기를 대변하는 변수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빈곤여부는 자료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판정하였다. 중위소득 50%이하의 집단은 빈곤층으로 구분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중위소득 50%초과는 비빈곤층으로 구분하였다. 상세한 비교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비빈곤층을 두개 집단으로 재구분하였는데 중위 50%-150%를 중산층으로, 그리고 중위 150%초과를 상층으로 구분하였다. 제4장 국내분석에서는 주로 3개 집단을 비교하여 빈곤층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반면 제3장 국가 간 비교분석에서는 거의 모든 결과를 빈곤층과 상층만을 비교 제시하였다. 이유는 여러 국가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3개 집단의 결과치를 모두 제시할 경우 결과의 해석이 너무 방만해지기 때문이었다.

02

이론적 배경



제2장 이론적 배경

근로와 관련하여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특정한 태도의 형성 기제를 규명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근로에 대한 태도, 근로동기를 분석한 연구, 그리고 빈곤층의 심리적 특성 일반을 분석한 연구, 각각 분리된 두 영역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근로동기를 밝히고자 한 연구들은 대개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빈곤층의 근로동기를 초점으로 한 연구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연구도 과거 심리학 등 주요 학문분야에서 빈곤에 대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영향을 밝히는 접근을 주로 하여 왔으므로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결국 본 장에서는 근로동기에 관한 연구,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의 이론과 연구를 검토하고 각 이론이나 연구의 간접적 함의를 도출하여야 했다.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설명방식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모색하였다.

제1절 근로동기와 빈곤

근로동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영학에서 이루어졌는데 고용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빈곤층에 대

한 초점은 당연 미약하였다. 하지만 일반론의 수준에서 빈곤층의 근로동기의 특이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들을 얻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통적 근로동기 이론이며 비교적 강력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 동기이론과 기대이론은 아직도 유용하다. 그리고 빈곤층의 특이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하다. 특히 이 전통적 두 개 이론이 다른 이론들과 결합된 각종 연구들은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태도를 설명할 기반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이론적 배경의 연구들이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주제로 한 연구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변용이 요구된다.

1970, 80년대 풍미하던 동기이론들은 직업특성이 동기에 주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가장 대표적으로 헤르즈버그(Herzberg)는 근로동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의 영향이 존재한다고 구분하고 환경적 특성(forces)에는 조직의 보상체계나 수행하는 근로의 특성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고 반면 개인의 내재적 특성(forces)은 개인의 욕구와 동기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 뒤 이러한 구분을 활용하여 각 직역에서 어떠한 특성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지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Herzberg, 1982; Messey, 1997; Gabris and Simo, 1995; Vinokur-Kaplan, Jayarantne, and Chess, 1994, Ambrose and Kulik, 1999: 233에서 재인용). 대개의 연구에서는 내부적 요인의 영향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영역의 종사자들에게는 외부적 요인이 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승진기회와 직업적 도전이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기대이론에서는 성과기대가 주요한 동기로 작용한다. 즉 기대가 높으면 근로동기가 높아진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성과를 기대할만한 형평적인 환경인가도 관건이라는 연구들이 뒤를 이었다. 형평이론과 기대이론을 결합한 연구들은 형평이 성과에 주는 영향은 성과와 그 결과에 대한 기대사이의 유관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비형평적 보상은 내적 동기를 저하시킨다(Carr et al, 1996; Harder, 1991; Ambrose and Kulik, 1999, 244에서 재인용)는 점이 이 연구들의 골자이다. 또한 과

대 보상은 사람을 관대하게 만들고 낮은 보상은 이기적하도록 한다고 보아 보상의 형평성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도 간접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Harder, 1992; Harder, 1991; Ambrose and Kulik, 1999, 244에서 재인용). 즉, 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가능한, 형평성이 확보될 때에 성과에 대한 기대와 근로동기가 관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논리 선상의 연구들은 형평성의 경험과 근로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내놓았다. 보상을 덜 받은 사람은 성과를 줄이는 길을 선택한다거나, 또는 불안정한 조건에서 개인은 상황을 실제보다 단순하게 판단하고 분명한 것에만 자원을 할당하려한다는 등의 연구결과들이 보태졌다(Harder, 1991; Monge, Cozens and Contractor, 1992; Sawyer 1990, Ambrose and Kulik, 1999, 239에서 재인용). 이 밖에도 맥클랜드와 플란츠(McClelland and Franz, 1992)는 초기 2살까지의 성취를 압박하는 양육이 성인기의 성취욕구와 소득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그의 연구에서 주장한 바도 있다.

기존 이론들을 종합하면 초기의 근로동기에 대한 연구들에서 내적 동기가 중요함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 동기의 제고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인지 내적 동기에 대한 후속연구들은 활발하지 않다. 반면 기대이론 등의 후속연구들이 보상을 강조하면서 근로동기를 제고하기 위한 해법 중 가장 분명한 것은 높은 보상이나 승진에 대한 보장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하지만 이러한 해법은 현실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특히 빈곤층의 일은 높은 임금이나 승진과 거리가 멀고, 빈곤층의 일에 대한 태도가 이러한 요인들에 의하여만 좌우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태도는 내적 요소에 의하여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외적 요소들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빈곤층은 내적 요인에 의하여 근로동기가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빈곤층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기대와 동기를 갖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동기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승진이나 보수와 같은 외적 영향요인은 빈곤층에게 쉽게 보장되지 않고 당연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결국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이러한 반복은 동 세대에서만 진행되는 것

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근로에서 자기가 참여하는 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자기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 이러한 자기참여의 가능성 여부는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이성이 형성되는 내부적 기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근로동기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산업체 현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양적 분석을 시도한다. 최근에는 국제적 자료가 생산되면서 국가 간 비교를 통하여 사회마다 근로동기가 다른 점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인 듯 하다. 국가 비교연구는 근로동기를 문화적 배경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들과 관련된다. 최근에는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근로동기를 분석한 연구들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 연구들도 빈곤층을 초점으로 이들의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비교하거나 규명하고 있지 않다.

헬트와 스발포스(Hult & Svallfors, 2002)는 뉴질랜드, 미국, 영국, 서독, 스웨덴, 노르웨이를 대상으로 하여 생산태도와 근로지향성의 국가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근로지향성은 근로몰입과 조직몰입의 개념으로 구성하였는데,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상대적으로 근로몰입이 강한 국가였다. 이는 이들 국가의 사회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제도적 이데올로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석하면서 대부분의 성인인구집단을 근로로 통합하려는 근로강조메커니즘(work-enforcement mechanism)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관대한 복지국가에서 근로윤리가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국가 간 조직몰입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안돌섹과 스테베(Andolsek & Stebe, 2004)는 서독, 동독, 일본, 헝가리, 슬로바니아, 영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비교하였다. ISSP WORK ORIENTATION 1997년 자료를 사용한 그들의 분석에서 조직몰입은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조직에 대한 정서적 밀착과 관계된 감정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조직을 떠날 때의 비용에 대

한 인식과 관계된 유지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의 일을 지속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의무감과 관계된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이 그 것이다.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감정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에 한정하여 연구한 결과 각 국가들에서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달랐다. 좋은 직업 보상(보수, 직업자율성, 직업이 갖는 사회적 의미)과 조직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일에 대한 의미부여 3가지 요인은 모든 국가에서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모든 국가의 조직몰입에 대해 이 3가지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개인주의적인 국가에서는 일에서의 물질적인 요소가 중요한 반면 집합주의적 국가들에서는 비 물질적인 요소(직업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이타성)가 결정적이었다. 저자들은 감정적 몰입의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일 윤리(work ethic)와 같은 문화적 요소라고 언급하면서 근로자들이 그 사회 혹은 공동체에서 느끼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가치 부여가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개인주의적이거나 집합주의적이냐라는 문화적 배경도 감정적 몰입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직업의 불안정성은 지속적 몰입에 영향을 주는 가장 유의미한 요소이며, 높은 직업불안정성은 낮은 몰입(감정적, 지속적 몰입 둘 다)을 가져온다고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지속적 몰입은 그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김(Kim, 2008)은 일가치(work values), 일보상(work rewards), 일지향성(work orientations)²⁾의 복잡한 상관관계에 대한 비교문화적 설명을 목적으로 한국과 일본, 미국, 그리고 스웨덴을 비교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근로지향성과 일가치, 그리고 보상이 국가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둘째, 실제 일에 대한 보상과 인식(valuation)의 차이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차이를 보인다면 어떤 요인과 관련이 있는지, 셋째, 근로자의 근로지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 요인이 국가별로 어떻게 다른지, 또

2) ISSP 2005년 WORK ORIENTATIONS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일가치는 직업선택에서의 보수, 승진, 직업안정성, 직업자율성의 중요성으로 구성하였으며, 일보상은 보수, 승진, 직업안정성, 그리고 근로지향성은 직업만족도와 조직몰입도로 구성하였다.

한 일기치와 일보상의 상호작용이 국가별로 근로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양의 근로자와 비교할 때 아시아의 근로자들이 그들의 직업과 조직에 관해 덜 긍정적인 근로지향성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한국의 근로자들은 보수와 승진, 직업안정성과 같은 보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일본의 근로자들은 승진과 직업안정성 그리고 직업자율성에 관해 낮은 가치를 두었다. 셋째, 대부분의 직종에서 아시아의 근로자들은 서양의 근로자보다 보수를 중요시 한 반면에 직업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간주하였다. 넷째, 한국의 근로자들은 실제 일보상과 인식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모든 나라에서 실제 일보상과 인식의 차이가 클수록 부정적인 근로지향성을 보였다. 다섯째, 근로지향성(직업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보수, 직업안정성과 직업자율성, 그리고 연령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위의 연구들은 빈곤층을 초점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사회마다 근로에 대한 특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일천한 사회에서 근로동기는 보수나 승진과 같은 요소에 의하여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의 영향은 일반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비빈곤층과 달리 보수나 승진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할 수 없는 빈곤층은 일에 대한 의미 부여와 같은 요인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별 근로지향성에 차이를 연구한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몇편 있으며, 국가별 근로지향성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국가의 문화적 배경과 경제적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문화적 배경과 경제적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근로에 대한 태도 등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한 사회 내에서도 계층별로 그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복지의 존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사회정책이 발전한 나라나 그렇지 못한 나라나 사회정책이 빈곤층의 근로동기를 저하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각종 정책이 빈곤층을 더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도 확산되고 있으며 실제 정책도 근로기회 제공, 또는 근로에 대한 조건화로 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시도들이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심리 사회적 특이성을 규명하지 못하였거나 미흡한 수준의 이해에서 출발하였다고 우려된다. 그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빈곤층의 일에 대한 태도를 문화와 계층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분석한 연구들을 그리 많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2절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근로

외국의 경우에도 빈곤층의 근로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반면 빈곤층의 심리적 특징을 연구의 주제로 한 사례는 매우 많아 그 이론적 축적이 만만하지 않다.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심리학분야에서 방대하게 축적되어 왔다. 심리학에서 진행되었던 빈곤층에 대한 연구는 대개 빈곤의 원인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개인 대 환경으로 양분된다. 즉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지 아니면 환경에서 찾는지에 따라 연구자의 입장이 갈라졌다. 1980년대 까지만 하여도 심리학이론들은 빈곤의 원인과 영향을 설명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역할을 강조하였다(Turner & Lehning, 2007: 57). 가장 극단적으로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내재적인 생물학적 요인에서 찾기도 하였는데 지능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예에 속한다. 개인적 결함에서 빈곤의 원인을 찾는 연구들은 지능 외에도 성취의욕이나 학업성취도, 도덕적 결함, 심리적 허약함 등으로 개인적 요인에 계속 주목하여 왔다.

빈곤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크게 3가지 흐름에서 연구되었다. 첫째, 사회적 원인론(social causation)으로 빈곤한 상태의 지속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입장이며, 둘째 사회적 선택론(social selection)

으로 부정적 정신건강이 원인이 되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이동하게 된다는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성향(dispositional)이 사회경제적 지위도 낮게 만들고 정신적 문제도 유발하게 된다고 가정하는 관점이다 (Bellsouth, 2002; 엄태완, 2008b에서 재인용: 41). 사회적 선택론이나 개인적 성향의 결정론 모두 결국 개인적 결합에서 빈곤의 원인을 찾는 입장이라 하겠다. 하지만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심리학분야의 시각은 변화되기 시작한다(Turner and Lehning, 2007: 63).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요인들이 빈곤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하층이 자원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상위계층이 사회구성원을 상층과 중간층 그리고 하층으로 구분한다고 접근하는 “사회적 빈곤(social poverty)”의 개념이 등장하기도 한다. 상층은 경제적 통제를 하여 하층이 경제적 빈곤상태에 머무르게 하고 그들의 힘을 유지한다는 입장이 사회적 빈곤의 핵심내용이다(Turner and Lehning, 2007: 65). 이러한 입장에서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실패에서 찾기보다는 사회경제적 구조나 체계적인 원인에서 찾는다.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 사회전체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어 생애 전반에 그 영향이 존재한다고 보고 그 영향이 인간의 태도뿐 아니라 생활방식의 개발에까지 미친다고 본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빈곤이 빈곤층의 정신질환을 야기하는 것 뿐 아니라 개인적 성격을 비롯한 사회적 영향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국내외 다수의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신질환 유병률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노병일·곽현근, 2005; 박상규·이병하, 2004; 엄태완, 2006; Dooley and Prause, 2002; Link et al., 1993; Miech and Shanahan, 2000; Mirowsky and Ross, 2001; 엄태완, 2008a 재인용). 정신질환이 아니라도 빈곤층의 부정적 심리상태를 규명한 연구들은 적지 않다. 빈곤층의 또 다른 대표적 특성으로 지목되는 것은 통제영역과 관련된다. 통제의 영역(locus of control)은 사건의 과정에서 스스로를 책임이나 통제를 가진 이

로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빈곤층은 통제감이 낮아 기대하는 수준도 낮고 운을 믿으며 쉬운 길을 택한다는 결론의 연구들이 적지 않다(Pinol & Uralde, 2005). 위의 연구경향은 빈곤과 개인의 심리에만 집중하고 현상에 한정하는 문제는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 근원에 대한 의문은 도외시되기 일쑤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어느 하나의 이론적 모델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빈곤과 정신건강의 상호관련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엄태완, 2008a). 사실 빈곤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도 인정이 되고, 반면 정신건강의 문제가 빈곤의 원인이 된다는 입장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모호함의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자료의 제한, 분석방법의 한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정신적 문제와 경제적 상황을 동시에 파악하는 각종 자료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 선후를 분명하게 하기가 어렵고 양적분석에서도 그 선후를 분명하게 가르는 방법이 개발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계의 존재만이 확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정신질환을 벗어나 빈곤층의 태도나 성격적 특이성을 밝히고자 시도한 연구들이 몇 편씩 발견된다. 맥피와 그 동료들은(McPhee, Debra M. & Bronstein Laura R., 2003) 근로가능 연령의 빈곤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특징을 찾고자 하였다. 그는 이들이 그들의 생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통제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고 이를 위하여 수급의 조건을 갖추고자 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그 내용보다는 수급의 조건으로 유리하다는 형식 상의 의미를 강조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빈곤여성들이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중산층가치에 의해 배태된 것이며 가용한 자원과 야심찬 목표 간의 괴리가 존재하며, 필요한 구체적 기술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다소 둔감함을 보인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빈곤층이 통제나 독립에 대한 열망이 크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 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테레사(Teresa, 2008)는 빈곤에서 벗어난 집단에 대한 연구에서 빈곤을 벗어난 사람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사회문화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빈곤을 탈피하지 못하고 여전히 빈곤한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들의 은혜를 인정하지만, 운명에 의존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위 연구들은 빈곤층의 심리적 특성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규명하고 있지만 역시 빈곤층의 이러한 특이성이 형성되는 기제나 극복의 단서를 찾지는 못하고 있다.

빈곤층의 근로를 초점으로 심리사회적 특징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매우 드물다. 역시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이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또 다른 주요 이유는 아직 빈곤층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빈곤층의 근로 관련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다룬 연구는 외국에서도 매우 드물다. 고트셴크(Gottschalk, 2005)는 실업보다 취업한 사람들이, 파트타임보다 풀타임 근로자가 자기효능감이 높아 긍정적 믿음이 강하다는 점과, 젊은 층에서는 일의 경험이 긍정적 믿음을 생산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오랜 동안 일과 믿음(beliefs)의 동시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즉 일이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이 일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는 빈곤과 심리사회적 특징 간의 관계와 유사하게 선후를 가리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일의 경험을 통한 믿음의 변화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실험 자료를 사용하였다³⁾. 독립변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만 종속변수와는 무관한 도구변수를 사용하였는데 임금보조금이 도구변수로 투입되었다. 즉 임금보조금은 독립변수인 근로와 관련되면서 종속변수인 믿음과는 관련성이 없는 변수로 투입되었다. 장기수급자를 대상으로 실험그룹과 비교그룹으로 무작위 할당 후 임금보조금을 지급한 36개월 뒤 추후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실

3) 우리나라도 기존의 생산 보급되는 자료는 이러한 분석에 활용하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빈곤층의 과거 일 경력의 심리사회적 특이성과 현재 근로상태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업보다는 취업한 사람들이, 파트타임보다 풀타임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일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젊은층에서의 일의 경험이 긍정적 믿음을 이끌어 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일과 믿음의 동시성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결과적으로 과거 일의 경험이 현재의 심리사회적 태도를 형성한다는 접근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심리사회적 특성이 빈곤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아직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특이성의 형성과정은 빈곤에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다. 오랜 시간동안 빈곤에 노출된 빈곤층의 환경적 요인을 특이성의 배경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되, 시간적 배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의 경험을 극복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최근에는 빈곤층 중 빈곤의 위험요소들을 극복하는 인물들의 특성을 찾고자 하는 연구들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과거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 둔 접근과는 다른 것으로 빈곤층 내부의 강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게미지(Gamezy)는 빈곤층 중에서 위험한 요인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은 일정한 특징을 갖는다고 점을 발견하였다(Gamezy, 1985; Turner and Lehning, 2007: 68에서 재인용). 이들은 원기회복의 힘(resilience)을 가지고 있어 이 힘이 위험요인들에 대처하여 적응적이도록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보호적인 요소(protective factors)나 긍정적 요소의 도움으로 이러한 원기회복이 가능해진다고 보고 보호적 요소 3가지를 제시하였다. 긍정적인 성격과 같은 기질적인 특징, 견고한 가족 간 관계와 같은 가족환경, 확장된 사회적 지지와 같은 가족 외부의 사회환경이 그 것들이다. 보호적 요소들은 위기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부정적 순환을 줄이며 자존감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사회를 개선하여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제3절 무엇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관련 이론이나 연구들을 보면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우선 근로와 관련하여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이성과 그 형성 기제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근로동기에 관한 연구들은 빈곤층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결국 보수나 승진과 거리가 먼 빈곤층의 환경에서 결과되는 동기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회정책에 대한 관심의 고조에서 비롯된 국가 간 근로동기의 비교연구에서조차 빈곤층에 대한 분석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 심리학계의 연구들은 빈곤층의 개인적 측면에 많은 강조를 두어 사회적 영향이나 심리사회적 특성이 형성되는 기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기회를 잃었다. 결국 두 분야의 연구 모두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더욱 가중되는 빈곤층의 어려움을 줄여줄 단서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오랜 동안 완전고용상태를 유지한 나라이다. 이러한 호조건의 경제상황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빈곤층은 더 무기력하고 부정적 심리사회적 특성을 가질 위험이 높다. 또는 실업이나 복지의존의 역사가 짧아서 근로에 대한 적극성은 유지되나 근로에 대한 의지가 좌절될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은 더 심하고 만족은 낮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논할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앞의 이론적 검토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빈곤층은 일반층이 보수나 승진을 중요한 동기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일의 의미나 소양과의 조화를 더 중요한 동기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복지가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매우 취약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할 경우 승진이나 보수에 대한 기대는 좌절되고 단지 일의 의미를 확보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대한 특이성은 과거 오랜 빈곤경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밝히고 이를 극복할 단서들도 발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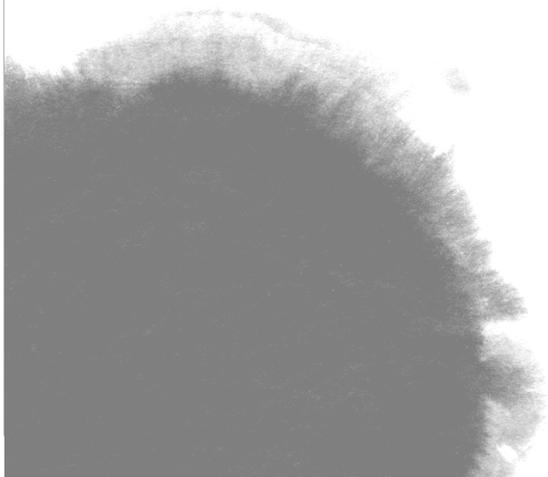
빈곤층이 근로와 관련하여 갖는 심리사회적 특이성은 개인의 내재적 특이성이라기 보다 사회적 상황에서 습득, 체화되는 것으로 비교적 중장기적인 경험의 영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빈곤층의 이러한 심리사회적 특이성이 형성되는 기제를 규명하여 어떻게 이러한 특이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심리사회적 특성이 빈곤의 원인인지 결과인지에 대하여 과거의 기록을 활용하여 나름의 규명을 시도하고 질적 분석을 통하여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이성이 형성되는 기전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빈곤층의 일상적인 부정적 배제경험과 그 결과로서의 빈곤층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이끌어준 로트(Lott, 2002)의 연구는 의미가 크다. 로트는 빈곤아동이 빈곤지역의 상점에서 경험하는 범죄자 취급이나 대학진학의 명단에서 사전 배제되는 빈곤층 고등학생 등의 사례를 들어 빈곤층의 오랜 경험이 어떻게 축적되어 가는지를 실감나도록 전달하였다. 혹자는 이러한 빈곤층에 대한 이해방식에 대하여 객관성의 문제를 제기할 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전달은 빈곤층이 왜 빈곤층으로 남겨지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개인과 사회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그래서 빈곤 상황에 의하여 이러한 상호작용이 어떻게 악화되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Turner & Lehning, 2007, 71). 이러한 방식으로 빈곤을 이해하고 희생자인 빈민을 비난하였던 과거 역사를 깊이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는 빈곤을 제거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03

국가 간 근로 관련 심리사회적 특이성
비교



제3장 국가 간 근로 관련 심리사회적 특이성 비교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빈곤층의 일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 간 비교를 하였다. 국가 간 비교는 과연 우리나라 빈곤층의 일에 대한 태도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유사한 특징을 갖는지 아니면 독특한 특이성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리고 만약 특이성을 갖는다면 그 특이성의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빈곤층의 근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나라 빈곤층의 일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설왕설래, 여러 가지 입장을 내어놓기가 바쁘다. 우리나라 빈곤층은 다른 선진복지국가의 빈곤층과 달리 높은 수준의 근로의지를 갖고 있으며 - 물론 그 배경으로는 발달하지 못한 사회정책과 그 결과로 초래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어떠한 노동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 다른 계층과 구분하기 어려운 근로에 대한 태도를 지닌다고 보는 입장과 사회정책이 발달 - 대표적으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영향을 거론하기도 한다 - 하면서 우리나라 빈곤층도 이제 일을 덜하려 한다는 우려의 입장도 있다. 또 다른 입장은 근로가 가능한 빈곤층의 빈곤이 장기화되면서 일과 근로라는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그래서 빈곤층이 일에 대한 기대가 낮아져서 더 이상 일에 대하여 강한 동기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내놓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일에 대하여 어떠한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회정책의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심리사회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절대적 특성보다는 외국과의 비교를

통한 특이성의 확인이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할 것이라 기대한다. 단지 아직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성을 국가 간 비교를 통하여 규명하고자 한 연구가 일천하므로 본 절의 분석은 다분히 탐색적 수준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혀야겠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더 정교한 후속연구의 추진에 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제1 절 자료 및 분석방법

1. 자료의 설명

국제비교를 위하여 ISSP(Internal Social Survey Programme) 중 2005년 근로지향성에 대한 조사(Module on Work Orientation) 자료를 활용하였다. ISSP 자료는 1984년, 영국과 호주가 참여하면서 조직되었으며 매년 이루어지는 조사마다 참여하는 국가의 수는 다소 달라지지만 최근 약 4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이후 우리나라도 참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참여한 2005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2005년 근로지향성에 대한 조사는 주로 노동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는 2005년 2월 ~ 2007년 2월 사이에 진행되었고 18세 이상 성인 중 다단계 층화 무작위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참여국은 31개국으로 호주, 불가리아, 캐나다,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독일, 핀란드, 벨기에, 프랑스, 영국,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포르투갈, 러시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타이완, 미국이다. 이 중 분석대상 국가는 호주, 독일, 영국, 미국, 아일랜드, 캐나다, 스위스, 일본,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한국으로 15개국이다. 분석에서 제외된 국가는 소득변수가 불안정하거나, 요인분석에서 대다수의 나라와 다르게 요인이 묶인 국가들로 비교의 어려움이 있던 국가들이다. 사

회주의 체제의 국가들도 자본주의 국가군과의 비교가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자료의 주요 변수는 근로동기, 근로관련 주요하다고 인식하는 사항, 일에 대한 태도, 선호하는 직무형태, 추가근로동기, 본인 직업에 대한 평가, 근로의 영향, 일에 대한 통제력 인식, 과거의 직업이력과 현 직업의 관계, 미래 직업이동에 대한 과거 이력의 영향 전망, 일터의 인간관계, 직업에 대한 만족, 이직에 대한 두려움, 구직방식이나 일을 그만둔 이유, 경제적 지원의 원천, 본인에 대한 평가 등 근로 관련 변수와 성별, 나이, 결혼상태, 가구원, 교육정도, 현재 고용상태, 소득, 가구규모 등 경제활동 및 인구학적 일반 사항의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2. 변수설명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ISSP 2005년 자료는 근로지향성(work orientation)에 대한 조사이다. 인적 사항 및 근로실태 등과 관련된 변수들은 일반 자료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별도의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 조사의 핵심이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근로지향성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과학자들이 종종 사용하는 근로지향성이라는 용어는 노동자가 일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근로지향성의 체계적인 의미와 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한다(Barber 1995; Blau 1960; Hall et al. 1970; Landsman 2001; Miller et al. 1995; Faye, 2007 재인용).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개념에 대하여 정의할 때는 매우 포괄적인 입장을 보인다. 페이(Faye, 2007)는 근로지향성의 의미를 일 가치에 대한 태도를 넘어서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개념은 일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일에 대한 태도, 일의 의미, 일에 대한 만족, 직업선택의 요소 등)들에 관해 조사자가 한꺼번에 결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언급했다. 허트와 스발포스(Hult & Svallfors, 2002)는 근로지향성이라는 개념은 일

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들의 연구에서는 고용몰입(employment commitment: 지불노동에 대한 개인의 비경제적 몰입도)과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특정 회사, 직업, 조직에 대한 충성 정도)으로 한정하여 연구하고 있다. 한편 김(Kim, 2008)은 근로지향성은 직업만족과 조직몰입도라는 두 개념을 포괄하는 의미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근로지향성을 일의미(work values)와 일보상(work rewards)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근로지향성을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 개념은 일에 관한 근로자의 태도, 가치, 몰입정도, 만족도 등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일에 대해 가지는 다양한 측면의 접근방식을 뜻한다. 또한 연구자로 하여금 일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결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SSP의 근로지향성 조사에서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태도를 구성하는 변수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페이의 연구에서 사용한 일의미(work value)로 표현된 직업선택의 주된 요소와 헨트와 스발포스의 연구에서 근로몰입으로 표현된 근로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조직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과 직업만족도가 그 것이다.

직업선택의 주된 요소는 직업 선택에서의 개인적 중요성을 묻는 8가지 질문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8가지의 질문은 직업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하위 영역으로 재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한 측면이 함께 질문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동기에 대한 연구에서 크게 대별하는 요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변수의 재구성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통하여 주 요인을 추출하고 척도로 구성하였다.

근로에 대한 태도는 근로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접근하는지 아니면 비경제적으로 접근하는지 여부로 구성되는데 앞의 선행연구에서 근로몰입이라고 할 때는 지불노동에 대한 개인의 비경제적 몰입도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내가 돈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일은 기쁨이 된다’

에 대한 동의가 강할수록 높은 점수로 처리된다. 조직몰입은 일반적인 정의와 같이 특정 회사, 직업, 조직에 대한 충성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자신이 속한 고용처에 대한 충성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로 처리된다. 직업만족도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7점 만족으로 측정되었다.

〈표 3-1〉 일지향성 관련 변수의 구성

개념	항목	척도 유형
직업선택의 주된 요소	직업안정성	전혀 중요하지 않다(1) ~ 매우 중요하다(5)
	높은 소득	"
	발전을 위한 기회	"
	일의 흥미로움	"
	독립적인 근로환경	"
	타인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	"
	사회에서의 유용성	"
	근로시간조절의 자율성	"
근로에 대한 태도 (근로몰입)	일은 돈을 버는 수단이다	매우 그렇다(1) ~ 매우 그렇지 않다(5)
	내가 돈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일은 기쁨이 된다	매우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조직몰입	회사의 성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한다	"
	나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
	다른 직장에서 스카웃 제의가 와도 거절할 것이다.	"
직업만족도	당신의 직업에 얼마나 만족합니까?	전적으로 불만족(1) ~ 전적으로 만족함(7)

3. 분석방법

우리나라의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관련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이 기술통계는 그 자체로 한국 빈곤층의 일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근로와 관련된 여타의 분

석결과를 이해하는 기반이 된다. 계층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계층을 구분하였는데 중위소득 50%미만이 빈곤층, 중위소득 150%이상이 상층으로 구분되었다. 계층별로 선명한 비교를 위해 빈곤층과 상층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중산층까지 비교집단으로 제시할 경우 비교하여야 하는 특성이 너무 산만해져서 독자들의 이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였다. 계층 비교의 목적은 특정한 요소가 과연 빈곤층의 고유한 특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층과의 비교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15개국 계층별 근로지향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군집분석법(Cluste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은 실험의 결과나 표본 등에서 얻어진 케이스들을 다양한 특성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질적인 몇 개의 군집(cluster)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서동명, 2008). 즉,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을 ward 법을 이용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요인값은 해당 변수값의 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군집분석으로 나누어진 집단별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근로에 대한 태도 중 가장 주목받는 문제인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동기를 결정하는 주 요인이 무엇인지를 로짓분석이나 다항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여 파악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국가 간 차이와 개인 요인의 영향을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즉 국가별 차이를 통제하고도 개인요인의 영향이 유의미한가, 또는 개인요인 등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국가 간 차이의 영향이 유의미한가를 살펴보았다.

제2절 근로형태와 근로동기 비교

1. 고용상태 및 고용형태

국가별 전계층의 고용상태는 아래의 <표 3-2>와 같다. 한국의 경우 전일제 고용이 43.7%, 파트타임 근무가 12.0%, 가족종사자가 3.3%, 실업이

4.4%, 학생 및 직업훈련이 8.2%, 은퇴가 10.9% 가사일·주부가 15.5%, 장애와 기타가 각각 1.4%와 0.8%로 나타났다. 전일제 고용과 파트타임 근무, 가족종사자까지 합쳐서 61.3%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고용상태의 경우 전일제 고용과 파트타임 근무의 비율은 15개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가족종사자가 3.3%로 일본에 이어 평균보다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이는 자영업 종사자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징으로 인한 것이라 추정된다. 또한 사민주의 국가(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들과 더불어 학생이거나 직업훈련 등의 이유로 인한 비경활 비율이 15개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가사일로 인한 비경활 비율도 15.5%로 일본, 아일랜드와 더불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일제 고용과 파트타임, 그리고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소득을 위한 근로를 하는 인구의 비율이 영국, 아일랜드, 일본과 더불어 낮은 편에 속하였다.

〈표 3-2〉 국가별 전계층 고용상태 비교

(단위: %)

국가	전계층								
	전일제 고용	파트 타임	가족 종사자	실업	학생/ 직업 훈련	은퇴	가사일	장애	기타
호주	46.4	19.7	1.4	1.5	1.5	14.9	9.4	3.8	1.4
독일	40.4	8.1	0.1	9.0	2.8	28.0	7.8	0.0	3.9
영국	38.8	15.6	0.0	2.7	1.9	28.2	7.4	4.7	0.7
미국	57.5	9.5	0.0	2.9	2.8	12.4	10.5	0	4.4
아일랜드	42.4	13.3	0.3	2.7	2.4	17.6	15.8	3.3	2.1
노르웨이	62.9	8.4	0.3	2.1	8.5	8.4	2.0	5.4	1.8
스웨덴	56.4	14.5	0.5	4.0	7.0	13.5	0.2	3.8	0.1
뉴질랜드	51.1	20.4	0.6	5.1	2.9	13.2	5.9	0.9	0.0
캐나다	54.3	11.0	0.6	2.0	2.0	23.6	3.7	0.6	2.3
일본	46.9	14.7	3.4	1.0	0.6	12.1	17.9	3.4	0
프랑스	58.4	16.1	0.2	4.2	2.2	12.6	3.9	1.1	1.4
덴마크	64.8	8.4	0.1	2.3	7.0	10.5	1.5	4.1	1.3
스위스	42.9	21.9	0.1	1.7	1.1	22.6	4.3	2.3	3.1
핀란드	53.2	7.5	0.6	5.3	9.2	19.8	2.0	0.0	2.5
한국	43.7	12.0	3.3	4.4	8.2	10.9	15.5	1.4	0.8
평균	51.3	13.2	0.8	3.6	4.3	15.9	6.9	2.3	1.8

국가별 빈곤계층의 고용상태는 아래의 <표 3-3>과 같다. 한국 빈곤계층의 고용상태는 전일제 고용이 21.2%로 15개국 평균인 18.9%보다 높았으며, 파트타임 근무의 경우는 7.5%로 15개국 평균인 13.3%보다 낮았다. 가족종사자의 비율은 7.5%로 15개국 중 가장 높았으며 실업은 9.2%로 평균 수준이었고, 학생이나 직업훈련으로 인한 비경황 비율은 9.2%, 은퇴는 33.4%, 가사일로 인한 비경황은 8.2%, 장애 2.7%, 기타는 1.0%를 차지하였다.

<표 3-3> 국가별 빈곤계층 고용상태 비교

(단위: %)

국가	빈곤계층								
	전일제 고용	파트 타임	가족 종사자	실업	학생 직업 훈련	은퇴	가사일/주부	장애	기타
호주	13.5	18.1	2.7	4.9	2.4	26.8	18.1	10.5	3.0
독일	11.5	3.8	0.0	38.2	7.6	22.1	6.1	0.0	10.7
영국	6.3	12.6	0.0	9.8	1.4	37.8	16.8	13.3	2.1
미국	36.1	12.5	0.0	5.0	5.3	15.7	14.7	0.0	10.7
아일랜드	9.7	12.9	0.0	10.8	5.4	20.4	20.4	14.0	6.5
노르웨이	18.6	3.6	0.6	7.2	44.9	9.0	1.8	8.4	6.0
스웨덴	20.2	11.1	1.0	7.1	34.3	19.2	2.0	5.1	0.0
뉴질랜드	13.9	21.8	1.5	16.2	5.6	30.1	8.3	2.6	0.0
캐나다	31.8	14	1.6	3.9	4.7	27.1	9.3	1.6	6.2
일본	22.9	17.1	1.4	2.9	0.0	24.3	20.0	11.4	0.0
프랑스	26.2	18.9	1.2	11.0	6.7	11.0	14.6	5.5	4.9
덴마크	13.9	13.5	0.0	3.5	26.9	24.9	4.5	7.5	5.5
스위스	22.2	12.3	0.0	4.9	6.2	38.3	2.5	6.2	7.4
핀란드	8.0	11.3	0.7	15.3	28.0	30.0	4.0	0.0	2.7
한국	21.2	7.5	7.5	9.2	9.2	33.4	8.2	2.7	1.0
평균	18.9	13.3	1.6	9.6	11.7	24.6	10.6	5.4	4.4

빈곤계층의 전일제 고용이 높은 나라는 미국 36.1%, 캐나다 31.8% 등이었고, 파트타임 근무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 21.8%, 프랑스 18.9%, 호주 18.1%의 순이었다. 한 가지 특징적인 사실은 사민주의 국가에서 빈곤계층의 비경황 사유 중 학생이거나 직업훈련으로 인한 비율이 다

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점이다. 15개국 평균이 11.7%인데 비해서 노르웨이는 44.9%, 스웨덴은 34.3%, 덴마크는 26.9%, 핀란드는 28.0%로서 매우 높았다. 이는 사민주의 국가가 빈곤계층의 교육이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직업훈련 등에 많은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그에 비해 일본(0.0%), 영국(1.4%), 호주(2.4%), 캐나다(4.7%), 미국(5.3%) 등 자유주의 국가군에 속하는 국가에서는 빈곤계층의 비경활 사유 중 학업이나 직업훈련으로 인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

위의 표에서 보면 우리나라 빈곤층 중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빈곤층 중 노인의 비율이 높아서 은퇴의 비중이 높지만 전일제고용과 파트타임, 그리고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낮지 않다. 그리고 복지의존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을 것으로 짐작되었던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빈곤층 중 근로를 하는 인구의 비중도 낮지 않았다. 하지만 고용상태에 대한 해석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빈곤층 중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빈곤층의 근로동기의 수준을 시사할 수도 있지만 반면 일하지만 임금이 낮아서 빈곤한 사람의 비중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국의 계층별 고용형태는 아래의 <표 3-4>와 같다. 한국의 경우 정부, 공공기관 및 국영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의 비율은 빈곤층의 경우 3.4%, 상층은 9.4%로 15개국 평균인 19.8%, 30.4%와 비교 할 때 턱없이 낮았다. 민간기업 근무의 경우 빈곤층의 경우 28%로 평균인 60.3%보다 매우 낮았으며 상층의 경우는 62.7%로 평균인 53.6%보다 높았다. 빈곤층의 자영업 비율의 경우 68.6%로 15개국 중 가장 높았다. 종합해보면, 한국의 경우 빈곤층과 상층 모두 공공기관이나 국영회사에 근무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낮으며 민간기업의 경우 빈곤층의 근무비율은 매우 낮지만, 상층의 경우는 15개국 평균보다 높았다. 자영업의 비율은 빈곤층과 상층 모두 평균보다 높았으며 특히 빈곤층의 자영업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 통계는 우리나라 빈곤층이 얼마나 불안정한 일에 종사하는지를 암시한다.

빈곤층의 공공기관의 근무 비율이 높은 나라는 스웨덴 47.3%, 덴마크

42%, 캐나다 32.1%, 핀란드 30.7%의 순이며, 노르웨이의 경우도 25.6%로 평균보다 높아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사민주의 국가들에서 그 비율이 높다. 사민주의 국가에 빈곤층을 위한 공공 영역에서의 보호된 일자리가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4〉 국가별 고용형태 비교

(단위: %)

국가	정부,공공기관 및 국영회사		민간기업		자영업		NGO(영국)	
	빈곤	상층	빈곤	상층	빈곤	상층	빈곤	상층
계층구분	빈곤	상층	빈곤	상층	빈곤	상층	빈곤	상층
호주	17.9	29.1	69.8	58.2	12.3	12.6	—	—
독일	1.8	25.3	93.8	61.3	4.4	13.4	—	—
영국	15.4	34.5	76.6	47.6	7.3	13.8	0.7	4.0
미국	9.8	25.2	80.1	55.4	10.1	19.4	—	—
아일랜드	19.3	36.7	60.2	52.7	20.5	10.6	—	—
노르웨이	25.6	38.8	63.6	43.8	10.9	17.4	—	—
스웨덴	47.3	31.8	40.7	54.4	12.1	13.8	—	—
뉴질랜드	24.4	34.9	54.4	46.6	21.3	18.5	—	—
캐나다	32.1	44.4	52.8	45.5	15.1	10.1	—	—
일본	3.1	16.7	56.3	51.0	40.6	32.3	—	—
프랑스	25.7	33.3	57.1	58.7	17.1	7.9	—	—
덴마크	42.0	35.8	47.5	47.8	10.5	16.4	—	—
스위스	17.3	27.3	58.7	60.6	24.0	12.1	—	—
핀란드	30.7	47.6	47.6	43.2	21.8	9.2	—	—
한국	3.4	9.4	28.0	62.7	68.6	27.9	—	—
평균	19.8	30.4	60.3	53.6	19.8	5.7	0.1	0.3

2. 근무시간 및 선호하는 근무시간과 급여 비교

근무시간 및 선호하는 근무시간/급여에 대한 국가 간 비교 결과는 아래의 <표 3-5>와 같다. 한국의 경우 빈곤층의 전일제 근무의 비율은 평균인 49.8%보다 낮은 37.6%이며, 상층의 전일제 근무의 비율은 평균인 55.7%보다 낮은 45.8%여서 빈곤층과 상층 모두 전일제 근무의 비율이 분석 대상 국가 평균보다 낮았다. 그에 반해 30시간 미만 파트타임 근무의 경우는 빈곤층 35.7%와 상층 44.4%로 두 계층 모두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

다. 10시간 미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비율의 경우 한국의 빈곤층은 14.1%로 일본의 17.3%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비근로의 경우는 평균인 10.2%보다 약간 높은 12.5%의 비율을 나타냈다. 한국 빈곤층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이유는 한국의 빈곤층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이 노령층이거나 직접적인 가족의 케어를 담당해야 하는 중장년 여성이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표 3-5〉 국가별 근로시간 형태 비교

(단위: %)

국가	30시간이상의 전일제 근무		30시간미만 파트타임근무		10시간미만근무 파트타임근무		비근로	
	빈곤	상층	빈곤	상층	빈곤	상층	빈곤	상층
호주	53.8	53.3	28.4	37.8	7.0	4.6	10.8	4.3
독일	70.3	62.3	18.0	26.8	1.6	2.6	10.2	8.3
영국	41.2	45.3	33.6	41.5	6.7	3.5	18.5	9.7
미국	67.9	60.7	19.9	27.0	4.8	3.1	7.4	9.2
아일랜드	37.0	54.9	29.3	36.6	4.3	2.0	29.3	6.5
노르웨이	56.1	71.8	28.7	24.9	11.0	1.9	4.3	1.4
스웨덴	44.7	53.3	41.7	45.2	8.7	0.5	4.9	1.0
뉴질랜드	39.6	56.1	41.6	36.6	10.6	4.2	8.2	3.1
캐나다	52.5	57.1	35.2	31.9	6.6	4.9	5.7	6.0
일본	38.7	64.5	20.0	22.7	17.3	8.2	24.0	4.5
프랑스	51.6	60.5	40.0	36.3	7.1	2.3	1.3	1.0
덴마크	47.4	62.9	33.7	33.7	9.5	2.0	9.5	1.5
스위스	35.0	46.7	42.5	47.9	7.5	2.4	15.0	3.0
핀란드	46.3	49.8	37.5	40.8	5.9	1.9	10.3	7.5
한국	37.6	45.8	35.7	44.4	14.1	7.2	12.5	2.6
평균	49.8	55.7	31.8	36.0	8.2	3.5	10.2	4.7

노인을 제외하고, 즉 65세 이상의 응답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비교한 것은 <표 3-6>과 같다. 노인을 제외하고 보면 우리나라 빈곤층과 상층 모두 비근로의 비율이 다른 국가들의 평균보다 낮다. 전반적으로 보아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수준은 다른 선진국가와 비교하여 그리 높지도 낮지도 않다고 볼 수 있다. 단, 빈곤층 중 노인의 비율이 높아서 전 빈곤층을 대상으로

로 본다면 다른 비교국가들의 평균보다 우리나라 빈곤층의 비근로 비율이 조금 높다.

<표 3-6> 국가별 근로시간 형태 비교: 노인 제외

(단위: %)

국가	30시간이상의 전일제 근무		30시간미만 파트타임근무		10시간미만근무 파트타임근무		비근로	
	빈곤	상층	빈곤	상층	빈곤	상층	빈곤	상층
호주	47.6	54.3	37.7	29.5	6.1	4.0	8.5	2.8
독일	75.7	65.5	19.6	29.5	1.9	2.7	2.8	2.3
영국	45.1	46.9	40.2	42.8	7.3	3.7	7.3	6.6
미국	76.1	65.4	19.1	26.2	2.4	2.9	2.4	5.5
아일랜드	41.2	55.7	33.8	37.4	4.4	1.7	20.6	5.1
노르웨이	57.3	72.4	29.3	25.6	10.7	1.5	2.7	0.5
스웨덴	46.3	52.9	43.8	45.5	10.0	0.5	0.0	1.0
뉴질랜드	41.7	57.7	50.0	36.6	4.8	3.7	3.6	2.0
캐나다	57.0	57.5	34.9	34.0	4.7	3.3	3.5	5.2
일본	58.1	67.7	22.6	22.9	9.7	7.3	9.7	2.1
프랑스	49.3	57.1	41.8	39.3	7.5	2.5	1.4	1.1
덴마크	50.3	62.9	35.7	33.5	9.1	2.0	4.9	1.5
스위스	42.0	46.0	50.0	50.7	4.0	2.7	4.0	0.7
핀란드	46.7	49.5	40.0	41.7	5.8	1.9	7.5	6.8
한국	38.2	46.2	40.5	44.5	16.0	6.9	5.3	2.4
평균	53.1	56.2	35.2	37.1	6.7	3.3	4.9	3.1

국가별 계층별 선호하는 근로시간과 급여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표 3-7>과 같다. 한국의 빈곤층은 오버타임 근무를 하고 더 많은 급여를 원한다는 비율이 45.5%로서 15개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상층의 경우 또한 31.5%로서 평균인 16.5%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 15개국 중 가장 높았다. 근무 시간만큼 일하고 급여도 그대로 받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빈곤층의 경우 평균인 54.0%보다 낮은 40.9%를 나타냈으며, 상층의 경우도 52.5%로 평균인 68.1%보다 낮았다. 우리나라 빈곤층 중 적게 일하고 적은 급여를 원한다는 응답은 15개국 평균 6.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3.6%를 나타냈다. 상층의 경우는 평균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적게 일하고 적은 급여를 원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단순히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의지가 낮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빈곤계층이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과 가구 내 여건 등을 고려해서 보다 신중히 해석해야 할 것이다.

빈곤계층 중에서 오버타임근무와 더 많은 급여를 원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나라는 독일(59.4%), 프랑스(50.8%)의 순이었으며, 핀란드를 제외한 사민주의 국가에 속하는 덴마크(25.6%), 노르웨이(33.3%), 스웨덴(36.4%)의 경우 평균인 40%의 비율보다 낮았다. 즉 일이 주는 금전적 보상에 관심이 낮았다. 반면 현재의 근무시간과 급여에 만족하는 빈곤계층의 비율이 높은 나라는 영국(74.2%), 덴마크(68.6%), 노르웨이(65.5%), 스웨덴(59.1%)의 순이었으며 핀란드 또한 55.2%로서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 영국을 제외한 사민주의 국가에서 현재의 근무 시간만큼 일하고 그 만큼의 급여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 빈곤층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7〉 국가별 선호하는 근로시간과 급여의 비교

(단위: %)

국가	오버타임근무 더 많은 급여		근무시간 만큼 일하고 그만큼 급여		적게 일하고 적은급여	
	빈곤층	상층	빈곤층	상층	빈곤층	상층
계층구분						
호주	35.4	19.5	55.6	66.1	9.1	14.4
독일	59.4	17.7	40.6	68.8	0.0	13.4
영국	25.8	17.3	74.2	70.3	0.0	12.4
미국	47.6	18.8	49.4	72.5	3.0	8.7
아일랜드*	45.0	13.2	55.0	71.7	0.0	15.1
노르웨이	33.3	8.2	65.5	75.5	1.2	16.3
스웨덴*	36.4	13.1	59.1	67.3	4.5	19.6
뉴질랜드	39.3	15.1	52.8	69.3	7.9	15.6
캐나다	35.7	16.3	55.4	68.9	8.9	14.8
일본	33.3	16.5	53.3	64.8	13.3	18.7
프랑스	50.8	22.1	41.5	66.4	7.7	11.5
덴마크	25.6	4.8	68.6	74.6	5.8	20.6
스위스*	40.7	2.8	55.6	74.5	3.7	22.7
핀란드*	44.8	10.6	55.2	67.1	0.0	22.4
한국	45.5	31.5	40.9	52.5	13.6	15.9
평균	40.0	16.5	54.0	68.1	6.0	15.5

*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의 경우 빈도수가 30미만이어서 분석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노인을 제외한 분석에서도 선호하는 근로시간과 급여의 형태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상층과 동일하게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급여를 원하거나 또는 적게 일하고 적은 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다.

〈표 3-8〉 국가별 선호하는 근로시간과 급여 비교: 65세 이상 노인제외

(단위: %)

국가	오버타임근무 더 많은 급여		근무시간 만큼 일하고 그만큼 급여		적게 일하고 적은급여	
	빈곤층	상층	빈곤층	상층	빈곤층	상층
계층구분						
호주	34.7	19.0	55.8	66.3	9.5	14.7
독일	59.4	17.7	40.6	69.6	-	12.7
영국	23.3	17.6	76.7	69.8	-	12.6
미국	48.8	19.0	48.8	72.0	2.5	9.0
아일랜드*	43.8	13.3	56.3	71.6	-	15.2
노르웨이	33.3	7.7	65.4	75.8	1.2	16.5
스웨덴*	38.1	13.1	57.1	67.3	4.8	19.6
뉴질랜드	43.6	15.1	48.7	68.9	7.7	16.0
캐나다	34.0	15.3	57.4	69.4	8.5	15.3
일본	36.8	18.3	52.6	64.6	10.5	17.1
프랑스	50.8	21.9	41.5	66.5	7.7	11.6
덴마크	28.2	4.3	66.7	74.6	5.1	21.1
스위스*	40.7	2.9	55.6	73.5	3.7	23.5
핀란드*	44.8	10.6	55.2	67.1	-	22.4
한국	54.9	31.8	29.4	52.1	15.7	16.1
평균	41.4	16.4	53.2	68.0	5.4	15.6

*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의 경우 빈도수가 30미만이어서 분석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3. 비근로의 원인과 주된 소득원천

전 계층 비근로의 원인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 3-9>와 같다. 연령을 64세 이하로 제한하여 정년으로 인한 비근로의 비율을 최소화 시켰다. 분석대상 국가 중 한국의 경우에만 기타의 사유로 인한 비근로가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비율 또한 21.7%나 되어, 다른 국가와의 비교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 계층에서 가족부양

(25.7%)이나 결혼(19.4%)으로 인한 비근로의 비율이 15개국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결혼의 경우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으로 인한 근로의 중단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9> 국가별 전체층 비근로의 원인 비교: 65세 이상 노인제외

(단위: %)

국가	전체계층									
	정년 은퇴	자발 적실 직	비자 발적 실직	장애 발생	회사 부도	해고	계약 종료	가족 부양	결혼	기타
호주	4.6	14.8	9.9	12.5	5.7	4.6	14.1	30.0	3.8	—
독일	8.0	6.0	4.8	17.3	10.8	22.5	9.6	19.3	1.6	—
영국	4.8	17.7	2.4	24.2	6.5	1.6	13.7	27.4	1.6	—
미국	2.5	10.0	3.0	24.0	11.5	7.0	12.0	27.5	2.5	—
아일랜드	1.9	8.0	3.1	14.2	7.4	1.2	11.1	48.1	4.9	—
노르웨이	0.0	9.6	1.1	56.4	4.3	6.4	14.9	7.4	0.0	—
스웨덴	2.3	11.4	6.8	24.2	7.6	17.4	16.7	9.1	4.5	—
뉴질랜드	1.3	21.5	4.7	8.1	5.4	1.3	17.4	37.6	2.7	—
캐나다	14.5	29.1	3.6	15.5	6.4	4.5	7.3	16.4	2.7	—
일본	12.8	6.4	0.0	14.9	2.1	0.0	2.1	19.1	42.6	—
프랑스	17.8	11.2	4.1	7.7	4.1	16.0	23.7	14.2	1.2	—
덴마크	6.2	18.1	2.8	34.5	5.6	13.6	11.3	7.9	0.0	—
스위스	2.7	11.6	4.5	22.3	3.6	11.6	9.8	27.7	6.3	—
핀란드	11.5	7.7	3.3	20.9	4.9	12.1	21.4	17.0	1.1	—
한국	6.6	1.0	2.0	9.5	7.6	2.3	4.3	25.7	19.4	21.7
평균	6.4	11.4	4.1	18.8	6.8	8.7	12.7	23.2	5.3	2.7

빈곤계층의 비근로의 원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3-10>과 같다. 한국의 경우 정년으로 인한 은퇴는 13.7%로서 15개국 평균인 3.2%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33.3%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빈곤계층의 자발적 실직은 없었으며, 비자발적 실직은 3.9%로서 평균정도의 수준이었고 장애발생은 19.6%로서 평균보다 낮았으며 회사부도로 인한 비근로는 15.7%로서 15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해고와 계약 종료로 인한 비근로는 각각 5.9%와 2.0%로서 평균보다 낮았으며, 가족부양

으로 인한 비근로의 비율 또한 9.8%로서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결혼으로 인한 비근로는 5.9%로서 15개국 평균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빈곤층의 주된 비근로 원인은 조기 은퇴-분석에서 65세 이상은 제외하였으므로 이 이하의 연령에서 응답된 은퇴는 조기 은퇴로 볼 수 있다. 장애발생, 그리고 결혼으로 모두 개인의 선택사항은 아니라고 하겠다.

〈표 3-10〉 국가별 빈곤계층 비근로의 원인 비교: 65세 이상 노인제외

(단위: %)

국가	빈곤계층									
	정년 은퇴	자별직 실직	비자 발적 실직	장애 발생	회사 부도	해고	계약 종료	가족 부양	결혼	기타
호주	4.2	7.3	9.4	16.7	8.3	7.3	11.5	27.1	8.3	—
독일	0.0	3.2	4.8	21.0	14.5	33.9	12.9	9.7	0.0	—
영국	0.0	12.2	0.0	34.1	9.8	2.4	9.8	29.3	2.4	—
미국	1.4	1.4	1.4	37.5	6.9	5.6	15.3	27.8	2.8	—
아일랜드	0.0	0.0	2.3	25.6	9.3	2.3	11.6	46.5	2.3	—
노르웨이	0.0	0.0	0.0	50.0	3.6	0.0	32.1	14.3	0.0	—
스웨덴	0.0	11.1	0.0	27.8	5.6	11.1	16.7	16.7	11.1	—
뉴질랜드	1.5	18.2	4.5	7.6	4.5	1.5	22.7	36.4	3.0	—
캐나다	9.4	12.5	3.1	18.8	9.4	6.3	15.6	25.0	0.0	—
일본	33.3	22.2	0.0	11.1	0.0	0.0	0.0	22.2	11.1	—
프랑스	5.8	0.0	3.8	13.5	5.8	19.2	30.8	17.3	3.8	—
덴마크	0.0	16.7	4.2	31.3	10.4	14.6	10.4	12.5	0.0	—
스위스	0.0	5.6	0.0	38.9	0.0	22.2	5.6	16.7	11.1	—
핀란드	0.0	12.0	4.0	14.0	6.0	4.0	48.0	12.0	0.0	—
한국	13.7	0.0	3.9	19.6	15.7	5.9	2.0	9.8	5.9	23.5
평균	3.2	7.3	3.8	23.0	8.3	9.5	17.2	22.4	3.5	1.7

주: 일본의 경우 빈도수가 작아서 해석에 주의를 요함.

국가별 전 계층 실직자의 주된 소득원천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3-11>과 같다. 한국의 경우 연금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6.8%로서 15개국 평균인 50.0%보다 턱없이 낮았으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실업급여라고 응답한 비율 또한 0.3%로서 15개국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배우자, 동거인 혹은 기타 가족원이라는 응답은 각각 39.8%와

39.6%로 15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대부분 실직자의 소득원천이 공적이전이 아닌 사적이전에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부조라고 응답한 비율은 4.2%로서 평균인 5.5%보다 낮았으며, 일시근로는 3.0%로서 프랑스의 3.8%에 이어서 두 번 째로 높은 비율이었다.

배우자와 동거인 혹은 기타 가족원에 의한 소득원천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78.9%)에 이어 일본(33.4%), 미국(30.1%)의 순서였으며, 반대로 사적이전이 가장 약한 나라는 덴마크(6.5%), 스웨덴(7.0%), 캐나다(12.2%)의 순서였다.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경우도 각각 16.0%를 차지하여 15개국 평균인 26.1% 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실직자들의 소득원천은 사적이전이 대부분이고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같은 공적이전은 매우 낮은 비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적이전에도 의존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근로도 마다할 수 없는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11〉 국가별 전 계층 실직자 소득원천 비교

(단위: %)

국가	전체계층						
	연금	실업급여	배우자/ 동거인	기타 가족원	공공부조	일시근로	기타
호주	58.3	5.8	20.4	1.0	3.2	0.5	10.7
독일	61.3	15.3	11.7	3.6	2.6	0.4	5.1
영국	60.2	9.6	14.6	1.9	7.5	-	6.2
미국	34.6	4.4	24.7	5.4	13.3	2.0	15.6
아일랜드	50.9	3.8	25.3	2.6	14.4	-	2.9
노르웨이	55.5	6.9	12.8	3.2	7.3	0.5	13.8
스웨덴	60.8	10.1	3.5	3.5	1.3	1.6	19.2
뉴질랜드	42.0	5.1	22.4	2.2	10.6	1.0	16.7
캐나다	73.3	2.2	9.7	2.5	1.8	2.2	8.3
일본	62.3	0.5	29.0	4.4	1.1	0.5	2.2
프랑스	49.5	10.5	16.6	2.9	2.2	3.8	14.4
덴마크	60.2	9.4	5.5	1.0	2.6	1.0	20.4
스위스	66.3	3.9	16.8	3.2	4.2	1.0	4.5
핀란드	53.4	12.0	7.1	8.9	6.8	1.3	10.5
한국	6.8	0.3	39.3	39.6	4.2	3.0	6.8
평균	50.0	6.8	18.4	7.7	5.5	1.3	10.3

빈곤계층 실직자의 소득원천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3-12>와 같다.

<표 3-12> 국가별 빈곤계층 실직자 소득원천 비교

(단위: %)

국가	빈곤계층						
	연금	실업급여	배우자/ 동거인	기타 가족원	공공부조	일시근로	기타
호주	69.8	9.5	8.3	0.0	6.3	0.0	6.0
독일	28.0	42.7	7.3	1.2	9.8	1.2	9.8
영국	45.8	17.7	5.2	3.1	19.8	0.0	8.3
미국	24.7	2.6	14.9	6.5	29.2	1.9	20.1
아일랜드	36.1	8.3	9.7	0.0	40.3	0.0	5.6
노르웨이	26.8	9.9	12.7	8.5	9.9	0.0	32.4
스웨덴	42.9	5.7	2.9	7.1	2.9	2.9	35.7
뉴질랜드	52.8	7.5	11.3	1.9	15.1	1.3	10.1
캐나다	60.0	1.5	12.3	1.5	6.2	3.1	15.4
일본	75.0	2.3	6.8	6.8	4.5	2.3	2.3
프랑스	22.8	17.7	20.3	3.8	5.1	5.1	25.3
덴마크	53.8	5.8	2.9	0.0	5.8	0.0	31.7
스위스	56.6	1.9	7.5	9.4	13.2	1.9	9.4
핀란드	40.7	19.5	1.8	3.5	13.3	2.7	18.6
한국	7.2	0.0	12.9	51.0	12.9	4.1	11.9
평균	42.0	9.6	9.5	8.9	13.2	1.7	15.1

한국의 경우 빈곤계층 중 연금이 주된 소득원천이라고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2%로 15개국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실업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한명도 없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녀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빈곤층 중 실직자는 다른 계층과 비교하여 사회보험으로부터의 공적이전소득이전을 기대하는 것은 더 어렵다. 배우자, 동거인 혹은 기타 가족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2.9%와 51.0%로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으며, 공공부조급여의 비율은 12.9%로서 15개국 평균인 13.2%보다 0.3%포인트 낮았다. 일시근로의 비율은 4.1%로 프랑스(5.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빈곤층은 대부분 그 주변의 가족들도 그리

넉넉한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적이전에 의존하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필요한 사적이전소득을 기대하기는 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 실직자들의 주요한 소득원천이 사적이전이라는 사실은 어려운 가족들 간에 부족한 소득을 쪼개어 나누는 것이라 짐작된다.

항목별로는 연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나라는 일본(75.0%), 호주(69.8%), 캐나다(60.0%)의 순서였으며, 실업급여의 경우 독일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핀란드(19.5%),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17.7%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배우자, 동거인 혹은 기타 가족원 등 사적이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는 63.9%인 한국에 이어 프랑스(24.1%), 미국(21.4%)이었고, 사민주의 국가 중 유일하게 노르웨이(21.2%)가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사적이전이 낮은 나라는 덴마크(2.9%), 핀란드(5.3%), 호주와 영국(8.3%)이었으며 스웨덴의 경우도 10.0%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공공부조의 비율이 높은 나라는 미국과 영국, 아일랜드가 각각 29.2%와 19.8%, 40.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반면 공공부조의 비율이 낮은 나라는 스웨덴 2.9%, 일본 4.5%, 프랑스 5.1%, 덴마크 5.8%의 순이었다.

제3절 국가별 직업 및 근로에 대한 태도 비교: 군집분석결과

1. 직업선택의 기준

가. 직업선택의 기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직업 선택에서의 개인적 중요도에 관한 8문항에 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가지 요인으로 묶여짐을 확인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3-13>과 같다. 첫 번째 요인은 직업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에 중요성을 두는 것으로 ‘내적보상’으로 요인 이름을 부여하였다. 이 요인은 근로동기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주로 내적 동기나 요인으로 구분되었던 것들과

유사하다. 두 번째 요인은 직업으로 인한 고소득, 자기발전과 직업안정성에 중요성을 두는 것으로 직업이 주는 외적 보상에 해당하므로 ‘외적보상’으로 요인 이름을 부여하였다. 이 요인은 근로동기에 대한 연구에서 주로 외적 요인으로 구분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 요인은 근로시간 결정의 자율성과 독립적인 근로환경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율성’으로 요인 이름을 부여하였다. 국가별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업 흥미성’의 경우 국가별로 추출되는 요인이 달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⁴⁾.

페이(2007)의 연구에서도 근로지향성의 개념을 일가치의 다각적인 측면이라고 규정하고 일 의미에 관한 9가지 항목을 군집분석을 통해 직업의 사회적 가치에 의미를 두는 지원에 대한 지향(assistance orientation)과 직업이 가지는 도구적 의미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소득, 승진 등의 외부적 보상에 가치를 두는 도구적 지향(instrumental orientation), 그리고 일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일로 부터의 분리(detached worker)라는 3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도 페이의 이러한 군집분석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표 3-13〉 직업 선택의 기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변수명	요인명	요인		
		1	2	3
다른 사람을 도움	내적보상	0.880	0.079	0.169
사회적 유용성		0.879	0.131	0.086
고소득	외적보상	-0.113	0.794	0.187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		0.178	0.723	0.109
직업안정성		0.173	0.671	-0.142
근로시간 결정가능성	자율성	0.004	0.058	0.837
일의 독립성		0.260	0.047	0.709

주: 주성분분석법, 회전: Varimax

4) 국가별 요인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여 ‘외적보상’, ‘내적보상’, ‘자율성’의 3가지 요인으로 묶이지 않는 나라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나, 한국의 경우는 ‘외적보상’이 하나의 요인, 내적보상과 자율성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서 나머지 14개국과 다른 결과를 보였지만, 한국이 주된 연구대상 국가이므로 제외시키지 않았으며, 이는 원자료의 특성에 기인한 한계임을 밝혀 둔다.

나. 국가별 직업선택의 기준에 대한 기술분석

직업선택의 기준을 나타내는 3가지 요인에 대한 기술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3-14>와 같다. 외적보상의 15개국 평균 값은 12.1이며, 내적보상은 7.9, 자율성은 7.6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외적보상은 13.3, 내적보상 8.3, 자율성은 7.7로서 직업선택에 있어서 소득이나 승진과 같은 외적보상을 15개국 중 가장 중요시 하였으며 직업의 사회적 의미나 가치와 같은 내적보상 또한 15개국 평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반면 직업선택에 있어서 근로시간과 일의 자율성과 같은 자율성에 대한 중요도는 평균 수준을 보여주었다.

외적보상을 중요시하는 나라로는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12.8), 캐나다와 아일랜드(12.5) 등의 나라가 있었으며, 내적보상을 중요시 하는 나라 또한 미국(8.6), 아일랜드(8.5), 그 다음으로 한국, 캐나다(8.2) 순으로 외적보상을 중요시 하는 나라들이 대체로 내적보상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선택에서 자율성은 나라별 편차가 작은 편이며, 유독 일본(6.6)만이 직업선택에 있어서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집단문화가 발달한 일본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계층별로 보자면, 한국의 경우 중위소득 150%이상의 상층이 중위소득 50%미만의 빈곤층보다 외적보상을 0.4점 더 중요시 하였다. 한국, 아일랜드, 스위스,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빈곤층이 상층보다 외적보상을 중요시하였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빈곤층이 상층보다 외적보상을 각각 0.8점과 0.7점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빈곤층이 상층보다 내적보상을 중요시하였다. 한국도 빈곤층의 직업선택에서 내적보상에 대한 의미부여 수준이 평균보다 높았다. 이는 빈곤층이 상층에 비해서 직업선택에서 사회적 가치와 명분 등과 같은 내적보상에 대한 욕구가 강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자율성에 대한 중요성 부여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층이 빈곤층보다 자율성에 대한 열망이 컸으며, 덴마크와 한국 그리고 독일, 노르웨이 등

의 나라에서 상층과 빈곤층의 자율성을 중요시 하는 값의 차이가 각각 0.8 점과 0.7점으로 상층이 빈곤층에 비해서 일에서의 자율성을 크게 중요시 하였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빈곤층이 상층과 비교하여 일의 자율성에 대한 의무부여가 더 약하였다.

〈표 3-14〉 국가별 직업선택의 기준 평균값 비교

국가	외적 보상	내적 보상	자율성	외적보상		내부보상		자율성	
				빈곤	상층	빈곤	상층	빈곤	상층
호주	12.3	8.0	7.6	12.5	12.3	8.1	8.0	7.4	7.6
독일	12.4	7.8	7.7	12.3	12.4	7.8	7.7	7.2	7.9
영국	12.2	7.7	7.4	12.3	12.2	7.8	7.5	7.2	7.5
미국	12.8	8.6	7.6	13.2	12.4	8.7	8.6	7.6	7.7
아일랜드	12.5	8.5	7.6	12.4	12.7	8.4	8.5	7.7	7.7
노르웨이	11.6	7.4	7.7	11.6	11.5	7.5	7.2	7.3	8.0
스웨덴	11.7	7.4	7.9	12.1	11.7	7.6	7.2	7.7	8.2
뉴질랜드	12.2	8.0	7.8	12.2	12.2	8.4	7.9	7.8	7.9
캐나다	12.5	8.2	7.8	12.8	12.4	8.1	8.3	7.7	7.9
일본	11.0	7.6	6.6	11.2	10.5	7.5	7.8	6.7	6.3
프랑스	12.4	7.5	7.4	12.3	12.0	7.9	7.2	7.5	7.3
덴마크	10.8	7.7	8.0	10.8	10.8	7.9	7.4	7.5	8.3
스위스	11.6	8.0	8.1	11.3	11.6	8.3	7.9	8.2	8.3
핀란드	11.7	7.1	7.8	11.8	11.5	7.2	7.0	7.7	7.9
한국	13.3	8.3	7.7	13.0	13.4	8.3	8.4	7.0	7.8
평균	12.1	7.9	7.6	12.1	12.0	8.0	7.8	7.5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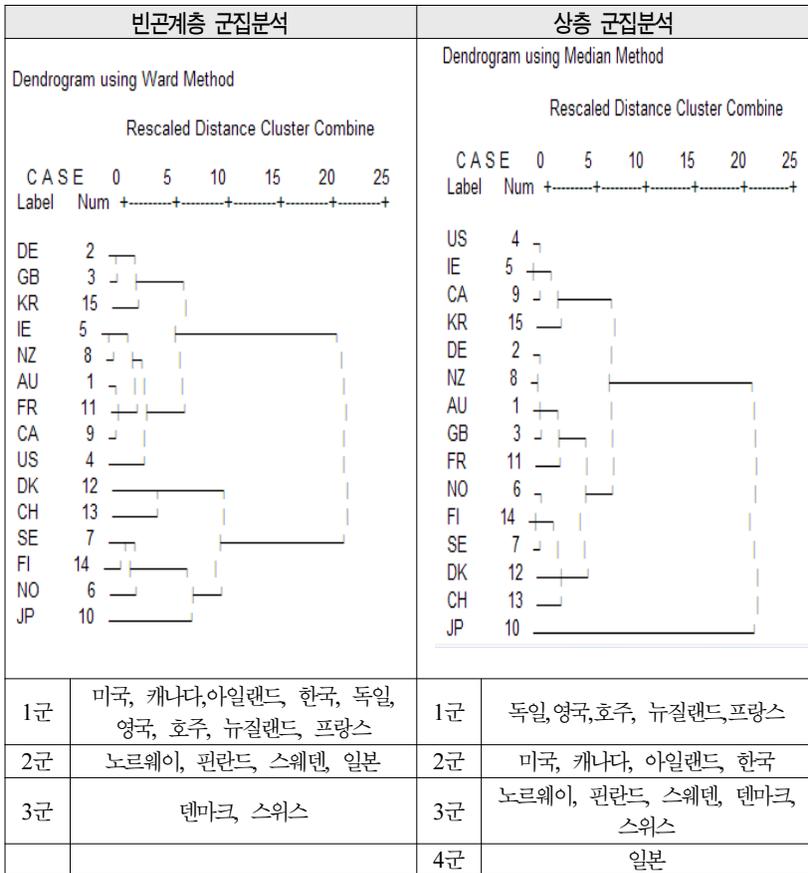
다. 직업선택의 기준 군집분석결과

직업선택의 기준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는 [그림 3-1] 과 같다. 빈곤층의 경우,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한국,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가 <군집 1>을,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일본이 <군집 2>를 이루었으며, 덴마크와 스위스가 <군집 3>을 이루었다. 상층의 경우,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가 <군집 1>을 이루었고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한국이 <군집 2>,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와 스위스가 <군집 3>을 이루

있으며, 일본이 <군집 4>를 이루었다.

한국은 빈곤계층과 상층이 유사한 국가들과 군집을 이루었지만 대체로 군집분석의 결과가 기존의 복지국가체제 구분과는 유관성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단, 빈곤계층의 군집들 중 1군과 상층의 1, 2군이 자유주의 국가군에 가깝고, 빈곤계층의 군집들 중 2, 3군, 상층의 3군이 시민주의 국가군에 가깝다고 하겠다.

[그림 3-1] 직업선택의 기준 군집분석 결과



<표 3-15>는 군집별 직업선택의 기준이 되는 요인의 평균과 분산분석 결과이다. 빈곤층은 상층보다 평균적으로 직업선택에서 외적보상과 내적보상을 중요시 하였으며, 자율성은 상층이 중요시하게 생각하였다. 대체로 자유주의 국가군과 한국이 직업선택에서의 외적보상과 내적보상을 중요시하며, 사민주의 국가군의 경우 외적보상과 내적보상은 중요시 하지 않았고 일의 자율성에 가치를 둔다.

빈곤계층의 분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군의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한국,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의 빈곤계층의 경우 직업선택에서 고소득과 직업안정성 그리고 발전기회를 중요시하는 외부보상과 직업이 주는 사회적 유용성과 이타성을 강조하는 내적보상을 전체 국가군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일의 성격과 근무시간의 자율성은 중간수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2군의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일본의 빈곤계층의 경우 외부보상, 내부보상, 자율성 모두를 다른 국가군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3군인 덴마크와 스위스의 빈곤계층은 1군 보다 덜 중시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빈곤층의 3군은 다른 군집보다 직업의 자율성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3-15> 군집별 직업선택의 기준 평균 및 분산분석 결과

빈곤 계층	외적보상	내적 보상	자율성	상층	외부보상	내적 보상	자율성
군집1	12.56	8.17	7.44	군집1	12.20	7.65	7.62
군집2	11.70	7.44	7.34	군집2	12.70	8.45	7.78
군집3	11.07	8.08	7.86	군집3	11.42	7.33	8.14
군집4				군집4	10.50	7.84	6.33
평균	12.13	7.96	7.47	평균	11.96	7.77	7.75
F 사후 검증	17.43*** 1>2,3	9.66** 1>2	1.52	F 사후 검증	16.83***	11.02**	24.01***

***: $p < .001$ **: $p < .01$ *: $p < .05$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되었으며, 사후분석은 쉐페검정을 실시함.

상층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군에 속한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의 상층의 경우 외적보상은 전체 국가 평균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내적보상은 평균수준, 자율성은 중요시하지 않았다.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한국의 상층의 경우 외부보상과 내부보상 모두 국가군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자율성은 평균 수준이었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의 상층의 경우 외적보상과 내적보상에 중요성을 두지 않았으며, 자율성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였다. 일본의 상층의 경우 내적보상은 평균수준이며, 외적보상과 자율성은 둘 다 국가군들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4군이 일본 한 국가뿐이어서 사후검정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2. 근로몰입

가. 국가별 근로몰입에 대한 기술분석

근로몰입은 일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즐거움의 원천으로 인식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국가별 근로몰입 평균값은 아래의 <표 3-16>과 같다. 15개국 근로몰입의 평균값은 7.0이며 한국은 6.5로 핀란드 6.1 다음으로 낮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일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높고, 반면 일 자체의 즐거움을 인정하는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몰입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7.7), 덴마크(7.6), 스위스(7.4), 스웨덴(7.2) 등으로 순이었으며 스위스를 제외한 국가는 시민주의 국가들이었다. 모든 나라에서 상층이 빈곤층에 비해서 근로몰입이 높았으며, 계층별 근로몰입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나라는 프랑스와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등의 국가였다. 평균적으로 근로몰입이 높은 나라가 계층별 근로몰입의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뉴질랜드와 함께 빈곤층과 상층의 근로몰입의 차이가 0.5점으로 가장 낮았다. 즉 한국의 경우 근로에 관해서 가지는 가치와 의미부여

는 계층별로 차이가 미비하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즐거워서 일을 하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 정도도 비교 국가들 중 매우 높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국가별 근로몰입 평균값 비교

국가	근로몰입평균	근로몰입	
		빈곤	상층
호주	6.8	6.4	7.3
독일	6.9	6.6	7.4
영국	6.6	6.1	7.1
미국	6.9	6.6	7.3
아일랜드	6.8	6.4	7.2
노르웨이	7.7	7.5	8.3
스웨덴	7.2	6.8	8.0
뉴질랜드	7.0	7.0	7.5
캐나다	7.0	6.6	7.2
일본	6.7	6.3	7.3
프랑스	6.8	6.0	7.4
덴마크	7.6	7.2	8.4
스위스	7.4	6.8	8.0
핀란드	6.1	5.9	6.8
한국	6.5	6.2	6.7
평균	7.0	6.5	7.5

나. 근로몰입 군집분석 결과

근로몰입에 관해 군집 분석 결과는 [그림 3-2] 와 같다. 빈곤층의 경우 독일, 캐나다, 미국, 호주, 아일랜드, 일본, 스웨덴, 스위스, 뉴질랜드가 <군집 1>을 이루었고, 영국, 프랑스, 한국, 핀란드가 <군집 2>를, 그리고 노르웨이 덴마크가 <군집 3>을 이루었다. 상층의 경우 1군에는 독일, 캐나다, 미국,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이 속했으며,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등 스위스를 제외한 사민주의 국가가 2군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란드와 한국이 <군집 3>을 이루었다. 근로몰입의 군집분석은 복지국가 유형과는 매우 무관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전까지 유

사성을 거론한 적이 없는 국가들과 함께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3-2] 근로몰입 군집분석결과

빈곤계층 군집분석		상층계층 군집분석	
Dendrogram using Ward Method Rescaled Distance Cluster Combine		Dendrogram using Ward Method Rescaled Distance Cluster Combine	
CASE 0 5 10 15 20 25	CASE 0 5 10 15 20 25	CASE 0 5 10 15 20 25	CASE 0 5 10 15 20 25
Label Num	Label Num	Label Num	Label Num
DE 2	DE 2	DE 2	DE 2
CA 9	FR 11	FR 11	FR 11
US 4	NZ 8	NZ 8	NZ 8
AU 1	US 4	US 4	US 4
IE 5	JP 10	JP 10	JP 10
JP 10	AU 1	AU 1	AU 1
SE 7	IE 5	IE 5	IE 5
CH 13	CA 9	CA 9	CA 9
NZ 8	GB 3	GB 3	GB 3
GB 3	FI 14	FI 14	FI 14
FR 11	KR 15	KR 15	KR 15
KR 15	SE 7	SE 7	SE 7
FI 14	CH 13	CH 13	CH 13
NO 6	NO 6	NO 6	NO 6
DK 12	DK 12	DK 12	DK 12
1군 독일, 캐나다, 미국, 호주, 아일랜드, 일본, 스웨덴, 스위스, 뉴질랜드	독일, 캐나다, 미국, 호주,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2군 영국, 프랑스, 한국,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3군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한국		

근로몰입의 국가군별 평균값과 분산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3-17>과 같다. 빈곤층의 경우 3군에 속한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근로몰입이 가장 높았으며, 2군인 영국, 프랑스, 한국, 핀란드가 중간수준, 그리고 독일, 캐나다, 미국, 호주,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뉴질랜드 등 스웨덴을 제외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국가들이 대체로 근로몰입이 가장 낮았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상층의 경우는 2군에 속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와 같은 스위스를 제외한 사민주의 국가들의 근로몰입이 가장 높았으며, 1군에 속한 독일, 캐나다, 미국, 호주,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등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국가의 상층의 근로몰입은 중

간수준, 마지막으로 3군인 핀란드와 한국의 상층의 근로몰입정도는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대체로 시민주의 국가의 빈곤층과 상층의 근로몰입이 높았으며,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국가 빈곤층의 근로몰입이 가장 낮았다. 한국의 경우 빈곤층은 중간수준의 근로몰입을 보였지만, 상층의 경우는 가장 낮은 근로몰입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로몰입은 낮았고 시민주의 국가들이 비교적 근로몰입이 높았다. 추정컨대 취약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으로 스스로 일하지 않고서는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사회에서는 일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이러한 국가에서는 일해야 하기는 하지만 일이 즐겁지는 않은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표 3-17〉 군집별 근로몰입 평균 및 분산분석 결과

빈곤계층	근로몰입	상층	근로몰입
군집1	6.58	군집1	7.30
군집2	6.05	군집2	8.16
군집3	7.38	군집3	6.74
전체평균	6.54	전체평균	7.45
F	30.02***	F	83.70***
사후검증	3>1>2	사후검증	2>1>3

***: p<.001

3. 조직몰입과 직업만족도

가. 국가별 조직몰입과 직업만족도에 대한 기술분석

조직몰입의 15개국 평균은 10.2점이며, 한국은 10.3점으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조직몰입도를 보였다. 조직몰입이 높은 나라로는 스위스(11.1), 미국(11.0), 아일랜드(10.9)와 평생고용과 같은 기업문화가 발달한 일본(10.8) 순이었으며, 조직몰입이 낮은 나라는 프랑스(8.3)와 스웨덴(9.1), 핀란드(9.3)등으로 프랑스를 제외한 시민주의 국가의 조직몰입도가 상대적으로 낮

았다. 앞의 직업선택의 기준에서 자율성이 강조된 것과 대비된다.

〈표 3-18〉 국가별 조직몰입 및 직업만족도 평균 비교

국가	조직몰입	직업만족도	조직몰입		직업만족도	
			빈곤	상층	빈곤	상층
호주	10.1	5.2	10.1	10.2	5.1	5.2
독일	10.2	5.4	9.6	10.6	5.2	5.7
영국	10.1	5.3	9.4	10.4	5.2	5.4
미국	11.0	5.5	10.5	11.5	5.3	5.6
아일랜드 ⁵⁾	10.9	5.6	11.9	10.8	5.6	5.5
노르웨이	10.1	5.3	9.3	10.6	5.1	5.4
스웨덴	9.1	5.2	8.5	9.7	4.9	5.3
뉴질랜드	10.3	5.2	10.2	10.5	5.1	5.3
캐나다	10.3	5.3	10.2	10.7	5.1	5.4
일본	10.8	5.0	10.4	11.4	4.9	5.3
프랑스	8.3	5.0	8.3	8.9	4.8	5.2
덴마크	10.2	5.5	10.0	10.7	5.4	5.7
스위스	11.1	5.7	10.7	11.4	5.5	5.9
핀란드	9.3	5.3	9.3	9.6	5.0	5.4
한국	10.3	4.7	10.1	10.6	4.4	4.9
평균	10.2	5.3	9.9	10.5	5.1	5.4

모든 나라에서 상층의 조직몰입도가 빈곤층보다 높았으며 계층별 조직몰입도의 큰 차이를 보이는 나라는 노르웨이(1.3), 스웨덴(1.2), 독일, 영국, 미국(1.0) 등이었으며, 계층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나라는 호주(0.1), 핀란드, 뉴질랜드(0.3)이었다. 한국의 경우는 계층별로 0.5점 정도의 차이를 보였지만 상층과 빈곤층 모두 평균 수준 이상의 조직몰입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의 직업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직업만족도의 평균은 5.3점이며, 한국은 4.7점으로 15개국 중 가장 낮은 직업만족도를 보였다. 일본과 프랑스가 5.0으로 뒤를 이었다. 직업만족도가 높은 나라는 스위스(5.7), 아일랜드(5.6), 덴마크(5.5), 미국(5.5) 등이며, 스위스, 아일랜드, 미국의 경우 조직몰입과 직업만족도 둘 다 높은 나라들이다. 모든 국가에서 상층의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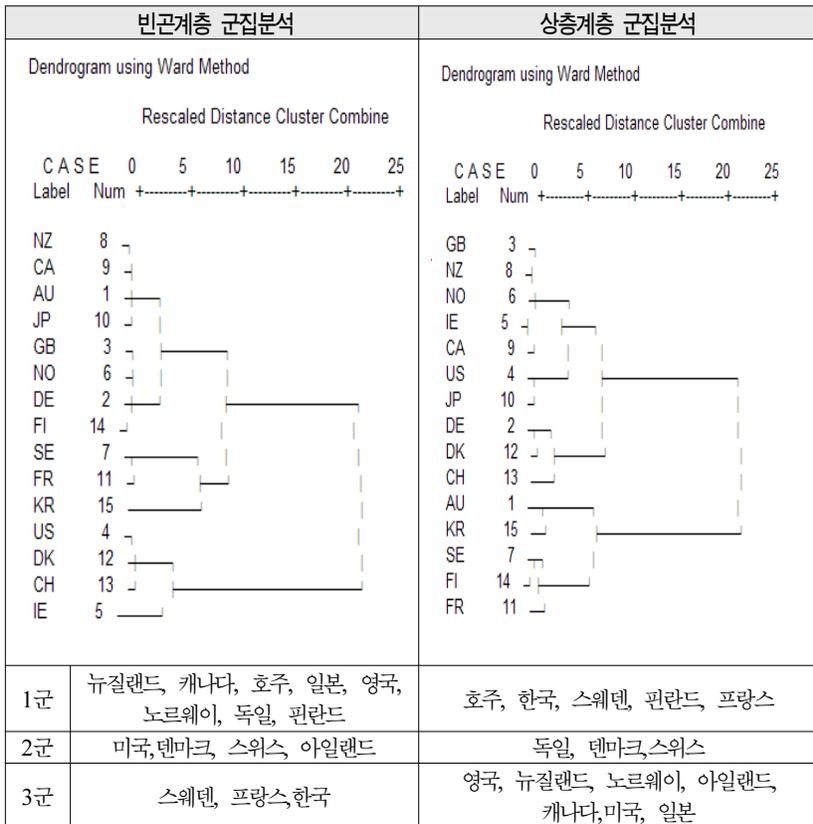
5) 아일랜드 직장을 가진 빈곤층의 빈도가 30미만으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만족도가 빈곤층보다 높았으며 계층별로 직업만족도의 차이가 큰 나라는 독일과 한국으로 0.5점 차이가 났다. 한국은 직업만족도가 낮은 나라인데 빈곤층의 직업만족도는 더욱 낮아 상층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는 나라이기도 하다.

나. 조직몰입과 직업만족도 군집분석 결과

조직몰입과 직업만족도에 관해 군집분석 결과는 [그림 3-3] 과 같다.

[그림 3-3] 조직몰입과 직업만족도 군집분석결과



빈곤층의 경우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일본, 영국, 노르웨이, 독일, 핀란드가 1군에 그리고 미국, 덴마크, 스위스, 아일랜드가 2군, 한국과 스웨덴, 프랑스가 3군에 속하였다. 상층의 경우 한국을 포함하여 호주,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가 1군에, 독일, 덴마크, 스위스가 2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캐나다, 미국, 일본이 3군에 속하였다.

분산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3-19>와 같다. 빈곤층의 조직몰입은 2군에 속한 미국, 덴마크, 스위스, 아일랜드가 가장 높았으며, 한국을 포함한 스웨덴, 프랑스의 나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직업만족의 경우도 2군이 1, 3군의 국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국 빈곤층의 경우 조직몰입과 직업만족이 가장 낮은 군에 속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다. 상층의 경우는 2군과 3군의 조직몰입이 한국이 포함된 1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직업만족도의 경우는 2군이 1, 3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국의 상층은 조직몰입과 직업만족 둘 다 가장 낮은 군에 속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3-19> 군집별 조직몰입과 직업만족도 평균 및 분산분석 결과

빈곤계층	조직몰입	직업만족	상층	조직몰입	직업만족
군집1	9.80	5.07	군집1	9.79	5.21
군집2	10.77	5.46	군집2	10.91	5.76
군집3	8.95	4.66	군집3	10.84	5.41
전체평균	9.89	5.09	전체평균	10.51	5.41
F	6.74**	24.25***	F	7.32***	16.02***
사후검증	2>3	2>1,3	사후검증	2,3>1	2>3,1

***: $p < .001$ **: $p < .01$ *: $p < .05$

주: 1)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되었으며, 사후분석은 웨페검정을 실시함.

2) 단, 빈곤계층의 직업만족의 경우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아 Games-Howell 검정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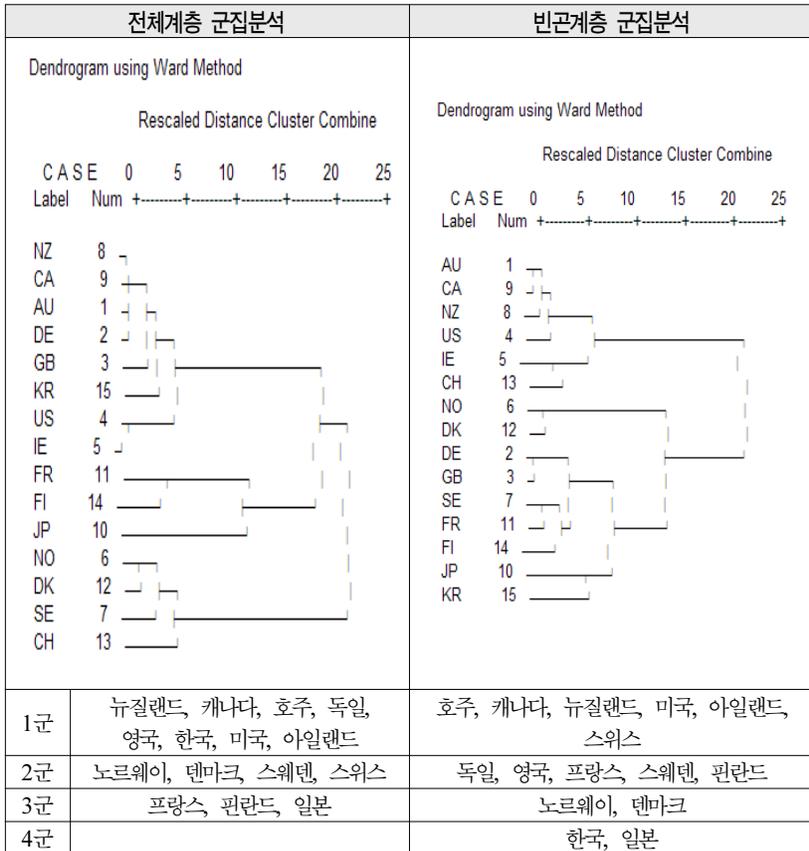
4. 근로지향성 전체의 군집분석 결과

직업선택의 기준, 근로몰입, 조직몰입과 직업만족도의 모든 기준변수를 투입하여 군집분석한 결과는 [그림 3-4] 와 같다. 전 계층과 빈곤계층으로

나눠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 계층을 군집분석한 결과는 후의 이항 로짓분석과 다항로짓분석에서 국가요인의 기준변수로 투입하였다.

전 계층 군집분석의 경우 한국을 포함하여,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미국, 아일랜드 등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국가가 1군에 속했으며,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시민주의 국가와 스위스가 2군에 포함되었으며, 프랑스 핀란드, 일본이 3군을 이루었다.

[그림 3-4] 근지향성 군집분석결과



빈곤층의 경우 1군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스위스 등 대체로 자유주의 국가 성향을 가진 국가들이 속하였고 2군에는 독일, 영국,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가 군집을 이루었으며, 3군은 노르웨이와 덴마크, 그리고 4군은 한국과 일본이 속했다. 시민주의 국가의 빈곤층은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양분되는 경향을 보였다.

빈곤계층의 근로지향성 분산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3-20>과 같다. 직업선택의 기준에서 외부보상의 경우 군집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내적보상의 경우는 <1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스위스>가 <2군: 독일, 영국,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자율성의 경우는 1군이 <4군: 한국, 일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근로몰입의 경우, 3군에 속한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국가가 나머지 국가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조직몰입의 경우 1군의 국가가 2군의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직업만족도의 경우는 군집1에 속한 국가들이 군집4인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1군에 속한 나라의 빈곤계층이 직업선택에서 내적보상과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리고 조직몰입과 직업만족도가 높았다. 한국이 속한 군집 4의 경우 일본과 함께 외적보상은 평균 수준이었고 내적보상, 자율성, 근로몰입과 직업만족도는 평균보다 낮았으며 조직몰입만이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3-20> 빈곤계층 근로지향성 평균 및 분산분석 결과

빈곤계층	외부보상	내부보상	자율성	근로몰입	조직몰입	직업만족
군집1	12.40	8.34	7.72	6.60	10.58	5.28
군집2	12.18	7.66	7.45	6.27	9.00	4.99
군집3	11.21	7.66	7.40	7.38	9.67	5.27
군집4	12.13	7.90	6.85	6.22	10.24	4.61
전체평균	12.13	7.96	7.47	6.54	9.89	5.09
F	1.93	5.84*	6.16*	8.26*	6.72*	4.84*
사후검증	n.s	1>2	1>4	3>1,2,4	1>2	1>4

*: $p < .05$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를 국가 간 비교한 결과를 기초로 종합하여 보면 근로에서 자율성에 대한 의미부여는 낮고 근로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아 당연 직업만족도 낮다. 즉 강요된 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한 듯하다. 반면 직업선택에서 내적보상이나 조직몰입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일에 대한 의미부여의 욕구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제4절 근로에 대한 관련 요인의 영향 분석

근로여부 및 구직활동 여부 그리고 실업자들이 직업갯기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선호하는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관련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도 병행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분석은 종속변수의 여러 범주 중에서 기준범주를 정하고 다른 범주를 기준범주와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종속변수의 결과가 기준범주에 비하여 다른 범주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원태연, 2004; 김미숙·배화옥 2007 재인용).

1. 변수의 설명

가. 종속변수

국가 군집별, 계층별 근로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근로여부를 종속변수로 분석을 실시한다. 주된 경제활동상태를 묻는 질문 중, 전일제 근로 및 파트타임 근무 그리고 가족종사자라고 응답한 경우를 근로로 구분하였고, 그 외의 응답인 실업, 학생, 직업훈련, 은퇴, 가사일, 장애와 기타의 이유를 비근로로 구분하였다.

국가군집별 계층별 실업자의 구직활동여부와 직업희망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구직활동여부와 직업희망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ISSP 질문 중, 현재 일하지 않는 자 중에서 현재 직장을 찾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할 경우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아니요’라고 응답한 경우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직업희망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실업자 중에서 현재 또는 미래에 직장을 갖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할 경우 직업희망으로 ‘아니요’라고 응답할 경우를 직업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국가군집별 선호하는 근로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호하는 근로시간 유형을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근로시간에 따라 ‘30시간 이상의 전일제 근무’, ‘30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근무’, ‘비근로’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나. 설명변수

근로여부 및 근로희망여부 그리고 선호근로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의 변수를 설명변수로 투입하였다. 먼저 근로지향성이 근로여부와 근로희망여부 및 선호근로시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근로지향성을 측정하는 개념인 직업선택의 기준과 근로몰입을 투입하였다. 하지만 조직몰입과 직업만족도의 경우 임금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변수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인적자본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년수를, 가구요인으로는 배우자 유무와 가구원수를, 그리고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기평가 점수를, 계층요인으로는 빈곤여부를, 국가요인으로는 군집분석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기평가 점수의 경우 매우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로 관련 문항을 역코딩 한 후 총합으로 사용하였다. 국가요인에서 군집 더미변수의 경우 한국이 속한 군집1을 기준집단으로 군집2와 군집3의 더미변수를 만들어 투입하였다. 군집에서 사용된 분석은 전체계층의 근로지향성을 분석한 결과로서 1군은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한국,

국가요인 등 대부분의 변수들이 근로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지향성과 관련하여 직업선택에서 자율성을 강조할수록, 외적보상에 대한 중요도가 낮고 근로몰입이 높을수록 근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요인과 관련해서는 여성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수준은 낮을수록 근로를 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배우자가 없을수록, 가구원수가 작을수록 근로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 3-22〉 근로여부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항목		B	S.E.	Exp(B)
근로지향성	자율성	0.122***	0.019	1.130
	외부적보상	-0.071***	0.016	0.931
	내부적보상	0.007	0.020	1.007
	근로몰입	0.102***	0.014	1.108
인적자본요인	성별	-0.908***	0.055	0.403
	연령	-0.072***	0.002	0.930
	교육년수	-0.035***	0.002	0.966
가구요인	배우자유무	-0.263***	0.066	0.769
	가구원수	-0.046*	0.023	0.955
심리적요인	자기평가	0.057***	0.008	1.059
계층요인	빈곤여부	1.161***	0.075	3.193
국가요인	군집2(1)	-0.451***	0.074	0.637
	군집3(1)	-0.730***	0.083	0.482
상수		3.163***	0.362	23.646
Chi-square= 2425.327(df=13), p=.000, -2loglikelihood=8652.996				

***: p<.001

배우자 유무와 가구원수는 근로여부에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첫째 배우자가 있거나 가구원수가 많다는 것은 부양에 대한 책임과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여 근로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한편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가구원수가 적다는 것 또한 본인 이외의 가구 내의 다른 경제활동참여자가 없어 소득원이 감소할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근로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근로여부가 후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요인으로 자기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근

로를 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높았으며 빈곤할수록 근로를 할 확률이 높았다. 국가요인으로 기준 국가군인 한국을 포함한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미국, 아일랜드에 비해서 군집2(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의 국가들과 군집3(프랑스, 핀란드, 일본)의 국가의 국민들이 근로를 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즉, 한국을 포함한 군집1의 국민들이 다른 국가군에 비해서 근로를 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을 제외한 분석에서도 유사하다.

〈표 3-23〉 근로여부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 노인제외

항목		B	S.E.	Exp(B)
근로지향성	외적보상	-0.042*	0.018	0.959
	내적보상	0.003	0.022	1.003
	자율성	0.106***	0.021	1.112
	근로몰입	0.116***	0.016	1.123
인적자본요인	성별	-1.041***	0.063	0.353
	연령	-0.029***	0.003	0.972
	교육년수	-0.030***	0.002	0.971
가구요인	배우자유무	0.027	0.074	1.027
	가구원수	-0.039	0.024	0.962
심리적요인	자기평가	0.059***	0.009	1.061
계층요인	빈곤여부	-1.319***	0.081	0.267
국가요인	군집2(1)	-0.593***	0.088	0.553
	군집3(1)	-0.811***	0.095	0.444
상수		2.364***	0.398	10.631
Chi-square= 1257.087(df=13), p=.000, -2loglikelihood=7077.106				

***: p<.001 *: p<.05

국가적 특성을 통제하고도 개인적 요인들, 개인의 인식은 근로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회에서 개인이 근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근로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는 인구학적 요인과 가구요인을 통제 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개인 요인을 통제하고도 국가 환경이 국민의 근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국가 내에서 그 사회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태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가 근로의 촉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근로희망 결정요인 분석 결과

아래의 <표 3-24>와 <표 3-26>은 실직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혹은 미래에 직업 갖기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구직활동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로지향성 관련 변수 중에서는 외적보상이었으며, 직업선택 시 외적보상에 대한 열망이 강할수록 구직활동을 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3-24> 구직활동 여부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결과

항목		B	S.E.	Exp(B)
근로지향성	자율성	0.020	0.041	1.020
	외부적보상	0.060 •	0.036	1.062
	내부적보상	-0.033	0.045	0.967
	근로몰입	0.038	0.031	1.039
인적자본요인	성별	-0.634***	0.128	0.531
	연령	-0.073***	0.004	0.930
	교육년수	-0.025***	0.003	0.975
가구요인	배우자 유무	0.252 •	0.138	1.287
	가구원수	-0.060	0.048	0.941
심리적요인	자기평가	0.030 •	0.017	1.031
계층요인	빈곤여부	-0.348**	0.129	0.706
국가요인	군집2	0.099	0.177	1.104
	군집3	-0.114	0.184	0.893
상수		1.624*	0.760	5.073
Chi-square= 485.961(df=13), p=.000, -2loglikelihood=1926.931				

***: p<.001 **: p<.01 *: p<.05 •: p<.1

인적자본요인은 여성일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가구요인 중 배우자가 있을수록, 자기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구직활동을 할 확률이 높았고 이 또한 .1의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빈곤하지 않을수록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높았다. 현재의 구직활동 여부는 실업자가 근로를 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취직을 할 인적자본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변동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할수록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근로를 기피한 다거나, 근로를 할 의사가 없다고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구직활동 여부에 외적보상을 제외한 근로몰입이나 내적보상, 자율성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국가군의 유의미한 영향도 없었다.

위의 분석 역시 노인을 제외하고 재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구직활동 역시 노인의 경우 그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비노인과 달라 구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국가군의 영향은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고 외부적 보상, 인적자본요인과 자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국가별 영향보다는 개인의 영향이 더 크고 인적자본의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구직활동 여부의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노인제외

항목		B	S.E.	Exp(B)
근로지향성	외부적보상	0.068 •	0.038	1.071
	내부적보상	-0.034	0.047	0.967
	자율성	0.018	0.042	1.018
	근로몰입	0.031	0.032	1.031
인적자본요인	성별	-0.614***	0.135	0.541
	연령	-0.049***	0.006	0.952
	교육년수	-0.022***	0.003	0.978
가구요인	배우자 유무	0.415**	0.147	1.514
	가구원수	-0.073	0.048	0.930
심리적요인	자기평가	0.032 •	0.018	1.033
계층요인	빈곤여부	0.219	0.136	1.245
국가요인	군집2	0.090	0.188	1.094
	군집3	-0.129	0.193	0.879
상수		0.318	0.794	1.374

Chi-square= 180.476(df=13), p=.000, -2loglikelihood=1665.760

***: p<.001 **: p<.01 *: p<.05 •: p<.1

직업 갖기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근로지향성 중에서는 직업선택에서 자율성을 중요시할수록, 외적보상을 중요시할수록 직업 갖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근로몰입이 강할수록 직업 갖기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인적자본요인으로는 여성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 갖기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가 있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기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직업 갖기를 희망할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빈곤하지 않을수록 직업 갖기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아져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서 근로에 대한 흥미와 가치부여는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군집2: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의 국민이 군집1의 국민에 비해서 직업 갖기를 희망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3-26〉 직업갖기 희망여부의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항목	B	S.E.	Exp(B)	
근로지향성	자율성	0.086*	0.042	1.089
	외부적보상	0.068 •	0.036	1.071
	내부적보상	-0.006	0.046	0.994
	근로몰입	0.147***	0.032	1.159
인적자본요인	성별	-0.374*	0.129	0.688
	연령	-0.122**	0.006	0.885
	교육년수	0.019 •	0.010	1.019
가구요인	유배우	0.689***	0.148	1.991
	가구원수	0.122*	0.059	1.129
심리적요인	자기평가	0.032 •	0.019	1.033
계층요인	빈곤여부	-0.888***	0.141	0.411
국가요인	군집2(1)	0.305 •	0.164	1.357
	군집3(1)	0.276	0.209	1.317
상수	Constant	3.428***	0.814	30.820

Chi-square=1336.871 (df=13), p=.000, -2loglikelihood=1813.647

***: p<.001 **: p<.01 *: p<.05 •: p<.1

노인을 제외한 분석에서는 국가군의 영향은 무의미하였고 비빈곤, 인적자본 중 성과 연령, 그리고 가족 구성에서 유배우, 높은 근로몰입이 직업희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근로여부와는

달리 근로에 대한 기대와 희망, 의지에서는 국가의 특성이나 개인의 주관적 태도보다 개인의 인적자본이나 가구요인과 같은 보다 객관적인 요인들의 영향이 좀 더 유의미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여부라는 객관적 사실과 근로에 대한 의지라는 주관적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른다. 이에 대한 해석은 추후 연구의 과제로 미루어두어야 할 것 같다. 한편으로는 객관적 사실로 구현된 근로여부가 각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나 태도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반면 의지는 도덕적 판단의 영향으로 그 차이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짐작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여부는 객관적 조건의 결과일 수 있어서 객관적 조건의 영향이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호관계, 공선성을 갖게 되어 나타나는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되기도 한다.

〈표 3-27〉 직업갯기 희망여부의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노인제외

항목		B	S.E.	Exp(B)
근로지향성	외부적보상	0.055	0.046	1.056
	내부적보상	-0.001	0.061	0.999
	자율성	0.052	0.054	1.054
	근로몰입	0.137**	0.040	1.147
인적자본요인	성별	-0.467**	0.174	0.627
	연령	-0.126***	0.009	0.882
	교육년수	0.006	0.009	1.006
가구요인	유배우	0.583**	0.195	1.792
	가구원수	0.060	0.067	1.062
심리적요인	자기평가	0.039 •	0.023	1.040
계층요인	빈곤여부	0.782***	0.194	2.185
국가요인	군집2(1)	0.340	0.214	1.405
	군집3(1)	0.370	0.257	1.448
상수	Constant	3.366***	1.058	28.952

Chi-square=480.678 (df=13), p=.000, -2loglikelihood=1073.289

***: p<.001 **: p<.01 *: p<.05 •: p<.1

완벽하지는 않으나 결론적으로는 인적자본이나 가구요인 외에도 개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일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가 근로 및 근로에

대한 기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영향은 가구요인 및 개인요인, 그리고 국가적 차이를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미한 것들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을 제외한 경우에도 유사하였다.

4. 선호하는 근로시간 결정요인 분석결과

선호하는 근로시간의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호하는 근무시간이 3범주 ‘30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 ‘30시간 미만의 파트타임근무’ 그리고 ‘비근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준범주는 ‘비근로’이다. 두 종류의 회귀계수 값을 아래의 <표 3-28>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회귀계수는 ‘30시간 전일제근무/ 비근로’, 두 번째 회귀계수는 ‘30시간미만 파트타임근무/ 비근로’의 비교값이 된다.

30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 대 비근로의 다항로지스틱분석 결과를 보면 자율성과 내적보상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외적보상에 대한 중요도가 높을수록, 근로몰입이 강할수록,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자기평가가 긍정적일수록, 빈곤하지 않을수록 비근로와 비교해서 30시간 이상의 전일제 근무를 선호할 확률이 높았다. 군집2와 군집3에 속한 나라들이 군집1과 비교할 때 30시간이상의 전일제 근무를 선호할 확률이 낮았다. 즉, 한국을 포함한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미국, 아일랜드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또는 프랑스, 핀란드, 일본의 국민보다 30시간 이상의 전일제 근무를 선호할 확률이 높았다.

30시간 미만 파트타임 근무 대 비근로의 다항로지스틱분석 결과를 보면 직업선택에서의 자율성을 중요시할수록, 외적보상을 중요시할수록 그리고 근로몰입이 강할수록, 비근로 대비 30시간 미만 파트타임근무를 선호할 확률이 높았다.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근로보다 30시간 미만 파트타임 근무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빈곤하지 않을수록 비근로보다 30시간 미만의 파트타임을 선호하였으며, 군집2와 3과 비교

할 때 군집1에 속할수록 비근로보다는 30시간 미만의 파트타임을 선호할 확률이 높다.

〈표 3-28〉 선호하는 근로시간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결과

	30시간이상전일제근무/ 비근로		30시간미만파트타임근무/ 비근로	
	B	Exp(B)	B	Exp(B)
Intercept	3.772***		4.107***	
자율성	0.032	1.032	0.204***	1.227
외부적보상	0.173***	1.189	0.053 •	1.055
내부적보상	-0.009	0.991	0.003	1.003
근로몰입	0.318***	1.375	0.232***	1.262
성별	-1.108***	0.330	0.262**	1.300
연령	-0.100***	0.905	-0.085***	0.919
교육년수	-0.017***	0.983	-0.010**	0.990
배우자유무	0.202 •	1.223	-0.098	0.907
가구원수	0.032 •	1.033	0.145	1.156
자기평가	0.065***	1.067	0.001	1.001
빈곤여부	-0.356**	0.701	-0.314**	0.730
군집2	-0.318**	0.728	-0.541***	0.582
군집3	-1.272***	0.280	-1.225***	0.294

Chi-square=2420.341(df=26) p=.000, -2loglikelihood=12811.142,

***: p<.001 **: p<.01 *: p<.05 •: p<.1

특이한 것은 근로몰입은 비근로 대비 근로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흥미, 즉 일 자체를 즐거운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호하는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보면, 역시 국가의 특성이 개인이나 가구요인을 통제하고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 요인에서 근로에 대한 태도와 자기에 대한 평가 등의 영향도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5절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시론적 해석

국가별 근로지향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이 의문을 푸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요인이라는 미시적 특성과 국가요인이라는 거시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국가별 계층별 근로지향성의 차이에 관해 본 연구에서 그 원인을 충분히 규명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국가가 15개국인데, 근로지향성에 차이를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지식, 또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서도 밝혔듯이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연구는 단순히 탐색적 수준의 작업이라 하겠다. 국가별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고난도의 분석을 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국가별로 빈곤계층의 근로지향성에 차이를 가져온 정책요인은 무엇인지를 시론적 수준에서 논하여보고자 한다.

빈곤계층의 근로지향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변수로 일인당 GDP와 노동시장참가율, 그리고 일인당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비용과 현금급여의 수준을 언급할 수 있다. 먼저 일인당 GDP의 경우 그 나라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결핍의 수준이 낮아서 빈곤층의 근로지향성에 차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참가율의 경우, 일인당 GDP와 같이 그 나라의 경제규모와 경제적 상황에 대한 통제변수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높은 나라에서 임금노동을 하는 빈곤계층은 상대적으로 조직몰입이나 직업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인당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비용은 빈곤층의 근로지향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변수로 간주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투입되는 국가비용이 클수록 빈곤층의 근로지향성이 건전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보장지출인 현금급여 비율의 경우, 현금지급의 비율이 높을수록 복지의존으로 인해 빈곤층의 근로지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아래의 <표 3-29>는 근로지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별 관련 변수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일인당 GDP의 경우 한국이 20484.7 달러로 15개국 중 가장 낮으며, 높은 순서로는 노르웨이(40412.1), 미국(38053.8), 아일랜드(34643.3), 스위스(33752.6)의 순이었다. 노동시장참가율의 경우 한국은 69.3%로 15개국 중 가장 낮았으며, 높은 국가로는 스위스(83.1), 노르웨이(81.0), 덴마크(80.9%), 스웨덴(80.7) 등 스위스를 제외한 사민주의 국가의 노동시장참가율이 높았다. 1인당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투입 비용 또한 한국이 15개국 중 가장 낮았으며 높은 국가로는 덴마크(584.6), 스웨덴(422.2), 독일(329.8), 노르웨이(294.5)의 순이었다.

<표 3-29> 국가별 근로지향성 관련변수 평균값

(단위: %)

국가	일인당 GDP	노동시장 참가율	적극적노동 시장정책	GDP 중 현금급여비율
호주	31084.4	75.9	114.6	8.5
독일	28863.9	73.1	329.8	16.0
영국	30155.6	77.7	145.4	10.2
미국	38053.8	78.4	145.4	8.1
아일랜드	34643.3	69.9	251.8	8.1
노르웨이	40412.1	81.0	294.5	11.9
스웨덴	30285.3	80.7	422.2	14.6
뉴질랜드	23045.7	78.5	97.6	10.1
캐나다	31656.6	79.3	109.9	7.1
일본	27959.5	78.2	78.8	9.9
프랑스	27963.3	69.6	288.2	17.2
덴마크	31230.2	80.9	584.6	13.7
스위스	33752.6	83.1	226.3	11.5
핀란드	28477.0	75.4	250.6	15.2
한국	20484.7	69.3	30.6	2.4
평균	30537.9	76.7	224.7	11.0

- 주: 1) 일인당GDP: per head US, current prices, current PPPs.
 2) 노동참가율: total labour force % of population
 3) 적극적노동시장정책: per head, at current prices and current PPPs, in US dollars
 4) GDP 중 현금급여 비율: In percentage of Gross Domestic Product
 5) 2001~2005년 평균치 사용

자료: OECD STAT.

현금급여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는 한국(2.4)이었으며, 다음으로 캐나다(7.1)와 미국, 아일랜드(8.1)의 순이었다. 현금급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17.2), 독일(16) 핀란드(15.2)이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도 그 뒤를 이었으며, 보수주의와 사민주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현금급여 비율이 높았다.

앞서 분석한 빈곤계층의 근로지향성 군집별 관련변수의 평균 및 분산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3-30>과 같다. <군집 1>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스위스이며, <군집 2>는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군집 3>은 노르웨이와 덴마크, <군집 4>는 일본과 한국이다. 한국이 속한 4군의 경우 일인당 GDP와 노동시장 참가율, 1인당 ALMP 비용, 그리고 GDP 대비 현금급여 비율 모두 군집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일인당 GDP의 군집별 평균은 .1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사후검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군집은 없었다. 노동시장 참가율은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속한 3군이 가장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1인당 ALMP 비용의 경우 또한 3군이 가장 높았으며 1군과 4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앞서 보았던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근로지향성을 다시 살펴보면, 외적보상은 군집 중 가장 낮았으며, 내적보상 또한 낮은 편이었으며 자율성의 경우는 평균 수준이었다. 그러나 근로몰입은 군집 중 가장 높았고 조직몰입은 평균보다 약간 낮았으며, 반면 직업만족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ALMP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빈곤층의 근로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3-30〉 군집별 근로지향성 관련 변수 평균 및 분산분석 결과

빈곤계층	일인당GDP	노동시장참가율	일인당 ALMP지출	GDP 중 현금급여비율
군집1	32039.4	77.5	157.6	8.9
군집2	29149.0	75.3	287.2	14.6
군집3	35821.2	80.9	439.6	12.8
군집4	24222.1	73.7	54.7	6.1
전체평균	30537.9	76.7	224.7	11.0
F	2.88 •	1.19	6.79 •	7.45*
사후검증		n.s	3>1,4	2>1,4

***: p<.001 **: p<.01 *: p<.05 •: 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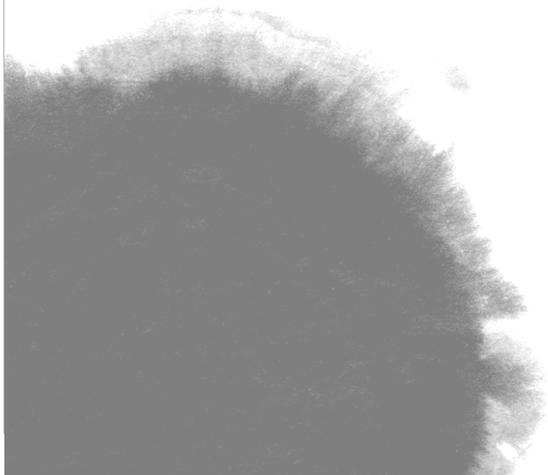
현금급여 비율의 경우 군집2의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의 국가가 군집1과 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군집2의 근로지향성의 특성을 다시 살펴보면, 외적보상과 내적보상, 그리고 자율성의 경우 평균정도 수준으로 중요시 간주하였으며, 근로몰입의 정도는 군집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조직몰입의 경우 1군의 국가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직업만족의 경우 평균보다 약간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다. 현금급여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근로몰입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조직몰입과 직업만족이 낮다는 것은 현금급여가 빈곤계층의 근로지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군집 4는 근로몰입이나 만족도는 낮고 자율성도 낮는데 빈곤층의 근로나 근로의지는 낮은 편이 아니었다. 적극적 노동시장에 대한 투자와 현금급여가 낮은 상황에서 빈곤층은 악조건 속에서 생계를 위하여 암묵적으로 강요된 불행한 근로를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노르웨이나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의 복지선진국에서는 자율성과 근로몰입이 높아 스스로 일에 대하여 즐거움을 두고 일을 생활의 일부로 통째로 할 수 있는 이상적 근로에 가까울지 모른다. 대부분의 자유주의 국가군에서는 외적 보상과 함께 내적 보상에 대한 의미부여가 강하다. 외적 보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내적 보상으로 보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의심하게 된다. 이 국가들에서는 조직몰입도 높아서 빈곤층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이로부터 외적 보상을 보장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앞으로 근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형성하고 근로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다른 나라들의 경험과 분석결과를 참조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04

우라과 빈곤층의 일에 대한 태도와 관련 요인



제4장 우리나라 빈곤층의 일에 대한 태도와 관련 요인

본 장에서는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근로에 영향을 주는지, 만약 심리사회적 특성이 근로에 영향을 준다면 심리사회적 특성의 근원은 무엇 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핵심적 문제의식은 과연 사회심리적 태도가 빈곤을 형성한다는 관념이 타당한가? 사회심리적 태도가 빈곤의 결과는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 근로가 매개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앞서 국가 간 비교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빈곤층은 일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동기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빈곤층에게 근로가 즐거운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가 간 차이를 통제하고도 근로에 대하여 빈곤층의 인구학적 요인 외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태도가 영향을 주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성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와 심리사회적 특성 자체에 대한 파악으로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실태와 근로에 대한 동기, 그리고 근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심리사회적 요인의 실태와 관계를 기술하였다. 이후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배경이자 근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의 경험, 특히 어릴 적 빈곤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각 요인의 빈곤층 근로에 대한 영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빈곤층 근로에 대한 각 요인의 영향을 회귀분석하였다.

제1절 자료 및 분석방법

1. 자료의 설명

우리나라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성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복지패널자료에는 기본적으로 가족 구성과 소득을 조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 실태 및 근로의지를 추론할 수 있는 변수, 그리고 우울과 자존감과 같은 심리사회적 특성과 과거 어릴 적 경험이 포함되어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기에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복지패널의 자료는 빈곤의 과거 이력이 조사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어 과거 이력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영향 분석이 가능하다.

조사대상자의 과거 이력을 확인하고자 2007 조사대상자 중 과거 이력이 입력된 데이터와 가구 단위 및 가구주 정보가 상세하게 조사된 첫 해(2006)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두 개 연도의 자료가 혼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지만 과거 이력은 조사 연도에 따라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전반적으로는 2006년 기준의 자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가구 단위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가구이력이나 심리적 변수들이 주로 가구주(가구주가 응답자가 아닌 경우 차선으로 배우자) 중심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 점을 반영하여 가구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자료 중 표본 가중치가 안정적인 자료에 한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빈곤층의 일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분산분석(One-ANOVA)을 사용하여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 세

개 집단의 평균 비교를 실시하였다. 사후 분석이 필요할 경우 쉐페(scheffe) 검증을 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은 거의 모든 근로실태 및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에 적용하였다.

근로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고유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근로여부에 대한 요인들의 영향을 로짓분석하였으며 현재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과거 어릴 적 경험과 같은 빈곤경험의 결과라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재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제 요인의 영향을 회귀분석하였다.

3. 표본의 특성

조사대상 가구는 총 6,490가구로 가구의 특성은 아래 <표 4-1>과 같다. 전국 대도시, 광역시, 중소도시, 군 및 도농 복합지역의 5대 권역 모두의 가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분포를 보면 서울 21.2%, 광역시 25.0%, 시 44.7%, 군 8.1%, 도농복합군 1.0%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은 남성이 81.2%, 여성이 18.8%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월등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나이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3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25.3%, 30세 미만이 3.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혼인상태는 유배우 가구주가 7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별한 경우가 12.1%, 미혼인 경우가 7.7%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9년(중학교 졸업)에 해당되는 비율이 34.0%, 14년(전문대학 졸업)은 22.5%, 무학인 경우가 21.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소득계층으로 구분하면 빈곤 가구는 20.2%, 중산층은 53.4%, 상층은 26.4%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빈곤층은 중위소득 50%이하,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150%, 상층은 중위소득의 150% 초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빈곤층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어서 중산층과 상층은 과연 빈곤층의 특성이 다른 계층과 구별되는 고유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집단 구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4-1〉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단위: %)

유형	내용	백분율
지역	서울	21.2
	광역시	25.0
	시	44.7
	군	8.1
	도농복합군	1.0
	합계	100.0
가구주의 성별	남성	81.2
	여성	18.8
	합계	100.0
가구주의 연령	30세 미만	3.8
	30~40	23.2
	40~50	25.3
	50~60	16.7
	60세 이상	31.1
	전체	100.0
가구주의 혼인상태	비해당	0.0
	유배우	72.7
	사별	12.1
	이혼	6.0
	별거	1.4
	미혼	7.7
	합계	100.0
가구주의 교육년수	무학	21.4
	초졸	11.1
	중졸	34.0
	고졸	7.0
	전문대졸	22.5
	대학교졸	3.7
	대학원졸	0.4
	합계	100.0
소득계층	빈곤	20.2
	중산층	53.4
	상층	26.4
	전체	100.0

계층별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빈곤층 가구주는 남성 57.9%, 여성 42.1%, 중산층 가구주는 남성 84.5%, 여성 15.5%, 상층 가구주는 남성 92.3%, 여성 7.7%로 나타났다. 역시 빈곤층에서 여성가구주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나이를 보면 빈곤층은 60세 이상이 6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세 미만은 0.8%로 나타났다. 중산층의 경우는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세 미만은 4.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상층의 경우는 60세 이상이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세 미만은 3.8%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집단에서 60세 이상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30세 미만은 모든 집단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빈곤층에 나이가 많은 가구주 비율이 높은 것은 분명하다.

〈표 4-2〉 계층별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

(단위: %)

유형		내용	백분율
성별	빈곤층	남	57.9
		여	42.1
	중산층	남	84.5
		여	15.5
	상층	남	92.3
		여	7.7
나이	빈곤층	30세 미만	0.8
		30~40	5.5
		40~50	14.0
		50~60	10.8
		60세 이상	68.8
	중산층	30세 미만	4.6
		30~40	27.0
		40~50	27.3
		50~60	16.1
		60세 이상	24.9
	상층	30세 미만	3.8
		30~40	23.2
		40~50	25.3
		50~60	16.7
		60세 이상	31.1

제2절 빈곤층의 근로관련 일반 실태

1. 계층별 근로상태

가구주의 근로능력을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전체적으로 근로가능한 가구주의 비율이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능력 없음이 3.2%로 매우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빈곤층 가구의 가구주는 근로가능 비율이 52.7%이고, 단순근로가능이 18.3%, 근로미약자가 18.9%, 근로능력 없음이 9.5%로 나타났다. 한편, 중산층의 가구주는 근로가능 비율이 9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층 가구주의 경우도 근로가능 비율이 96.8%로 대부분이 근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집단별로 가구주의 근로능력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계층별 가구주의 근로능력 정도

						(단위: %)
소득계층	근로가능	단순근로가능	근로미약	근로능력없음	전체	χ^2
빈곤층	52.7	18.3	18.9	10.1	100.0	1316.085***
중산층	90.6	4.0	3.5	1.9	100.0	
상층	96.8	1.4	1.1	0.7	100.0	
전체	84.6	6.2	6.0	3.2	100.0	

***: $p < .001$

가구주의 근로무능력 사유를 살펴보면 빈곤층은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이 44.9%, 질병 또는 부상이 37%로 나타났으며 중산층과 상층은 동일하게 질병 또는 부상(64.1%/ 41.7%),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21.9%/ 33.3%)순으로 나타나 계층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빈곤계층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근로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근로가능 연령에서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운 가구주가 많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표 4-4〉 계층별 가구주의 근로무능력 사유

(단위: %)

소득계층	중증장애	질병 또는 부상	노령으로인한 심신무능력	전체	χ^2
빈곤층	18.1	37.0	44.9	100.0	13.838*
중산층	14.1	64.1	21.9	100.0	
상층	25.0	41.7	33.3	100.0	

*: $p < .05$

전체 가구의 가구주 경제활동 상태는 취업자가 75.2%, 실업과 비경제활동을 포함하여 미취업자가 2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따라 살펴보면, 가구주의 취업비율이 빈곤층 가구에서는 36.7%, 중산층 가구에서는 81.2%, 상층 가구에서는 92.3%로 저소득층 가구의 취업 가구주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가구주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빈곤 가구보다는 비빈곤 가구에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빈곤층의 경우 일용직 임금근로자가 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산층의 경우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층도 중산층과 마찬가지로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층별 가구주 종사상태는 일반적 통념과 같이 빈곤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하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의 비중이 높았다.

〈표 4-5〉 계층별 종사상태

(단위: %)

	상용직 임금 근로자	임시직 임금 근로자	일용직 임금 근로자	자활 또는 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전체	χ^2
빈곤층	3.9	3.1	8.9	1.3	1.7	17.0	0.8	7.2	56.1	100.0	2099.962***
중산층	42.8	7.1	10.0	0.3	2.5	18.1	0.4	3.3	15.5	100.0	
상층	64.9	3.8	1.5	0.1	9.5	12.0	0.5	0.8	6.9	100.0	
전체	40.8	5.4	7.5	0.5	4.2	16.3	0.5	3.4	21.4	100.0	

***: $p < .001$

계층에 따른 비경제활동의 사유를 살펴보면 빈곤층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42.0%는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무능력이 27.0%로 나타

나 대부분 외부 환경적 요인보다는 가구주 개인의 내적 요인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층 가구주의 상당 비율이 노인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노인 가구주의 근로의사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중산층의 비경제활동 사유는 근로의사 없음이 46.3%, 근로무능력이 20.5%로 빈곤층과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층의 경우도 근로의사 없음이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무능력이 14.3%로 나타나 모든 계층에서 동일한 순으로 확인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경제활동 사유는 외부 환경 요인보다는 가구주 개인의 내적 요인이 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4-6〉 계층별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

소득계층	근로 무능력	학업	가사	양육	간병	구직활동 포기	근로의사 없음	기타	전체	χ^2
빈곤층	27.0	0.3	11.3	0.6	1.1	15.5	42.0	2.3	100.0	35.647*
중산층	20.5	0.6	9.6	0.6	1.5	17.8	46.3	3.2	100.0	
상층	14.3	1.7	7.6	0.0	0.0	12.6	63.9	0.0	100.0	
전체	23.4	0.5	10.3	0.5	1.2	16.2	45.5	2.5	100.0	

*: p<.05

계층에 따른 근로유형을 살펴본 결과 각 계층에서 모두 전일제 근무 비율이 시간제 근무 비율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차이를 보자면 전일제 근무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상층 집단으로 전체 집단에서 96.9%가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빈곤층은 83.7%가 전일제 근무로 상층이나 중산층보다 그 비율이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계층별 근로 유형

(단위: %)

소득계층	시간제 근무	전일제 근무	전체	χ^2
빈곤층	16.3	83.7	100.0	76.223***
중산층	7.8	92.2	100.0	
상층	3.1	96.9	100.0	

***: $p < .001$

직장을 사임하게 된 사유가 계층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표 4-8>과 같이 나타났다. 빈곤층은 이사로 인한 거리감 증폭(47.4%),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17.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산층은 직장의 파산, 휴업으로 인하여(85.3%), 일자리가 적어서(65.0%), 혹은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54.2%) 순으로 나타났다. 상층은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41.6%), 자기사업을 하려고(32.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빈곤층은 일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아 일을 중단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으나 상층은 보다 나은 조건으로의 이동이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직장사임이 많아서 대조된다. 빈곤층은 가구의 여건도 좋지 않아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원이 많거나 또는 근로의 비용이 높은 것을 감당하기 어려워하여 일터로의 이동거리가 멀 경우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례들은 실제 인터뷰과정에서도 자주 확인된다.

〈표 4-8〉 계층별 직장 사임 사유

(단위: %)

구분	빈곤층	중산층	상층	전체	χ^2
일자리(직장)나 사업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정리해고로	0.0	85.3	14.7	100.0	76.744***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0.0	60.0	40.0	100.0	
정년퇴직	0.0	50.0	50.0	100.0	
계약기간이 끝나서	16.7	50.0	33.3	100.0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7.3	75.6	17.1	100.0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17.5	65	17.5	100.0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9.5	81.0	9.5	100.0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12.5	71.9	15.6	100.0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0.0	76.5	23.5	100.0	
자기(가족)사업을 새로 하려고	8.0	60.0	32.0	100.0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0.0	0.0	100.0	100.0	
회사나 우리 집의 이사로 거리가 멀어져서	47.4	47.4	5.2	100.0	
학업, 군 입대 등의 이유로	20	80	0.0	100.0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4.2	54.2	41.6	100.0	
기타	15.4	84.6	0.0	100.0	
전체	10.7	69.1	20.2	100.0	

***: $p < .001$

계층에 따른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빈곤층의 경우 42.3%가 구직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51.1%는 구직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절반 수준 이상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산층의 경우는 51.4%가 구직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39.9%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층의 경우는 6.3%만이 구직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의외였다. 이는 상층 중 구직활동 여부에 응답할 대상의 연령 구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즉, 상층에서 현재 취업 중이지 않은 사람들은 노인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4-9〉 계층별 구직활동

(단위: %)

구분	빈곤층	중산층	상층	전체	χ^2
구직활동 합	42.3	51.4	6.3	100.0	10.397**
구직활동 안함	51.1	39.9	90.0	100.0	
전체	49.7	41.7	8.6	100.0	

** : $p < .01$

계층에 따른 구직의 장애요인을 분석한 결과, 나이로 인한 어려움은 빈곤층, 중산층, 상층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차별로 인한 어려움은 중산층, 빈곤층, 상층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중산층이 상층에 비하여 성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모로 인한 두려움은 중산층, 빈곤층, 상층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빈곤층, 중산층이 상층에 비해 더 많이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한 것이 확인되었다. 저학력, 기술부족의 어려움은 빈곤층, 중산층, 상층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술부족의 어려움은 사후검증 결과 빈곤층, 중산층이 상층에 비해 더욱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부족, 높은 기대로 인한 어려움은 중산층, 빈곤층, 상층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강, 신용불량자 경험으로 인한 어려움은 빈곤층, 중산층, 상층 순으로 나타났다. 가사일, 양육, 간병으로 인한 어려움은 중산층, 빈곤층, 상층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반대, 일자리부족의 어려움, 정보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빈곤층, 중산층, 상층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외 열악한 근로환경, 저임금으로 인한 어려움은 중산층, 빈곤층, 상층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정고용으로 인한 어려움은 빈곤층, 중산층, 상층의 순으로 나타났고 사후검증 결과 빈곤층, 중산층이 상층에 비해 더욱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학력, 기술부족, 건강, 일자리부족, 정보부족, 저임금 등(다른 계층보다 2점이상 높은 것들임)에서 빈곤층의 구직 어려움이 다른 계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좀 더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미루어보아 빈곤층은 과거의 결과인 인적자본의 문제와 그 결과인 기회와 최종 산물인 임금의 문제로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이유들은 매우 견고한 것들이고 쉽게 개선하기도 어려운 것이어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구직 상 어려움이 지속될 때, 개인적인 기대의 좌절이 따를 것으로 추정된다.

〈표 4-10〉 계층별 구직 장애요인

구분	소득계층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나이	빈곤층	3.8	1.4	1.905*	
	중산층	3.7	1.4		
	상층	3.1	1.6		
	전체	3.7	1.4		
성차별	빈곤층 ¹⁾	1.6	0.8	5.114**	2>3
	중산층 ²⁾	1.7	0.9		
	상층 ³⁾	1.0	0.6		
	전체	1.6	0.8		
외모	빈곤층 ¹⁾	1.6	0.8	3.670**	1,2>3
	중산층 ²⁾	1.6	0.7		
	상층 ³⁾	1.0	0.6		
	전체	1.5	0.7		
저학력	빈곤층	2.1	1.2	0.738*	
	중산층	1.9	1.1		
	상층	1.7	1.4		
	전체	2.0	1.1		
기술부족	빈곤층 ¹⁾	2.7	1.4	7.653**	1,2>3
	중산층 ²⁾	2.5	1.3		
	상층 ³⁾	1.2	0.8		
	전체	2.5	1.4		
경력부족	빈곤층 ¹⁾	2.4	1.3	6.325**	1,2>3
	중산층 ²⁾	2.5	1.4		
	상층 ³⁾	1.2	0.8		
	전체	2.4	1.4		
높은 기대	빈곤층	2.2	1.2	0.676	
	중산층	2.3	1.2		
	상층	1.8	1.6		
	전체	2.2	1.2		
건강	빈곤층	2.5	1.5	2.762	
	중산층	2.2	1.4		
	상층	1.5	1.3		
	전체	2.3	1.5		
신용불량자	빈곤층	1.4	1.1	2.182*	
	중산층	1.4	0.9		
	상층	0.8	0.4		
	전체	1.4	1.0		

〈표 4-10〉 계속

구분	소득계층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가사일	빈곤층	1.1	0.6	3.436*	
	중산층	1.4	0.8		
	상층	1.0	0.5		
	전체	1.3	0.8		
양육	빈곤층	1.2	0.8	1.428*	
	중산층	1.3	0.8		
	상층	1.0	0.5		
	전체	1.2	0.8		
간병	빈곤층	1.1	0.4	1.339*	
	중산층	1.2	0.6		
	상층	1.0	0.6		
	전체	1.1	0.5		
가족반대	빈곤층	1.1	0.5	0.499	
	중산층	1.1	0.3		
	상층	1.0	0.5		
	전체	1.1	0.4		
일자리부족	빈곤층	3.9	1.3	3.167*	
	중산층	3.4	1.4		
	상층	3.2	1.7		
	전체	3.6	1.4		
정보부족	빈곤층 ¹⁾	3.4	1.2	6.389**	1,2>3
	중산층 ²⁾	3.2	1.3		
	상층 ³⁾	2.1	1.6		
	전체	3.2	1.3		
열악한 근로환경	빈곤층	2.5	1.2	1.402*	
	중산층	2.6	1.3		
	상층	2.0	1.6		
	전체	2.5	1.3		
저임금	빈곤층	2.6	1.4	0.931*	
	중산층	2.3	1.4		
	상층	2.3	1.9		
	전체	2.7	1.4		
불안정고용	빈곤층 ¹⁾	2.5	1.5	6.349**	1,2>3
	중산층 ²⁾	2.4	1.3		
	상층 ³⁾	1.1	0.8		
	전체	2.3	1.4		

** : p<.01 * : p<.05

제3절 심리사회적 특성과 근로

1. 계층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

복지패널에 포함된 개인의 심리사회적 측면은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이다.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로 구성된 지표이다.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계층별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을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우울감은 빈곤층에서 평균 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산층에서 1.43, 상층에서 1.28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층별 우울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이었다. 사후검증 결과 빈곤층의 우울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산층, 상층과 차이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상층이 평균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산층이 3.03, 상층이 2.7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층이 가장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층은 중산층, 빈곤층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산층과 빈곤층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심리적 특성 분석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은 다소 쟁점이 될 수 있겠다. 엄태원(2008)은 빈곤층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경남지역의 국민기초생활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빈곤층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우울에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층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그의 연구에서 우울은 비교적 안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심리적 특성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중산층과 빈곤층을 유의미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빈곤층과 다른 계층 간의 차이가 미비하여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징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본 장

의 뒷 부분에서 심리사회적 특성이 근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우울감을 대표적인 심리사회적 특성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표 4-11〉 계층별 우울감 및 자아존중감

(단위: 명, %)

구분	소득계층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우울감	빈곤층 ¹⁾	1259	1.80	0.63	455.682***	1>2,3
	중산층 ²⁾	3297	1.43	0.46		
	상층 ³⁾	1642	1.28	0.35		
	전체	6197	1.47	0.51		
자아존중감	빈곤층 ¹⁾	1251	2.76	0.48	430.039***	3>1,2
	중산층 ²⁾	3305	3.03	0.42		
	상층 ³⁾	1636	3.22	0.36		
	합계	6191	3.02	0.45		

***: p<.001

2. 근로여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

근로활동과 심리사회적 특성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근로여부에 따른 우울감, 자아존중감의 평균을 분석하였다. 이 양자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근로상태가 심리사회적 특성을 초래하는지 또는 심리사회적 특성이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아니다. 단, 양자의 관계여부에 대한 분석일 뿐이다. 하지만 양자의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인과관계에 대한 접근 이전에 필요한 것이다.

우울감의 경우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평균 1.7로 근로활동 참여한 경우 평균 1.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근로활동에 참여할 때 평균 3.1로 그렇지 않은 경우 2.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일반적 인식과 유사하게 근로활동은 우울감과 부적관계를 갖고 자아존중감과는 긍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표 4-12〉 근로여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

	유형	평균	표준편차	F
우울감	비근로	1.7	0.6	479.469***
	근로	1.4	0.4	
	전체	1.5	0.5	
자아존중감	비근로	2.8	0.5	407.809***
	근로	3.1	0.4	
	전체	3.0	0.5	

***: $p < .001$

3. 구직여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

구직활동 여부와 심리사회적 특성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런데 연령이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령을 분리하여 각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울감은 주로 구직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 생각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구직활동에 따라 큰 평균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같은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구직활동에 따른 우울감 및 자아존중감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이와 관련된 무수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의 것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4-13〉 구직여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

유형		연령	평균	표준편차	F
우울감	구직활동불참	30세 미만	1.7	0.6	0.256
		30세~40세	1.6	0.5	0.601
		40세~50세	1.7	0.7	3.699
		50세~60세	1.7	0.7	0.964
		60세 이상	1.6	0.6	0.019
	구직활동참여	30세 미만	1.7	0.6	0.256
		30세~40세	1.8	0.7	0.601
		40세~50세	1.9	0.8	3.699
		50세~60세	1.8	0.7	0.964
		60세 이상	1.6	0.6	0.019
자아존중감	구직활동불참	30세 미만	2.9	0.5	0.104
		30세~40세	3.0	0.5	0.601
		40세~50세	2.8	0.5	0.082
		50세~60세	2.9	0.7	1.509
		60세 이상	2.8	0.7	0.550
	구직활동참여	30세 미만	2.9	0.5	0.104
		30세~40세	2.9	0.6	0.601
		40세~50세	2.8	0.6	0.082
		50세~60세	2.8	0.7	1.509
		60세 이상	2.9	0.7	0.550

제4절 심리사회적 특성의 근원

본 절에서는 심리사회적 특성이 현재의 빈곤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과거의 아동기 빈곤경험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 심리사회적 특성이 단지 개인적 소양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인 빈곤에서부터 유래되는, 보다 사회적인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여 보고자 한다. 따라서 아동기의 경험과 현재의 계층, 그리고 근로 등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1. 계층별 아동기 경험

아동기의 경제적 수준별 현 계층을 확인한 결과 아동기에 매우 가난하였던 가구주는 아동기 경제적 수준이 좋았던 가구주보다 빈곤층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아동기에 부유하였다고 응답한 사람 중 지금 상층인 사람의 비율이 아동기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였던 집단보다 높았다. 즉 아동기의 경제적 수준이 현재의 경제적 수준과 관련을 갖고 있었다.

〈표 4-14〉 아동기 경제적 수준 별 소득계층

경제상태					(단위: %)
	빈곤층	중산층	상층	전체	χ^2
매우가난	38.3	44.9	16.8	100.0	199.871***
가난	20.3	56.1	23.6	100.0	
보통	15.5	54.9	29.6	100.0	
부유	21.1	47.6	31.3	100.0	
매우부유	30.4	40.6	30.0	100.0	
전체	20.1	53.4	26.5	100.0	

***: $p < .001$

계층별 아동기의 경제적 수준을 보아도 빈곤층에서 아동기에 매우 가난하였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다. 반면 상층에서는 아동기에 보통 이상의 경제적 수준이었음을 응답한 비중이 다른 계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결국 현재의 빈곤층은 아동기에도 가난하였던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응답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아동기의 경제적 수준 이어서 아동기를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환경에서 보냈는가에 따라 가난함에도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부유함에도 그렇게 느끼지 못할 위험이 있다. 즉, 빈곤밀집지역에서 살던 아동이 주변 가구보다 조금 형편이 좋았다면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정도로 기억할 수도 있고, 반면 부유층 밀집지역에서 살았다면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가구 중 상층에 속하지만 주변 다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기억할지 모른다. 따라서 아동기 경제적 수준에 대한 기억은 다소의 오차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4-15〉 계층별 아동기 경제적 수준

(단위: %)

경제상태	빈곤층	중산층	상층
매우가난	18.3	8.1	6.1
가난	33.9	35.2	29.8
보통	34.5	46.0	49.9
부유	11.7	9.9	13.1
매우부유	1.6	0.8	1.2
전체	100.0	100.0	100.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기의 경제적 수준에 관한 문항은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 아동기의 경제적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련 변수의 실태를 함께 분석하였다. 우선 ‘생계 곤란으로 인한 학업중단의 경험’ 및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친척집에서 성장한 경험’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생계 곤란으로 인한 학업중단 경험을 가진 경우는 빈곤층에서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산층 13.6%, 상층 5.8%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경제적 이유로 친척집에서 성장한 경험은 빈곤층 5.8%, 중산층 3.9%, 상층은 1.8%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업 중단의 경험과 경제적 이유로 친척집에서 성장한 경험, 두 가지 모두 빈곤층에게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6〉 계층별 아동기 경제적 어려움의 경험 유무

(단위: %)

구분	빈곤층	중산층	상층
생계가 곤란하여 학업중단 경험 있음	27.6	13.6	5.8
경제적 이유로 친척집에서 성장 경험 있음	5.8	3.9	1.8

과거 계층에 대한 기억보다 좀 더 객관적으로 아동기의 경제적 형편을 짐작하게 하는 변수로 부모의 교육수준을 들 수 있다. 계층별 부모의 교육

수준을 살펴본 결과, 빈곤층의 경우 부의 교육수준은 무학이나 서당졸, 또는 초등학교 졸업이 대부분이었다.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를 둔 빈곤층은 매우 적었다. 반면 중산층과 상층은 부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분석결과는 소득계층별로 부의 교육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지만 중산층과 상층에서도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의 비율이 높아 다소 이해의 혼란을 초래한다.

〈표 4-17〉 계층별 부의 교육수준

(단위: %)

교육수준	빈곤층	중산층	상층
무학	52.0	26.7	29.1
서당졸	13.5	7.3	8.0
초등학교졸	19.2	33.3	29.6
중학교졸	5.9	13.5	12.1
고등학교졸	6.6	14.4	14.7
대학(전문대)졸	0.8	1.0	1.3
대학교졸	1.8	3.4	4.8
대학원졸	0.2	0.4	0.4
전체	100.0	100.0	100.0

부의 교육수준은 가구주가 어느 연령대의 사람인가에 따라 평균치가 다를 것이고 이러한 연령 별 평균적인 교육수준의 차이가 계층별 부의 교육수준 차이를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 아동기의 경제적 수준차이를 각 연령대별로 t-test를 실시하여 비교한 결과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인 구간은 40세였다. 하지만 40세를 기준으로 40세 미만에 한정하여 부의 교육수준을 계층별로 재분석하게 되면 빈곤층의 표본수가 너무 작아 100을 넘기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50세 미만으로 응답자를 한정하여 부의 교육수준을 재분석하였다.

〈표 4-18〉 계층별 부의 교육수준: 50세 미만

(단위: %)

교육수준	빈곤층	중산층	상층
무학	23.1	13.7	7.3
서당졸	5.0	2.9	2.1
초등학교졸	34.7	37.4	30.7
중학교졸	11.6	19.1	18.6
고등학교졸	19.4	20.1	27.1
대학(전문대)졸	2.1	0.9	2.2
대학교졸	3.3	5.1	11.0
대학원졸	0.8	0.6	1.0
전체	100.0	100.0	100.0

분석결과를 보면 빈곤층에서는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이 역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중산층과 상층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의 비율이 줄었으나 여전히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학교 이상의 학력에서 빈곤층과 부의 교육수준이 대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빈곤층은 부의 교육수준에서도 다른 계층에 비하여 낮았고 이러한 부의 교육수준은 다른 지표와 함께 아동기의 경제적 수준이 현재의 소득계층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2. 아동기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

아동기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아동기에 보통 이상의 생활환경 속에서 자란 경우 자아존중감이 평균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가난하였던 경우는 평균 2.9로 나타나 아동기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심리적 지표의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검증 결과, 가난, 보통, 부유한 아동기의 경제적 수준을 경험한 응답자들이 매우 가난한 경제적 수준을 경험한 응답자에 비해 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매우 가난한 아동기의 경험은 다른 아동기 경험과 달리 이후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우울감은 아동기에 매우 가난한 생활을 한 가구주의 경우 평균 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인 경우가 1.4로 가장 낮게 나타나 경제적 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사후검증 결과, 아동기에 매우 가난한 경제적 수준을 경험한 응답자들이 가난, 보통, 부유한 경제적 수준을 경험한 응답자들에 비해 역시 높은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어릴 적 매우 가난한 생활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경험을 한 사람과 달리 자이존증감은 낮고 우울감은 높았다.

〈표 4-19〉 아동기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

(단위: %)

유형	경제생활상태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자이존증감	매우가난 ¹⁾	2.9	0.5	20.156***	2,3,4>1
	가난 ²⁾	3.0	0.5		
	보통 ³⁾	3.1	0.4		
	부유 ⁴⁾	3.1	0.5		
	매우부유 ⁵⁾	3.0	0.4		
	전체	3.0	0.5		
우울감	매우가난 ¹⁾	1.6	0.6	21.110***	1>2,3,4
	가난 ²⁾	1.5	0.5		
	보통 ³⁾	1.4	0.5		
	부유 ⁴⁾	1.5	0.5		
	매우부유 ⁵⁾	1.6	0.6		
	전체	1.5	0.5		

***: p<.001

3. 아동기의 경제적 수준과 경제활동상태

현재의 경제활동상태별 아동기 경험을 비교한 결과 거의 모든 경제활동 상태에서 보통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하지만 일용직임금근로자와 비경활에서는 아동기에 가난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다. 이 밖에도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실업자의 경우에도 다른 집단에서 보다 아동기에 가난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경활은 노인의

영향이 있을 것이지만 자영과 실업에서도 어릴 적 경험이 가난하였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보아 어릴 적 가난은 이후 경제적 불안정과 관계가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20〉 아동기의 경제적 수준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명, %)

경제활동상태	매우가난	가난	보통	부유	매우부유	전체	χ^2
상용직 임금근로자	5.1	30.6	53.7	9.8	0.8	100.0	323.927***
임시직 임금근로자	8.1	29.0	48.9	13.1	0.9	100.0	
일용직 임금근로자	12.7	46.9	31.3	8.5	0.6	100.0	
자활 또는 공공근로	16.7	16.7	50.0	13.3	3.3	100.0	
고용주	10.0	27.4	50.7	11.9	0.0	100.0	
자영업자	12.3	36.4	39.8	10.2	1.3	100.0	
무급가족 종사자	21.8	18.8	50.0	9.4	0.0	100.0	
실업자	5.1	35.9	42.4	14.3	2.3	100.0	
비경제 활동인구	15.5	34.9	33.9	14.1	1.6	100.0	
전체	9.6	33.5	44.7	11.1	1.1	100.0	

***: $p < .001$

가구주의 과거 경험 중 생계 곤란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한 결과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상용직은 적고 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자영, 실업, 비경제활동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경제적 이유로 친척집에서 성장한 경험이 있는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한 결과도 위의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아동기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였던 사람은 이후 불안정한 경제생활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21〉 아동기의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활동상태

(단위: %)

구분		상용직 임금 근로자	임시직 임금 근로자	일용직 임금 근로자	자활 또는 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전체	χ^2
생계 관련 학업 중단	무	45.0	5.5	6.5	0.4	4.7	15.2	0.4	3.3	19.0	100.0	377.376***
	유	16.6	3.8	13.1	0.9	1.1	24.2	1.0	3.8	35.5	100.0	
	전체	40.9	5.2	7.5	0.5	4.2	16.5	0.5	3.4	21.3	100.0	
경제 적 이유 로 친척 집 성장	무	41.4	5.3	7.4	0.5	4.4	16.4	0.5	3.3	20.8	100.0	42.471***
	유	28.6	3.8	9.7	0.8	0.4	16.8	0.8	4.6	34.5	100.0	
	전체	40.9	3.8	7.5	0.5	4.2	16.5	0.5	3.4	21.3	100.0	

***: p<.001

아동기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근로활동 여부를 살펴본 결과 아동기에 매우 가난하였거나 매우 부유하였던 사람의 비근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동기에 보통이나 가난하였다고 응답한 사람 중 현재 근로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4-22〉 아동기 경제적 수준별 근로여부

(단위: %)

아동기의 경제적 생활상태	근로여부		합
	비근로	근로	
매우 가난	36.4	63.6	100.0
가난	25.8	74.2	100.0
보통	19.4	80.6	100.0
부유	31.5	68.5	100.0
매우 부유	37.7	62.3	100.0
전체	24.7	75.3	100.0

근로와 비근로, 근로여부 별로 아동기의 경제적 생활을 비교하면 현재 근로하는 사람들 중 아동기에 매우 가난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8.1%이지만 비근로의 경우 그 비율이 14.1%로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근로집단에서 아동기에 보통의 생활수준을 유지하였다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분석결과 역시 아동기의 경제적 수준의 주관적 판단과 연령 등의 영향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아동기 가난과 현재의 근로가 유관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표 4-23〉 근로여부와 아동기의 경제적 수준

							(단위: %)
구분	매우가난	가난	보통	부유	매우부유	전체	χ^2
비근로	14.1	35.0	35.0	14.2	1.7	100.0	113.912***
근로	8.1	33.0	47.9	10.1	0.9	100.0	
전체	9.6	33.5	44.7	11.1	1.0	100.0	

***: $p < .001$

제5절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성의 영향

앞서 우리나라 빈곤층의 경제활동과 심리사회적 상태, 그리고 아동기 경험,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동기의 가난하였던 사람은 현재도 가난하거나 또 불안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성장한 후 심리적 우울감도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는 단순한 관련성을 의미한 것이었다. 과연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과거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수준이다. 단순한 교차분석에서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근로에 대한 제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하여 심리사회적 요인이 빈곤층의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심리사회적 요인은 과거 아동기의 빈곤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현재 빈곤층 근로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도 그 심리사회적

특성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히려면, 적어도 아동기의 가난한 경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아동기의 경험이 심리사회적 특성을 형성한다는 점에 대한 연구들은 적지 않다. 결국 아동기 경험의 영향을 받은 심리사회적 특성이 근로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이러한 인과관계 역시 다른 변인들에 대한 총체적인 고려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현재의 심리사회적 상태가 현재의 빈곤과 연관될 수도 있고 현재의 근로와 심리사회적 상태, 그리고 심리사회적 상태와 연령이 서로 관련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각 요인들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에 대한 각 요인의 영향, 특히 심리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근로에 대한 제 요인의 영향을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제 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히 아동기 가난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제요인의 영향을 회귀분석하였다.

로짓분석과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아래와 같다. 로짓분석에서는 종속변수로 근로여부를 선택하였다. 근로동기 등 의지를 종속변수로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계층 등 기타의 조건을 통제할 때 근로의지보다 객관적인 근로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분석에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근로 의지 등은 주관적이어서 도덕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 4-25〉 변수의 처리

변수명	변수의 처리	기타
근로여부	근로1, 비근로0	근로: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근로: 실업, 비경황
우울감	우울감 지표 합	
성	남성 1, 여성 0	
연령	만나이	
교육연수	총 교육연수	
근로능력	근로가능1 근로능력없음0	근로미약, 단순근로가능은 근로능력 없음으로 처리
유배우여부	유배우 1 배우자 없음 0	사별, 이혼, 미혼, 별거은 배우자 없음으로 처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	수급 1, 비수급 0	
빈곤여부	빈곤 1, 비빈곤 0	
지역	도시1 농어촌0	도시:서울, 광역시, 시 농어촌: 군, 도농복합군

근로여부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도 우울감은 근로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우울할수록 근로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성, 연령, 학력, 지역이나 빈곤이 통제된 상태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우울 정도가 낮을수록 근로할 확률이 높았다. 수급하는 경우 비수급보다 근로확률이 낮았는데 이는 수급층이 비수급층에 비하여 빈곤층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근로의 장애요인이 더 많은 것에서 연유한 차이로 추정된다. 빈곤하지 않은 경우 근로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근로하는 경우 근로를 통한 임금으로 비빈곤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관계가 작용하였을 것이므로 단순히 인과관계로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표 4-26〉 근로여부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변수	B	S.E.	Exp(B)
성더미	.248 •	.149	1.281
나이	-.078***	.004	.925
교육년수	-.077***	.011	.926
유배우여부	.773***	.134	2.166
근로능력	3.408***	.157	30.219
우울감	-.230**	.090	.794
수급여부	-.648***	.175	.523
빈곤여부	-.896***	.114	.408
지역	-1.123***	.172	.325
Constant	4.197***	.401	66.461

Chi-square=3383.031 (df=9), p=.000, -2loglikelihood=3548.217

***: p<.001 **:p<.01 *: p<.05 •: p<.1

근로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주로 비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65세 이상 근로할 수 있는 노인이라도 노인의 자발적인 근로는 바람직하지만 노인에게 근로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연령은 근로여부나 근로동기 등 근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근로여부 결정 요인에 대한 로짓분석을 비노인에 한정하여 시행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앞의 노인을 포함한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단, 비노인에 한정된 로짓분석 결과에서는 성의 영향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고 수급여부의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소득계층이나 기타 변수가 통제된다면 비노인의 근로여부에 수급여부나 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급자라 하여도 비노인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면 조건부수급이 되므로 당연 근로를 할 것이다. 연령이나 학력 등 조건이 통제되는 경우 성별도 근로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도 최근의 여성노동의 증가 측면에서 보면 일면 이해가 되는 결과이다.

〈표 4-27〉 근로여부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노인제외

변수	B	S.E.	Exp(B)
성더미	.219	.172	1.245
나이	-.063***	.007	.939
교육년수	-.040***	.015	.960
유배우더미	.939***	.155	2.558
근로능력더미	3.609***	.265	36.944
우울감	-.442**	.112	.643
수급여부	-.283	.218	.753
빈곤더미	-1.462***	.146	.232
지역더미	-.880**	.281	.415
Constant	3.068***	.606	21.495

Chi-square=1038.467 (df=9), p=.000, -2loglikelihood=2229.972

***: p<.001 **: p<.01 *: p<.05 •p<.1

위의 로짓분석에서 근로여부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변수는 우울감이었다. 물론 다른 심리사회적 특성들도 근로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다른 심리사회적 변인의 영향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음에서는 심리사회적 특성이 현재의 빈곤상태나 근로능력, 소득, 가족구성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오랜 경험, 특히 빈곤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것인지에 대한 규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울감을 종속변수로 관련 변인들의 영향을 회귀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연령이나 근로능력, 소득계층, 가족구성 - 유배우여부로 대표되었다 - 등을 통제하여도 우울감은 부의 교육수준으로부터 유의미한 영향을 받았다.

과거 아동기의 경제적 수준을 대변할 것으로 몇 가지 변수를 활용할 수 있었다. 본인의 과거 아동기 경제수준에 대한 기억, 아동기 박탈의 경험, 그리고 부의 교육수준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의 교육수준은 다른 변수보다 주관성을 배제하기 용이하여 부의 교육수준을 선택하였다. 다행히 회귀분석에서는 연령이나 지역 등이 통제되어 부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고려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우울감에 대한 관련 요인의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아동기 경제 상태를 대변하는 부의 교육수준은 우

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부의 교육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아, 아동기 경제적 수준이 어려울수록 우울한 것을 시사하였다. 부의 교육수준 외에도 현재의 근로능력, 기초보장수급, 빈곤은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근로능력이 없고 배우자가 없으면, 그리고 기초보장수급자이고 빈곤하면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면 연령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결과에서 유의할 것은 심리사회적 특성이 아동기의 경제적 수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오랜 세월동안 형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표 4-28〉 우울감에 대한 관련요인의 영향 분석

	B	SE	Beta	t
연령	.000	.001	-.005	-.332
성	-.128	.022	-.098	-5.847
부교육	-.007***	.001	-.066	-4.905
근로능력	-.140***	.021	-.099	-6.621
유배우	-.122***	.019	-.107	-6.427
기초보장수급	.254***	.026	.125	9.806
지역더미	.008	.021	.005	.402
빈곤더미	.221***	.018	.175	12.221
상수	1.754***			
R ²	.19			
F	173.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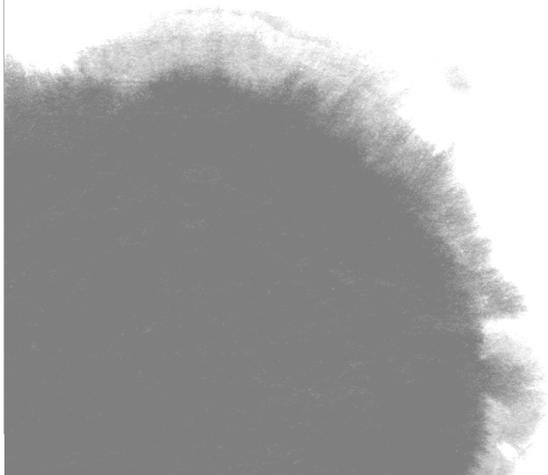
***: p<.001

우리나라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근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심리사회적 특성은 아동기의 빈곤과 같은 오랜 역사 뒤에 형성된 것으로 개인적인 것도 그리고 단기적인 것도 아니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빈곤층이 대개 연령이 높고 근로능력이 양호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사회가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근로가

가능한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빈곤을 탈출하게 하고자 하는 정책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라 하여도 이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근로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사회적 특성은 빈곤층을 비난할 거리가 되기보다는 과거 어릴 적 빈곤으로 인한 피해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사회적 특성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정책 개입을 설계하는 것이 규범적인 측면에서나 정책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절실하다.

05

가난한 삶과 일: 그 관계에 대한 회의



제5장 가난한 삶과 일: 그 관계에 대한 회의

제1절 자료의 설명

본 장에서는 빈곤층의 근로와 관련하여 심리사회적 특이성이 형성되는 구체적 기제를 밝히고, 빈곤층이 근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제 정책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단서들을 모색하였다. 앞서 우리나라 빈곤층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일과 관련된 특이한 심리사회적 특이성을 갖는지, 그리고 심리사회적 특이성이 빈곤층의 근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다면 심리사회적 특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양적 분석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제한적이고 따라서 심리사회적 특이성이 형성되는 구체적 기제를 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분석에서 필요한 제 변수들을 포함한 자료가 생산, 배포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규모 표본 자료가 그러하듯 조사 내용은 그간의 연구가 밝혀낸 주요 변수들을 중심으로 설계된다. 따라서 아직 충분한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영역인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이성 형성 기제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이 대규모 조사내용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려울 듯 하다.

결국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이며 개방적인 연구방식이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이성의 형성을 밝히는데 적절할 것이라 판단된다. 새로운 사실에 대한 탐색은 다분히 개방성과 구체

성을 기반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장에서는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이성에 대하여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언더리드(Underlid)는 빈곤은 인간의 문제로 심리학적 측면의 지원과 함께 이해되고 조사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Underlid, 2007). 질적 연구방법은 정책에서 등한시하기 쉬운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환기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질적 연구방법의 사용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는 서론의 연구방법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1.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

질적 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 수집 기간 동안 계속 고도의 민감성을 유지하여야만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연구자들이 직접 심층 인터뷰를 하여 마련된 것이다.

인터뷰는 개방형 질문지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인터뷰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인터뷰 전에 질적 연구 전문가로부터 약 2~3회의 사전 교육을 받고 초기 1~2회의 인터뷰를 마친 후 상호 교차하여 검토하고 다시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은 후 본격적인 인터뷰에 돌입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수급자를 포함하여 빈곤층 총 17명이었다. 근로가 주제이므로 표본추출에서 근로가 가능한 빈곤층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하지만 제한된 지역에서 근로가 가능한 사람만으로 충분한 사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근로능력이 취약한 경우에도 근로를 하는 사례와 과거 근로를 하였으나 지금은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빈곤층도 사례로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하여 표본에 포함시켰다. 또한 표본 사례는 임의 표집으로 추출 하되 어려서부터 가난한 사례와 최근 성인기 이후 가난하여진 사례, 그리고 아동공부방을 이용하였던 사례들이 고루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다른 경험이 그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지역의 영향을 고려하여 사례의 선택에서 대도시와 중소도

시, 농어촌 지역 거주자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전담공무원이나 자활사업의 일선 전문가, 지역의 공부방 실무자 등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추천자 중 대상을 확정하고 전담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해당 수급자에게 조사의 개요를 우선 소개하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일선 전문가가 전화통화로 대상자에게 조사의 개요를 설명한 후, 면담 약속을 하고 그 과정에서 조사의 목적, 개인정보 보안을 포함한 조사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다시 제공한 후 이러한 소개의 자리에서 답변 거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면서 조사에 대한 동의를 재확인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녹취되었으며, 연구자는 녹취된 자료를 반복하여 검토하고 유의미한 단서들을 모으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의 진술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기초로 응답자의 상황에 대한 포괄적 설명이 가능하도록 주관적 의미구조를 찾고 이를 통합하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주로 명사와 동사, 형용사를 중심으로 주요 개념을 도출할 것을 제안하는 Collins and Loftus(1975)의 연의망기법(technique of semantic networks)등을 참조하되 반복적인 진술에도 주목하였고, 전체적으로 개방적인 의미탐색을 유지하였다. 분석된 초기 결과를 기초로 연구자간의 토론을 거쳐 점차 핵심적인 범주의 개념들을 추려가는 과정도 병행하였다.

2. 인터뷰 질문의 구성

인터뷰 질문은 개방적으로 구성되었다. 근로에 대한 질의를 포함하되 이 질문으로 이어지는 사전, 사후질문을 함께 두어 근로에 대한 대상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다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여 인터뷰에 대한 불편함을 줄이고 대상자에게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였다. 인터뷰 내용에는 당연 근로 동기, 특히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에 대한 진술이 이끌어져 나오도록 필요 질문을 포함하였

으며, 과거 경험에 대한 주관적 기억, 이해, 그리고 이러한 과거에서 비롯된 인식 등이 다루어지도록 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이 질문들은 인터뷰의 골격을 형성하였지만 대상의 진술 내용 중 유의미한, 그리고 연속되는 질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의 언급을 재언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질문이 응용되기도 하였다.

인터뷰에 활용된 질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참고〉 인터뷰 질문

- 일상의 공유
 - 하루 일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 일에 대한 인식
 - 무슨 일을 하시나요? 지금 일에 만족하시나요?(이 과정에서 과거 일의 경험과 기억, 느낌, 안정성 등에 대한 진술이 이끌어지도록 질문)
 - 선생님께 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무엇 때문에 일하시나요?
 - 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보통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일반 사회의 인식에 대한 견해와 본인의 사례 진술 둘 다 가능)
 -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일을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시나요?(일반 사회의 인식에 대한 견해와 본인의 사례 진술 둘 다 가능)
 - 일을 하실 때와 하지 않을 때 자신에 대한 느낌이 다른가요? 또는 주변의 인식이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말씀해주세요.
- 계층에 대한 이해
 - 일반적으로 가난을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일반 사회의 인식에 대한 견해와 본인의 사례 진술 둘 다 가능)
 -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난으로 불편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가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부모에 대한 회상, 즉 부모의 일하는 모습과 나의 교육에 대한 태도 등 어릴 적 경험에 대한 진술이 이어지도록 함)
 -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점에서 기

역에 남았을까요?(학창기의 경험, 선생님의 반응, 친구와의 관계, 공부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주관적 진술로 이어지도록 함)

- 우리나라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 누가 더 많다고 생각하나요? 부자는 왜 부자가 되었다고 보시나요?

- 삶에 대한 인식, 행복한 삶에 대한 견해

-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선생님의 삶이 어떻다고 보시나요?
- 선생님은 행복하신가요? 만약 행복하시다면 무엇이 선생님을 행복하게 하나요?

- 자기 인식

-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시나요? 일상에서 무엇을 느끼시나요?(첫 번째 질문에서 다루어질 수 있음.)

- 미래의 계획과 전망

-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5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시간개념에 대한 언급을 주의)
- 목표를 가지고 있나? 무엇인가요?

* 중요한 개념이 언급된 경우 해당 개념으로 재질문을 구성하되 긍정여부와 관계 없는 개방형 질문이 되도록 노력함.

3. 사례의 일반적 특성

분석에 사용된 사례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이후 분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대상자의 연령과 성, 그리고 빈곤하게 된 경위, 현재 경험하는 어려움, 그리고 근로활동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여부 등을 짧게 정리하였다. 제시된 대상자의 이름은 예명으로 이후 분석결과에서 예시된 인터뷰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표 5-1〉 대상의 개요

	이름	연령	성	빈곤으로의 경로	현재 상태 및 기타 특성 (주된 문제, 수급여부 등)
1	박선정	22	여	어린 시절 지역아동센터 출신, 부모의 학력이 높으나 아버지의 장애로 취업이 안되고 사업실패 등으로 빈곤	어머니는 공부방 조리사. 아버지는 무직. 본인은 대학생,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와 관계 양호, 현재로는 큰 문제는 없으나 교육비는 주변의 도움으로 유지. 대학에서 근로로 학비를 일부 충당. 기초보장비수급
2	최수진	65	여	어려서 가세가 급하, 부모도 생보 자활대상자. 건강이 안좋아 빈곤상태를 유지	수급자, 현재 근로하지 않음. 과거 수에 등 일정하지 않은 근로를 경험. 95년부터 수급, 부모사망으로 노인독거, 수두 흔적에 대한 열등의식, 정서적 불안과 건강상의 여러 문제 호소, 상기 두 가지 요인의 연관성 의심
3	장민희	68	여	남편의 사업실패와 사망으로 빈곤화, 어릴 적부터 빈곤. 남편의 어린 시절은 더 심각한 빈곤으로 남편이 이 과거 경험에서 이상 성격을 형성하였다고 믿음.	최근 건강악화, 의료문제로 의뢰비 상한경감대상, 의료비 부담과 출소를 앞둔 아들의 문제로 고민 중. 1년 전까지 식당 등에서 일하였으니 지금은 중단.
4	나진욱	73	남	월남하여 빈곤한 아동기 보냄, 시장에서 점원으로 근로한 경험. 자영실패 등으로 계속 빈곤상태를 유지	수급으로 진입. 노인 독거가구, 암으로 부인과 사별, 아들은 신용불량자로 연락두절, 본인은 척추이상으로 건강악화
5	권철진	70	남	20여년 교사로 재직 후 조기명예퇴직함. 사기로 연금을 잃고 빈곤진입	수급자, 부인과 사별, 가족해체, 노인 단독가구. 자신의 건강 유지에 매우 민감. 현재 근로하지 않음.
6	박영이	56	여	어릴 때 불우한 환경으로 수녀원에서 생활. 미용업의 실패와 사기, 가정해체가 가세	수급자로 자활근로, 고등학생 딸과 사촌동생의 집에서 더부살이. 전 배우자의 폭력경험, 세상에 대한 불신, 불면증, 증오 불안 등 호소 빈혈 등 건강상태 안 좋음.
7	박민석	70	남	아동기 빈곤으로 무학. 빈곤한 건설일용 중 사고로 장애.	도장을 파는 일을 하고 부인과 함께 생활. 몇 년 전 수급을 반납, 수입이 줄고 건강은 악화 중. 가족관계는 양호
8	황연식	61	남	어려서부터 가난하여 무학. 젊	자활근로 참여, 장애아들과 아

	이름	연령	성	빈곤으로의 경로	현재 상태 및 기타 특성 (주된 문제, 수급여부 등)
				어서 어촌에서 일용. 장애아들과 부인에 대한 걱정으로 젊을 때도 위험한 고임금의 일을 하지 못함.	내의 질환으로 생활의 어려움 가중
9	안소영	44	여	어릴 적 가난과 부의 잦은 음주로 결혼을 탈출의 방식으로 선택. 남편 직장의 불안정과 남편의 질환으로 빈곤화	자활근로로 동사무소에서 근로 중, 남편, 아이 둘과 생활, 남편의 건강문제는 심각.
10	유미숙	27	여	어려서부터의 가난. 이동기 방임을 경험	엄마는 장애인이었음. 부가 사망하면서 목사님의 집에 위탁. 기초보장 수급. 대학생이나 휴학 중이고 지역 가게에서 근로 중.
11	최보영	38	여	남편의 사업이 잘 안 되면서 수입이 감소	회사경리로 근로, 보육료 지원 받음. 남편과 초등생 둘이 생활.
12	김희선	73	여	영세자영업 실패, 건강악화로 빈곤가속화	수급, 건강문제로 어려움 가중. 젊어서 식당운영 등 근로. 결혼하였으나 자녀 없고 독거. 이동기 빈농의 자녀로 성장
13	황주현	43	여	사업의 실패와 사기로 빈곤화. 중산층에서 몰락, 농촌으로 이주	농촌에서 농업으로 재기중. 부와 이동 세 명으로 가족구성. 부인은 건강문제로 근로가 어려운 상황. 기초보장수급, 영농지원대상.
14	김윤수	43	남	이혼으로 빈곤화 가속, 어려서는 비빈곤, 그러나 가정불안	택시기사, 장기임대주택업주 확정. 고등학생 아들 2명과 생활, 대학교육에 대한 부담이 남은 상태.
15	이한서	51	남	가난한 환경에서 불안정한 성장. 초등학교 중퇴. 철도, 퀵서비스, 택시 등의 불안정한 근로경험. 무절제한 소비로 빈곤	자활센터에서 근로, 수급, 자녀 셋, 재혼한 외국인 부인과 가족을 이룸.
16	최신우	71	남	어려서는 중층으로 기억, 취업이나 사업의 경험. 영세 사업의 실패 등으로 빈곤	비수급, 노인일자리 사업참여 부인과 생활, 자식들 키우고 부담이 줄어 현재 상태에 상대적으로 만족.
17	심이준	35	남	가난한 이동기, 청년기 일용과 과소비로 빈곤한 생활이 지속.	의료 급여. 아이 둘의 이빠, 부인도 일을 하고 있음. 일용직. 게임을 좋아하고 최근에서야 적극적으로 구직을 시도.

제2절 빈곤과 일에 관한 전제의 오류

일을 하면 행복하다. 사람들은 모두 일할 권리가 있다. 일을 하여야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 가난과 일을 둘러싼 일반적 인식이고 전제이다. 많은 사회정책들이 암암리에 이러한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앞의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반면, 일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 일에 대한 자율성도 낮았다. 빈곤층의 일이란 더 하면 더 하지 절대 양호한 조건에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일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그리고 근로빈곤의 문제가 만연한 요즘은 물론 과거라 하여도 일이 가난을 벗어나게 하였을까?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이성의 형성은 이러한 전제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분석은 이러한 모든 전제들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한다.

1. 반복된 좌절, 잃어버린 기대

빈곤층은 과거 어릴 적부터 가난을 경험하여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릴 적 가난은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도 어렵게 하였고 그 결과 좋은 일자리를 얻기도 힘들게 하였다. 정보도 부족하니 좋은 일자리나 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은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도록 하였고 기대를 잃도록 하였다. 사례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면 가난으로 무기력해진 심리를 엿볼 수 있다. 가난으로 성공할 수도 그리고 돈을 모을 수도 없었던 경험과 이 경험들이 만들어낸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장민희: 그게 그렇게 잘 안되요. 지금도 무슨 사업이고 밑천이 좀 있어야 하는데.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한다고. 빛도 구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깐 잘 안됐어요....사람 나고 돈

낮지. 돈부터 나고 사람 나온 건 아닌데. 사람이 살아보면 돈이라는 게 참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불편하게 해요. 돈 때문에 일도 하고 싶어 하는데. 시켜주는 곳도 없고.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하고. 그니깐 너무나 서글프고 삶에 그 어떤 자신도 없어져가고. 재미도 없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한마디로.

심이준: 노력만 하면 됩니까. 결과가 안좋은걸요. (웃음)... 일단 학벌이 제일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제가 좋아하고 잘 한다고 해도 안 써주죠.....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것 같아요. 술 마시고 행패부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아버지의 술 마시고 행패부리는 모습을 어린 애들이 보고 자라왔어요. 그 애들도 똑같이 삽니다.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 갖고 끝까지 크는 아이들이 적어요.

나진욱: 워낙 가진 게 없이 빈주먹을 가지고 안 해 본 게 없었으니까. 사람이 돈을 잡으려면 돈이 많이 나는데 가야하거든요. 남대문 시장에 장사를 나갔던 것은 잘 했던 거고. 남대문에서 배운 게 장사 밖에 없는데 장사를 할 수 있는 무슨 기반이 되어 있으면 되겠는데. 그것도 못하지...그래서...어휴... 돈이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정말 남보다 노력도 했고 남대문에서 밤 장사를 위해서 남 잠자는 시간에 나가서 생활을 했었고, 그러나 내 수입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말할 수 없지. 거기에 가게 가지고서 도매업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벌어서 힘든 걸 모르고 생활을 하는데 나는 아무리 힘들게 해도 돈도 못 벌고.

박영이: 저는 부모를 일찍 여의었어요. 기초가 안 되어 있잖아요. 기초가 안 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느 한계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지금 사회가 그래요.

안소영: (아이들) 아빠가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아이들 아빠가 어떤 일을 추천받으면 학력에서 배제되는 부분이 있더

라고요. 그런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도 우리처럼 똑같은 생활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요). 요즘 흔한 말로 가난은 대물림이 된다는데,

(아이들) 아빠가 학력이 높지 않으니깐 일을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소규모 영세 업체에서 일을 하는 거였는데 워낙에 체력을 많이 쓰는 거라 허리 쪽으로 많이 다치는 그런 일이었어요.

최보영: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너무 없으니깐, 먹고 살기 바쁘니까 (돈을) 모을 시간이 없는 거고. 또 학벌도 무시를 못하는 데 돈이 없어서 못 배우니까 (일하러) 못가는 경향도 있고.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황연식: 국민학교도 다니다가 말고. 그러니 어디 배운 게 있어야지. 많이 배워야 어디 가서 돈 벌이라도 많이 할 건데..... 나는 부모한테 받아서 나온 것도 없고, 노력해도 뭐 안 되는 거래..... 뭐 돈이 있어 봐야 목표나 꿈을 (갖지). 내일이라도 내가 사업을 한 번 더 해볼까 라든지 뭐를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사람이 뭐 돈이 있어야 움직거리지.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빛 주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돈이라는 거는 있는 사람이 활용하는 거지 없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돈을 어디서 빌리러 가도 이래 훑어 보고...그래 돈은 못 빌립니다.

김희선: 가난한 거는 우리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니깐 그렇겠지. 가난이 진짜 힘들어 가난이. 사는 게 힘들어.

이들의 의지는 어려운 환경에서 쉽게 무너지는데 한 예로 어렵게 돈이라도 모아볼라고 하면 많지도 않은 저축이 이런 저런 사정으로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지출을 완충할 장치 - 사적 지원이나 각종 보험 등이 그 예. 가 없는 빈곤층의 저축은 의료비나 빚잔치 등으로 쉽게 허물어지고 만다.

최수진: 도움 받기 전에는 수를 놓는 것 등을 하긴 했는데, 한 달 내내 해도 병원 한번 가면 그 돈이 모자라요.(허탈한 웃음)

음.) 조금이라도 별라고 한건데...하긴 그 것도 잘 못했어요.
낮에 조금 하다가 쉬고.....그러니까 돈이 안 되고 힘만 들더라구요.

황연식: 노력을 해도 돈이 헛된 곳에 빠져서, 죽을판 살판 (일)해도 돈이 안 모아질 때가 있어요. 그 게 사람 팔자인 거 아닌교.....

이한서: ... 그전에는 뭐 단발성으로 그냥 잠깐 저축하다 실패하고 당장 잠깐 저축하다가 실패하고 그랬었거든요. 필요한 만큼 돈이 계속 모이는 게 아니고 조금 모이면 어디 쓸 곳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써버리면 좌절되고.....이런 과정이 적지 않더라구요.

학력이 낮으니 안정적인 일자리에 경쟁을 통하여 나아갈 기회도 거의 없었다. 그러니 이들은 주변의 제한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불안정 취업을 전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의 직업이동은 매우 잦다. 불안정 취업을 이어질 수록 취업의 조건은 더 열악해지고, 이는 나이가 높아지면서 더 심화된다.

김희선: 뭐 많이 배웠으면 좋은 데 앉지만. (나야) 노가다 일 이런 일 하고 남의 집에 가서 설거지 해 주고 그렇게 했지. 남의 집에 있어 보니까 힘들고 해서 한번 장사를 해 본다고 해 보니까 그 것도 잘 안되더라고. 그래서 풍파가 많지 뭐. 하다가 힘드니 치우고, 치웠다가 또 안 되니 남의 집에 가고, 남의 집 가니 힘들고. 그러니까 칠십 평생 살면서 고생만 하다 살은 거지.

이한서: 배운 게 짧아서 그런지 가서 해보고 몸으로 부딪치죠. 이제. 가서 해보고 그 일이 맞는다 하면 계속 하는 거고 안 맞으면 이제 그만 두게 되는거죠.

잡은 직업이동은 이들의 이동기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어릴 적 불안정한 생활패턴이 일조한 것이다. 규칙적인 생활방식을 견디기 쉽지 않은데 이러한 일자리를 견뎌야하는 이유도 그리 크지 않은 것이다. 그들이 그러한 일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안정적 일자리가 보장하는 높은 임금과 발전, 그리고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희선: 내가 하니까 내 자유지 뭐. 좀 일찍 끝마칠 때도 있고, 또 내가 놀고 싶을 때 가가지고 어디라도 바람 쐬고(씨러) 나갈 수도 있고. 남의 집에 가서 월급을 받으면 나가지를 못하잖아. 마음대로. 딱 매인 몸이 되어서. 그래 봐야 만날(맨날) 노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노는 거. 그거 가지고 만날 내 몸 아프다고 또 쉬는 것도 아니고. 안 나가면 돈 안 주니까 나가야 또 돈을 주니까. 그래도 혼자라도 먹어야 살거든. 혼자라도 살아보면 맨 세금 물 거 물어야 되지, 내 쓸 거 써야 되지, 불 때야 되지. 힘들어요. 힘들어. 사는 게. 그래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또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장사 치운지 오래 되었어요.

이한서: 좀 자유스러운 일을 많이 했어요. 택시라는 건 배차 받아서 끌고 나오면 내 자유껏 누구한테 간섭받지 않고 돌아다니는 직종이니까 했구요. 철도는 이제 일용직 비슷한 거예요. 퇴직금도 없고 이런 거. 내가 몸이 아프면 안 나가도 되고. 좀 자유스럽게.

어릴 적 잡은 이사를 경험하면서 안정적 정착이나 친밀한 관계형성의 경험이 부족한 할아버지는 과거 자신의 일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권철진: 누구한테 지시를 받고 이런 걸 쥔 싫어해요. 뭐 이거 해라 저거해라 하고 뭐 그러는 것.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난 원했거든요. 남의 지시 안 받고,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했어요. 그래서 또 명예 퇴직을 선택했고.....

좌절과 기대의 상실은 과거의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이 누적된 결과이다. 빈곤으로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여러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탈빈곤도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 역사의 결과이다. 과거의 일로부터 계속 배신이 누적되면서 그 경험을 극복하기는 힘들어진다. 일에 대한 신뢰는 상실되고 생존의 조건으로서만 일이 남게 된다.

근로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하나는 승진이나 안정, 높은 소득과 같이 조건의 향상을 뜻하는 외적 요인과 다른 하나는 적성과의 조화,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기쁨, 사회에 필요한, 의미있는 일을 한다는 등의 일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뜻하는 내적 요인이다. 빈곤층은 외적 요인에 대한 기대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험이 축적되어 결국 기대가 있어야 할 자리를 좌절이 차지한다.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인정이다.

일을 하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빈곤층은 운명론으로 답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대개 ‘가진 것 없이 태어나 자란 것’, 그래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것’을 언급하면서 가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복이 없어서”라고 답한다. “복이 없다”는 언급은 거의 응답자의 한결같은 반응이기도 하였다. 그 답에는 운명에 대한 굴복이 있다.

2. 피할 수 없는 일, 연명하기 위한 일

강요된 일은 절대 즐겁지 않다. 이 점에서 본다면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명제도 일정한 전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빈곤층의 일은 대개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다. 강제로 하는 일,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궁색하고 허접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한 빈곤층의 인상은 매우 절망적이다. 이점은 외국의 근로 조건화된 노동에서도 발견된 점이기도 하다.

권철진: 대개 어려워 가지고 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안 많습니까? 넉넉하면 뭣 하러 하겠습니까? 뭐 재밌게 즐겁게 일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억지로 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해가지고 좀 도움을 받자 그런 생각으로 일 하는 사람은 일을 해도 고달프지 않겠습니까?

박영이 : 일 나갈 때는 솔직히 말해서 아 오늘도 또 나가야 되네. 와 미치겠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탄스러운 거. 희망이 없죠.

장민희: 일하고 싶어하죠. 왜냐. 결국 돈 때문에. 재미있는 일을 해야지 힘도 별로 힘 안 들고 그냥 어느 선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돈만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 (설거지는 하였지만) 안 즐겁죠. 살아야 되니깐. 그거 아니면 다른 거 할 게 없고. 억척스러운 장사는 못하겠고.

이한서: (이전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일을 한다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 조금 소외되고 낙후된 직업만 하니깐. 옛날에는 일 나가는 그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Q6) 일을 조금 해보고 힘들다고 안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나 자신도 하기 싫으니깐.

빈곤층이 일을 하는 데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불행을 막는 것, 불행기피의 동기가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이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으니 더 이상의 불행을 막는 것이 아니라면 일의 동기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과거 경험으로 익힌 뒤다. 적지 않은 빈곤층에게 특히 연령이 높은 빈곤층에게 일이 무엇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약하고 또는 무엇을 변화시켰으면 하는 소망이 없기도 하다.

사실 대부분의 계층은 일을 통한 행복추구와 거리가 먼지도 모른다. 일하는 이들은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으려고 일하는 것일 수 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굶을까 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 집세도 낼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돈을 벌기 위한 수단

6) 인터뷰의 인용 중 'Q'는 인터뷰를 수행한 연구자의 질문으로 이해를 위하여 삽입한 것이다.

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갖는 듯 하다. 자아실현, 더 좋은 집, 더 좋은 위치에 대한 추구, 그 밖의 성취주의 동기는 일부 좋은 조건에 있는 집단의 전유물일 뿐일지 모른다.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빈곤층은 나름의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된다. 일을 단지 고통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도로만 유지하는 것이다. 더 이상의 인내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 이들의 일은 더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다.

심이준: 당시는 저 혼자였고. 제가 뭐 누구를 부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냥 편한 데로. 일한만큼 돈을 받고 또 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편했어요.

유미숙: (Q 일 안할 때 기분은? 또 왜 일하게 되는가요?) 일 안할 때는 그냥 안해요. 그냥... (Q 일자리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알아보지도 않은건데.....일해야 한다고 생각되면 일하고...

이러한 태도로 일을 하게 되면 필요한 소비 등 일상 생활에서도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필요한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비를 위하여 일하는 최근의 세대가 하나의 근로동기나 빈곤층의 특이성을 설명하는 이론을 형성할 정도이다. 하지만 빈곤층은 생활에 대한 소극적 적응에 익숙해지는 방식으로 그들의 근로 결과를 감내한다. 빈곤층의 적응기제 중 하나는 ‘욕구의 억제’였다. 돈이 없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욕구의 억제는 일상적인 이들의 삶이 행복보다는 불행에 가깝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박선정: 애들하고 놀러갈 때도 엄마에게 말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일이 중학교 때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방학 때는 집에서 안 나갔어요. 약 한 달 정도 되는 방학 중에 거의 하루 나갔나? 사고 싶은 거 말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말 못하고...남들처럼 학원 다니고 싶어도 말 못하고..

심이준: 일을 안하고 있으면 나태해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싫고, 가만히 있고 싶고. 움직이면 돈이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일 안하게 되면 안 먹게 되더라고요.

빈곤층은 사회의 형평성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경향이 있다.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보았듯이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근로에 대한 동기가 높아지기 보다는 당장의 분명한 것에 대한 선택이 더 강해진다. 빈곤층은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즉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기는 어렵고 부자들처럼 부정한 방식을 선택하기는 싫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근로보다는 당장의 일상적 즐거움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물론 빈곤에 대하여 빈곤층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지만 빈부 격차에 대한 인식, 보상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은 앞의 운명론과 일부 맥을 같이하면서 부정적인 특징을 지닌다. 단지 사례 중 농촌에서 살고 있는 경우와, 도시에 살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 돈을 벌어 본 경험이 있는 사례만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노동의 대가 만큼 수확을 하게 되는 농사를 짓거나, 자신이 자신감을 갖고 돈을 많이 벌어본 경험이 있는 빈곤층은 부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나진욱: 우리나라가 돌아보는 것 보면 부정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부자가 될 수가 없더라고. 거의 다 그래요.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박민석: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죠. 가난한 사람이 주식을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을 잃는데... 장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이준: 다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고. 우리처럼 돈 없는 사람들은 세금이 더 내야 되고 그만큼 있는 사람들은 덜 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또 부자더라고요.

최신우: 실제로 부정 없이는 그렇게 대단히 부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 보이지 않는 미래, 목표의 상실

과거의 경험이 이후의 미래설계에도 차이를 만든다. 계획을 하고 이를 수행하여 성공을 경험하였던 빈곤층은 중장기 계획과 구체적 준비에 보다 익숙하고 이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지만 과거 직·간접적으로 좌절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은 구체적 계획의 유용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듯하다. 그래서 항상 가난하였던 빈곤층은 중장기 계획이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 준비를 보이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한서: 그게 참. 희망이 없었어요. 목표를 안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았어요.....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거죠. 어떤 특별한 목표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3년 동안 노력하면 언제든지 돈을 벌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어서 대충 살았던 것 같아요.....그냥 남 남들이 그거 하니까 제일 손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선정: 하여튼 그게 잘 그림이 안 그려져요. 내가 어디에 가서 일을 하고 있겠구나 하는.....학교를 계속 다닐 생각은 없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생각으로는 대학원을 갈 거 같아요. 대학 졸업하면 취직하기 보다는..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으던가..아니면 러브콜이라고 해야 하나 교수님들한테 그 것을 받아서 그 쪽 대학원을 가던가. 요새 대학원이 많아졌잖아요. 의학전문대학원이라던가..교육대학원을 가던가...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육대학원을 가면 가정교육과를 선택해야지.....이런 식으로

김희선: (Q 무슨 일이 하고 싶으셨나요?) 여관. 젊고 할 때는 포부가 컸지. 돈이 없어 못했지만. 친구 하나가 포항에서 여인숙을 했는데 가 보니까 참 잘되더라고. 나도 이런 걸 한 번 해

봤으면 싶더라고. 잘 벌고 일이 좀 편하더라고. 보니까.

안소영: 일단 아빠한테서 도망을 온 거죠. 아빠가 이제 술주정을 하니까..... 그 때 많이 생각 안 해 봤던 것 같아요. 인생의 노선을.

흥미로운 것은 빈곤층이 빈곤의 원인에 대하여 부정 등 구조적 측면을 언급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응의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쉽게 운명론으로 이어지고 빈곤의 원인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남게 된다. 결국 개인적 동기가 좌절된다. 누구를 원망할 일도 아니지만 내가 노력해서 바뀔 일도 아니다.

김희선: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더 했으면 부자가 되었을지 모르지. 그런데 그게 복이 따라줬어야 되는데 복이 안 따라 줘. 복이 제일 중요하지. 시집 잘 가는 것도 복이거든. 살아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 저 사람은 복이 얼마나 많아서 저렇게 신랑도 잘 만나고 행복하게 잘 사나. 우리는 복이 없어 가지고 이런 것 같아.(허허)

박영이: 그 사람들 복이 있어서 잘사는 것이지 그걸 시샘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박민석: 복이 있었더라면은 그래도 좀 많이 벌었을걸.

최보영: 부자인 친구들 보면 부럽죠. 당연히. 아우 나도 저렇게 하면 좋은데. 내가 이 환경에 태어났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그게 나의 복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리 심각하게 생각은 안했어요.

빈곤의 원인을 외부요인으로 보고, 운명론을 논하면서도 빈곤의 원인에 대하여 중산층의 도덕적 기준도 버리지 못한 채 내면화하는 이중성도 가진

다. 이점은 이전의 다른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열심히 일하고 모으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과 타고난 것에 대한 한탄이 뒤섞이는 것이다. 가진 것 없이 태어난 것이 빈곤한 원인이지만 나태 등에 대한 죄인식도 씻지 못하면서 가난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이중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야기들은 거의 운명론에 가깝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상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공존한다. 하지만 결국은 근로에 대한 도덕적 기준만 내면화된 채 유지되고 그래서 의식수준의 동기만 강하지만 실제 근로에 대한 구체적 동기는 약하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경험이 이러한 동기가 부질없는 것이라고, 그러니 더 이상 애쓸 이유가 없다는 인식을 형성한 것이다. 일이 더 이상 보장할 수 있는 보상이 없을 때에는 쉽게 일을 포기한다.

제3절 희망의 단서

빈곤층의 일에 대한 기대 상실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일까? 빈곤층의 이야기는 기대의 상실과 함께 긴 시간 동안 형성된 그들의 비판적 인식을 바꾸어줄 단서들도 제공하고 있다. 희망의 단서들이다.

빈곤층이 하는 대부분의 일이란 즐기기가 어려운 것들이다. 즐길 수 없는 일을 하려면 강력한 동기가 필요하다. 빈곤층의 일이란 대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높은 임금이나 지위를 향유하기 어렵다. 오랜 시간 참고 일한다고 그리 될 전망도 거의 없는 일거리이다. 그러니 근로 동기 중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 요인들이 더 중요해진다. 내적 요인들이야 말로 바꾸어볼 수 있는 것들이다. 내적 요인에는 근로자의 적성과 맞는 일의 특성, 또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또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의 의미가 포함된다. 일 자체에서 자아성취와 같은 내적 명분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일은 가족을 위한 노동으로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유교적 국가에서는 이러한 동기는 더 없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은혜갚음, 세상에 대한 봉사도 중요한 명분이 되는데 이 점

도 역시 유교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1. 희망의 고리: 내 아내, 내 아기

빈곤층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는 가족에서 비롯된다. 이들에게 가족은 부담이자 희망이다. 즐길 수 없는 일을 하면서도 가장의 역할을 한다는 안위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빈곤을 벗어나 다르게 살아갈 가능성을 가족에게서 찾고자 한다.

김윤수: 남자들은 혼자 생활하면 망가져요. 여자가 있으면 모를까. 여자 없이 남자가 혼자 생활하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옆에 내가 살아야하는 목적이 있어야 해요. 애들이 있어야. 애 때문이라도. 집에 들어가야지. 여기서 망가지면 안되지. 이렇게 되거든요.

나진욱: (아내가 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기회만 닿으면 희망을 가지고 뛰어 보려고 생각을 했지요. 이제 내 생각에 끝난 거고.....우리 집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박민석: 내가 제 명에 사는 게 아니고요 덤으로 산단 말입니다. 뭐냐면 우리 할마이 덕에 살아요. 우리 할마이 내 내한테는 급수 없는 사람이라요. 아. 지극하죠.

황주현: 제일 큰 힘은 애들이었고(울먹인다) 또 제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애들 아빠가 책임감 때문에 (한참 말을 잊지 못한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심이준: 지금의 애기 엄마를 만나고 애기 둘을 키우면서 딱 아 이렇게 살면 안되는구나. 나도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마음을 잡고 살아봐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지금은 (일을) 안 가려요. 뭐 건설 쪽이든 식당 쪽이든. 만약에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것만 있다면 안 가리고 그냥 합니다.

박영이: 정부에서 주는 돈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도 이제 고등학교 일학년이 되었어요. 공부 곧잘 해요. 학교에서도 참 아이가 밝게 자랐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환경 치고는요. 자식 하나가 희망이에요.

가족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 가장 강력한 일의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일의 종류를 막론하고 “가족을 위한 일”은 아름다운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앞의 근로여부에 대한 분석에서 대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근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을 구성하고 가족을 유지하고, 좋은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근로를 하도록 하는데,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만하다.

사회적으로 자신의 노동이 의미를 가지는 것을 자각하는 것도 근로에 대한 빈곤층의 무기력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즉, 일의 의미를 느끼게 되면 일에 대한 태도가 변화된다. 가장 쉽게 느끼는 일의 의미는 사회에 유용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어려운 누군가를 돕는다거나 또는 은혜를 입는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일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고 누추하고 낮은 임금의 일이 견딜만한 이유를 갖게 된다.

안소영: (Q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시는가봐요) 그럼요.(힘주어 말한다) 제가 여기서 사회복지도우미로 일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고, 특히 어르신들은 그냥 직원으로 보시기 때문에 제게 고마워하세요. 친절하게 해 드리면 인사를 많이 하고 가세요. (Q 이 일에 만족하세요?) 네. 그럼요 만족해요. 여기서 몰랐던 부분을 많이 배워요. 엄마가 동사무소에서 일한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자랑거리도 되는 것 같아요.

이한서: 여기서의 일이 제게 맞는 것은 배달하고 포장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고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하면서 전달하는 어떤 기쁨 같은 것입니다.....나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조금 적응이 된거지.

유미숙: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것이 좋아요. (사장님이)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저같은 사람을...(울먹)

자신이 하는 일에 도구적 의미(돈을 버는 것)외의 다른 의미를 두어 성취감을 높이는 것이 일을 유지하고 적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영국의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사회서비스의 의미를 교육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강조되었다. 빈곤층이 하는 일에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일이 즐거운 사람들: 개성의 존중과 공동체의 경험

일이 즐겁고 의미를 갖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일하는 사람의 적성에 맞아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일을 통해서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일의 동기에 관한 연구들에서 집단으로 근로를 할 경우 근로동기가 더 강해진다는 점이 증명된 바도 있다.

적성에 맞는 일을 한다는 것은 빈곤층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만난 사례 중 일이 즐거운 사람들이 있었다. 현재는 노동이 즐겁지 않지만, 과거에 신명나게 했던 일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빈곤층은 대부분 그들의 부족한 교육수준이나 자본으로 인해, 선택할 수 있는 노동의 범주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즐겁다고 말한 이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었다.

박선정: 아빠가 침하고 뜸을 배우면서 되게 사람이 온화해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그 걸 배우시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신 것 같아요. 아빠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몇 년전부터 해오신 엄마의 일(지역아동센터 조리사)이 엄마한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를 보면 몸은 힘들어도 일을 즐겁게 하시는 것 같고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엄마는 아이들을 교육하시는 일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도 무척 즐겁게 하셨죠.

이 사례의 가정은 아직도 가난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가족 관계도 매우 나빠서 가족원의 고통은 더 없이 컸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족관계가 개선되면서 가족 전반의 문제가 완화되고 있다. 농사로 재기 중인 빈곤가족은 지금의 일로 신명이 난다.

황주현: (Q 지금 하시는 일을 좋아하세요?) 아휴~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구요. 저희 애기 아빠가 법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농대를 갈 걸 그랬다고 생각해요. 원래 (이런 것을) 좋아했어요. 농사는 모르지만 뭘 하나를 하면 심취를 해서 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다가 가꾸고 그런 것을 좋아해요. 제가 꽃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장사 시작할 때 애기 아빠 영향도 많았거든요.

김윤수: 장사하는 거나 사람을 상대로 말하는 거나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운전을 매우 좋아했었어요. 제가 총각 때부터 차를 몰았거든요. 뭘 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런데 내가 운전을 좋아하니깐 개인택시를 하자. (무릎을 탁 치면서) 무릎이 탁 쳐지는 거예요.

위의 사례들은 적성에 맞는 일이 빈곤층의 근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절감하게 한다. 한편 적지 않은 사례들은 노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있는 교분을 향유할 수 있을 때 그 일이 즐겁고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이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얻어진 기쁨이다.

심이준: 한 남자로서.....사회구성원이라는 동질감이라고 그러나.....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일 끝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하고 막걸리 집에 가서 막걸리 한잔씩 하고 헤어진다는 거. 그건 상당히 기분 좋거든요. 그날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거 같고.

이한서: 지금 현재는 많이 만족해하고 있고요.....직원들간의 뒤편하고 할까 좀.... 화합, 따뜻함 이런 거 조금 있어요.

장민희: 그래도 (식당에서 일 할 때) 즐거울 때도 있긴 있죠.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웃고 또 맛있는 것도 해서 먹고. 명절 때 되면 주위사람들 모르게 (돈을) 더 주시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3. 다시 세운 깃발

안정적이면서 생활관리가 병행하는 근로를 경험한 빈곤층은 서서히 목표를 세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목표는 근로에 대한 전반적 태도의 전환을 만들어 내는 듯하다.

이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목표를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 어떤 목표를요?) 개개인에게 상담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도록 해야죠). 목표 설정을 좀 해주면 웬만한 거는 다 탈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목표가 생기고 이에 따라 저축을 하니까, 돈도 조금씩 불어나는 재미도 있고.....

김윤수:(Q 5년~ 10년 계획 같은 것 갖고 계세요?) 요즈음 적금을 들었어요. 돈을 모아서 개인택시를 사려고요. 회사 택시 하는 사람들은 소원이 그거예요. 개인택시 하는 것. 솔직히 집 없어도 차 안에서 잘 수도 있잖아요. 자면서 생활이 되거든요. (하하)

안소영: 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저축을 가입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0만원씩 저축을 해요. 앞으로 3년 후면 돈이 모아져서 아이들 교육자금으로 쓸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그걸 되게 열심히 챙기려고 노력을 해요.

계획과 집행, 성공의 경험을 하였던 빈곤층, 과거 성공경험이 있었던 빈곤층의 미래계획은 더 구체적이다.

황주현: 희망이 보이는 게 심은 오미자가 한 2년 후에는 결실을 봐요. 이 것을 위해서 오미자 잘하는 농가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공부하러 다녔어요. 농사지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서 겨울에는 일이 없으니까 계속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농가에 연락해보고 그랬거든요. 결과가 좋은 것 같아서 보람도 있고요.

목표를 갖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이제 시간에 대한 언급이 달라진다. 3년, 길게는 5년, 8년, 10년에 대한 기대나 계획을 이야기한다. 아직 목표를 갖지 못한 빈곤층의 언급에서는 구체적 미래의 시간 언급이 발견되지 않는다.

일을 통해서 자신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기회를 갖는다거나, 발전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여기서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의 기회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활습관을 고친다거나, 저축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사소한 것들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다. 사소한 생활의 변화로도 자신을 재발견하고 생활 전반의 태도 변화로 이어갈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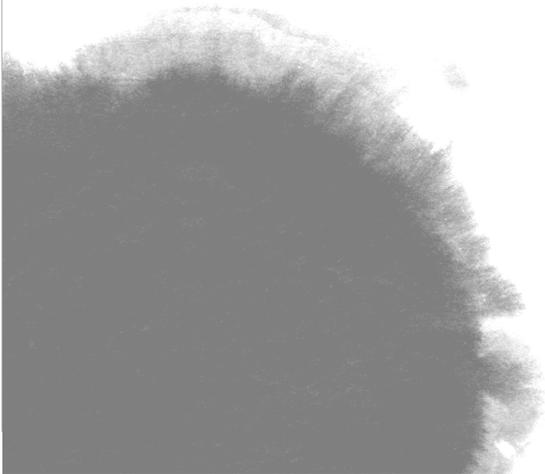
이한서: 처음에 (공동체로 일하는 곳)이 곳에 들어와서 고민 많이 했죠. 보수가 적으니까. 근데 저축을 하게 되면서...(생각이 바뀌었어요. 많이 벌었을 때도 저축을 못하고 살았는데 조금 벌어도 저축을 하니까 굳이 다른데 가서 고생하면서.....(그럴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빈곤층의 근로도 변할 수 있다. 가족을 위하여 일하는 즐거움을 알면서, 적성에 맞는 일을 발견하면서, 그리고 몇 년 뒤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하여 저축을 하고 반복되는 일상의 경험을 즐기면서 빈곤층은 보다 지속적인 근로에 익숙해지고 이로부터 과거의 좌절을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해보게 한다. 이렇게 근로하게 되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아직 모른다고 답하여야겠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지금으로서 너무 나간 것이다.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알게 된 것은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특이성은 그들의 과거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빈곤층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느냐는 미래의 빈곤층 모습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빈곤층의 삶에, 위에서 발견한 희망의 단서들을 심어보는 것이 보다 현명한 것이라는 점이다.

06

결론



제6장 결론

제1절 주요 결과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빈곤층의 일에 대한 심리사회적 태도는 외국의 그것이나 우리나라 비빈곤 계층의 그것과 다른가? 첫 번째 문제제기에서 일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이성은 근로동기의 수준과 근로동기의 내용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 동기의 수준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가?’, ‘비빈곤층과 비교하면 낮은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에 작용하는 주요 동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특정 동기가 더 강하게 작용하도록 한 사회적 배경은 무엇일까도 첫 번째 문제의 영역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근로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특이성의 형성 원인에 관한 것이다. 근로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특이성이 있다면 과연 무엇을 이유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이성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심리사회적 특이성이 빈곤층의 근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는 무엇일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성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기 위하여 ISSP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수준이 낮다고 할 만한 근거는 없었다. 우리나라 빈곤층 중 노인의

비율이 높아서 은퇴의 비중이 높지만 전일제고용과 파트타임, 그리고 가족
종사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낮지 않다.
상층과 비교하여도, 근로여부에서는 빈곤층의 비근로비율이 높지만 기타 근
로의지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빈곤층이 상층보다 근로의지가 낮다고 할 근
거가 없다.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를 국가 간 비교한 결과
를 기초로 종합하여 보면 근로에서 자율성에 대한 의미부여는 낮고 근로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고 당연 직업만족도 낮다. 즉
강요된 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한 듯하다. 반면 직업선택에서 내적보상
이나 조직몰입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일에 대한 의미부여의 욕구가 강
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군을 설명변수로 투입한 회귀분석에서도 근로여부에
한국을 포함한 군집1의 국민들이 다른 국가군에 비해서 근로를 할 가능성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적자본이나 가
구요인 외에도 개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일에 대한 태도가 어떠
한지가 근로 및 근로에 대한 기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성의 영향을 확인하고 또,
그 심리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 자료
중 아동기 경제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복지패널을
활용하여 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기술 분석 결과, 우리
나라 빈곤층은 불안정한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동기에 경제적
으로 어려운 생활을 경험한 경우도 다른 계층보다 많았다. 뿐만 아니라 아
동기에 매우 가난한 생활을 경험한 가구주는 더 높은 우울감과 더 낮은 자
아존중감을 보이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근로여부를 종속변수로 그 결정요인
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성, 연령, 학력, 지역이나 빈곤이 통제된 상태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우울 정도가 낮을수록 근로할
확률이 높았다. 즉,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도 우울감은 근로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한편 근로여부에 영향을 주었던 심리지표 우울감을 종속변

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의 연령이나 근로능력, 소득계층, 가족구성 등을 통제하여도 우울감은 아동기 경제수준을 대변하는 부의 교육수준으로부터 유의미한 영향을 받았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빈곤층의 근로에 대하여 심리사회적 특성이 영향을 주는데 심리사회적 특성은 현재의 요인들 뿐 아니라 과거 아동기의 빈곤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근로와 관련된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과거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개인적 소양의 결과라기 보다는 그 개인이 처한 환경의 영향으로, 넓게 보자면 사회적 원인의 작용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앞서 실시한 제 분석들은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이성이나 이 특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 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형성되는 기제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단서들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분석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이와 관련된 변수들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성이 형성되는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야 했다. 제5장에서는 질적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빈곤층의 일과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빈곤층 총 17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주요 의미들을 모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과거 경험으로 초래된 빈곤층의 특정 태도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빈곤층의 그 변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 빈곤층은 대개 오랜 기간동안 빈곤한 생활을 하였다. 대부분 부모세대부터 가난했다. 인적 자본도 취약하고 정보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를 시작하면서 근로의 경험은 대개 좌절로 끝나기 일쑤였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기대가 상실된다. 빈곤층은 근로 동기 중 외적 요인에 대한 기대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험이 축적되어 결국 기대가 있어야 할 자리를 좌절이 차지한다.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인정이다.

또한 빈곤층은 살기 위하여 해야 하는 궁색하고 허접한 일을 대하면서 나름의 합리적 선택을 한다.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일은 불행을 더 크게 하지 않는 선에서만 최소화된다. 일을 해야 행복하다는 말은 빈곤층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다. 일에 대한 몰두가 그만큼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어릴적 부터 부모의 좌절을, 그리고 이후 자신이 직접 좌절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은 구체적 계획의 유용성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한다. 이들의 시간 개념에서 미래보다 당장의 시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이러한 배경에서 설명된다. 계획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좌절은 이들에게 미래를 위한 계획의 무용함을 각인시키고 말았다.

분석 결과, 빈곤층의 일에 대한 태도도 변화될 수 있다는 단서들이 발견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의 고리는 근로동기 중 내적 요인에 속하는 것들이었다. 빈곤층의 일이란 그 자체로 사회적 위신이나 지위를 보장하지 못하고 높은 임금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하지만 빈곤층은 일에 아름다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변화시킨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족을 위한 노동은 언제나 아름답고 모범적인 것이다. 빈곤층은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일을 한다. 가족의 구성이나 가족에 대한 재인식이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태도를 지배하는 주요인이다. 또 다른 하나의 변화 요인은 적성에 맞는 일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이 즐거운 사회적 교류를 제공할 때도 빈곤층의 일에 대한 태도는 달라진다. 새로 시작하거나 주어진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빈곤층은 그 일이 높은 보상을 보장하지 않아도 그 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구상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빈곤층이 목표를 갖게 되면서 근로에 대한 입장을 변화시킨다.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빈곤층은 그들의 근로에 적극적으로 변하는 듯 하다. 목표와 계획을 이끌어 가는데 저축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관리가 지원된다면 더 큰 변화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사례도 발견되었다.

제2절 정책적 함의

빈곤층의 삶과 근로, 그 관계에 대하여 심리사회적으로 분석한 후 얻은 정책적 함의는 아래의 몇 가지로 정리된다. 정책적 함의로 제시된 대부분이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안하거나 기술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근로빈곤층을 위한 고용 및 근로지원, 자활, 탈빈곤정책, 또는 더 확대하여 빈곤층을 위한 각종 정책의 기획과 집행에서 하나의 원리로 고려할만한 것들이라고 본다.

하나. 꿈을 복원할 긴 시간이 필요하다.

빈곤층의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제 심리사회적 요인들은 대개 이동기 빈곤경험을 비롯하여 과거의 근로 경험 등 오랜 시간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의 결과이다. 빈곤한 생활은 개인의 성격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최근 연구결과도 있다. 대개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된 특성은 그 특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역시 오랜 시간 노력을 해야만 한다.

빈곤층이 근로할 기회를 얻거나 또는 근로를 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근로를 통하여 얻은 소득을 저축하려다 실패하는 경험이 축적되면서 빈곤층에게 일은 그 의미를 상실해왔다. 따라서 일의 의미를 복원하고 일을 통하여 이를 꿈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빈곤층의 일에 대한 기대를 복원하는 장기적 정책설계와 개입이 필요하다. 너무나 조급한 정책문화에 익숙해져 온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일자체가 답은 아니다. 일할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미 많은 정책들이 이러한 시도 후 실패를 맛보았다. 장기적인 계획이나 개입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각종 정책이 실패로 끝나면서 빈곤층은 정책에 실망하고 정책 전문가와 일반인은 기회를 마다하거나 또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빈곤층의 반응에 실망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일에서 크고 작은 성공경험이 누적되어야 하고 일에서 얻은 성과를 공유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고 쌓여야 빈곤층은 일로써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다. 그러자면 당연 시간을 갖고 천천히 변화를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둘, 참여하여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빈곤층이 스스로 참여하여 계획하고 다양한 선택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의 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스스로 세운 목표나 계획이 동기를 높인다. 빈곤층은 대개 본인이 환경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느낌,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빈곤층은 오랜 실패로 무기력감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처지를 운명의 탓으로 여기기도 한다.

상황에 대한 통제감은 스스로 참여하여 계획하고 선택할 기회를 주어 이러한 계획이나 선택이 빈곤층의 상황을 변화, 개선시킬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형성될 것이다. 각종 정책의 집행에서 개별 상담을 통하여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되 빈곤층에게 늘 부족하였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빈곤층의 선택이 실패를 되풀이 할 위험을 줄여야 한다.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정교하고 세심한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선의 정책 집행 인력들이 자신이 정책 집행과정에서 고객으로 관리하는 빈곤층에게 빈곤층을 중심으로 대화하고 개입하는 기술을 익히고 이러한 기술을 일선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사회복지 정책 집행 일선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은 이러한 부문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빈곤층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하는 기회는 근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각종 지원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점차 사회서비스가 확충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러한 기회 제공은 정책의 기확단계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덕목이다. 자기 선택은 서비스의 만족도 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의 책임감이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도 하지만 정책 표적을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가치의 실현이기도 하다.

셋, 건강한 가족의 유지와 복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빈곤층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비교적 강한 것 같다. 좋지 않은 조건의 일을 묵묵하게 해나가는 이유는 그 일이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누리는 높은 소득이나 직업 안정, 승진 등을 빈곤층이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그래서 근로동기 중 내적 요인들이 좀 더 소중해진 것인지 모른다.

빈곤층의 일에 가장 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가족이다. 가족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례들은 가족 때문에 일한다고 한다. 양적분석에서도 가족은 대개 근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대가 약한 가족의 경우 건강한 가족으로 복원하고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는 것은 근로동기를 높이고 탈빈곤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미국의 TANF제도에서 건강한 결혼(Health Marriage)이라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프로그램이 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가 아닐까 생각된다.

넷, 일에 의미를 부여한다.

구차하고 의미 없는 일은 누구나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임금이 낮더라도 일이 나름 사회적 기여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적은 임금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빈곤층에게는 일의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

빈곤층이 이야기하는 일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람들과 일상적인 교분을 유지할 장을 마련해준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회취약층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직업이 빈곤층의 일로 적절하다고 보겠다. 한편 고립되어 일을 하기보다는 함께 일하면서 일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근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역시 바람직하다. 물론 일터에서 구성원간의 원만하고 지지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단에 대한 전문적 개입도 필요할 것이다. 자활공동체의 경우 성원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오히려 그 일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사례도 있다. 일선 작업장에서 일하는 전문가에게는 사회복지분야의 집단사회사업과 같은 구체적 기술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새로운 일을 개발하는 것도, 그리고 빈곤층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의 의미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것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다. 일을 하는 빈곤층에게 그 일의 사회적 기여를 인식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높은 지위를 유지하는, 또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보다 빈곤층이 종사하는 일 중 우리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적지 않다. 다만 그 일에 대한 자본주의적 가치부여가 돈을 매개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뿐이다.

다섯. 빈곤층의 경험과 소양을 존중한다.

지금도 완전하게 해결한 문제는 아니지만 자활 초기에는 자활사업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과거 경험을 고려하여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 빈곤층은 자신과 잘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자신이 쉽게 적응하지도 못하고 견디어 내기도 어려운 일을 강제로 하여야만 한다. 누구나 그렇듯 사람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만 일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그 일에서 더 큰 희망을 품게 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훈계하는 이 사회가 빈곤층에게는 이 권고를 적용하려고 하지 않

는 듯하다. 물론 재원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활 뿐 아니라 빈곤층의 일 기회를 마련하는 각종 정책 지원에서 적성과 과거 일 경력, 그래서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의 영역들을 좀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

앞의 사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빈곤층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여 일을 해보고 나서야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것도 빈곤층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빈곤층에게 가능한 일들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한된 빈도라 하여도 인턴제와 같이 새로운 일을 경험해볼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층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빈곤층 중에서도 빈곤 이전에 비빈곤층으로 지내면서 성공을 경험한 사람은 빈곤해진 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우 견고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를 계획을 수립한다. 목표는 사람에게 하여야 할 무엇인가를 보다 분명하게 해준다. 그리고 하여야 할 무었은 일과 관련된다. 결국 목표를 세우면 일을 하는 데 있어 더 적극적으로 된다.

근로동기와 관련된 이론들은, 사람들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이루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세우면 오히려 동기가 저하되고 반면 다소 어렵지만 노력하면 이를 수 있는 수준의 목표를 세워야 동기가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빈곤층이 근로에 참여하게 되면 적절한 수준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빈곤층의 시간개념은 미래를 상정하지 않고 당장의 일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목표는 미래를 기준으로 한다. 결국 목표의 수립을 위해서는 빈곤층의 시간개념도 변화되어야 한다. 목표를 가지고 있는 빈곤층은 3~5년의 시간개념을 갖고 있지만 목표를 세우기 어려운 빈곤층은 그렇지 못하다. 목표의 수립을 지원하면서 중기, 장기의 목표수립이 가능하도록 빈곤층의 시간개념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 목표는 단기 목표로 매

개되어 보다 구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이로써 빈곤층이 목표에 대한 이해나 현실화에 조금 더 익숙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

목표를 향해 진행할 때 피드백이 있다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빈곤층이 목표를 세워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을 하는 동안 서로 중간점검을 하고 착오가 발생한 것들을 수정할 기회를 주는 것도 목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 구체적 지원을 병행한다.

빈곤층의 일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질병이다. 물려받은 것도 없고 교육기간도 짧아서 몸으로 버텨야 하는 일을 하여야 하는데 빈곤층의 건강은 그리 좋지 않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리고 자라서도 빈곤한 환경이어서 질병을 가질 위험은 더 크다. 더욱이 몸으로 버텨야 하는 일은 이들에게 더 쉽게 건강을 잃어버리도록 강요한다. 이러다 보니 결국 건강문제로 일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태를 당하고는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빈곤층의 근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지원이다.

이 뿐 아니다. 아동 보육과 가족원의 보호를 위하여 사회서비스가 필요하고 또는 탄력적 시간사용이 가능한 일, 그리고 근접한 일자리가 필요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제 정책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이 언급될 때마다 빠지지 않던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일상생활의 관리를 지원하는 것도 유용하다. 예를 들어 돈을 관리하는 법, 저축을 유지하는 법, 은행이용이나 보험에 대한 정보 제공도 빈곤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기술이나 알콜, 약물에 대한 교육도 빈곤층의 생활 관리와 무관하지 않다. 사소한 일상의 관리가 튼튼해지면 그 만큼 일에 몰두하고 일로 희망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제 원칙들이 지켜지다면 우선은 정책이 집행되는 토대를 개선하여야 한다. 위의 제 원칙들은 빈곤층 개인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빈곤층 개개인이 개성이 다르고 경험도 다른 인격체라는 점을 인정하고 개별화를 하여야만 한다. 이러자면 면대면(face to face)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에서 이러한 개별화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물론 주어진 환경에서도 인식을 바꾸면 일부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선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점과 인력이 소진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전문적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별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태도나 기타 심리사회적 특이성은 빈곤에서 결과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빈민은 과거 빈곤의 희생자인지도 모른다.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특이성과 그 배경에 대한 조심스러운 이해가 없이 계속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정책을 집행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빈곤층에게 둔다면 이는 심히 우려할만한 일이다. 결과로 나타난 근로여부에만 집중하기보다 빈곤층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참고 문헌

- 김미숙, 배화옥(2007). 한국 아동빈곤을 수준과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보건사회연구*, 27(1), pp.3-26.
- 박경숙(2006). **삶의 기회**. 부산: 동아대학교 출판부.
- 박경숙, 외 8명(2005). **빈곤의 순환고리들**. 부산: 동아대학교 출판부.
- 서동명(2008).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을 활용한 시도별 장애인복지수준 비교연구. *사회복지연구*, 36(2008.봄), pp.81-101.
- 엄태완(2008a). 빈곤층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Mental Healths & Social Work)**. 28(2008. 4.), pp. 36-66.
- 엄태완(2008b). 빈곤층의 여성의 우울에 대한 연구: 스트레스, 신체화, 사회적 지지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4(2008. 12.), pp.61-88.
- 정영순, 이명홍(1989). 도시빈곤 가족의 사회심리적인 문제에 관한 연구: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지**, 1(103), pp.35-63.
- Allen, V. L.(1970). *Psychological Factors In Poverty*. Chicago: Markham Publishing Company.
- Ambrose, Kulik (1999). Old Friends new faces: motivation research in the 1990s, *Journal of Management*, 25(3), pp.231-292.
- Andolsel, D. M., Stebe, J. (2004). Multinational Perspectives on Work Values and Commi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ross*

- Cultural Management*. 4(2), pp.181-209.
- Bellsouth, J. W. (2002). An Empirical Test of Crisis, Social Selection, and Role Explana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Disrup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pooled Time-Series Analysis of Four-Wave Panel Dat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pp.211-224.
- Bradley, S. F. (2007). *Empirical Construction of Work Orientations: Connections to Workers? Attitudes, Perceptions and Behaviors*. The Ohio State University.
- Carr, S. C. & Sloan, T. S. (2003). *Poverty and Psychology: From Global Perspective to Local Practice*.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Curran, L. (2002). The psychology of poverty: Professional social work and aid to dependent children in postwar America: 1946-1963. *Social Service Review*, September, pp.365-386.
- Esping-Anderson, G. (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Massachusetts: Polity Press.
- Fryer, D., Fagan, R. (2001). Poverty and Psychology: From Global Perspective to Local Practice. *Poverty and Unemployment*.
- Goldstein, A. P. (1973), *Structured Learning Therapy: Toward a Psychotheraph for the Poor*. New York, San Francisco, London: Academic Press.
- Gottschalk, P. (2005), *Can Work Alter Welfare Recipients's Beliefs? The Self-Sufficiency Project*. SOCIAL RESEARCH AND DEMONSTRATION CORPORATION Working Paper Series 05-01.
- Harvey, D. L., Reed, M. H. (1996). The Culture of Poverty: An Ideological Analysis. *Sociological perspectives*, 39(4), pp.465-495.

- Hult, C. & Svallfors, S. Production Regimes and Work Orientations: A Comparison of Six Western Countr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8(3), pp.315-331.
- Kane, T. J. *Giving Back Control: Long-Term Poverty and Motivation*.
- Lever, J. P., Pinol, N. L., Uralde, J. H. (2005). Poverty, Psychological Resources and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73, pp.375-408.
- Lott, B. (2002). Cognitive and Behavioral Distancing From the Poor. *American Psychologist*, 57(2), pp.100-110.
- Lott, B., Maluso, D. (1995),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personal Discrimina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cPhee, D. M., Bronstein, L. R. (2003). The Journey From Welfare to Work: Learning From Women Living in Poverty. *Affilia*, 18(1), Spring: pp.34-48.
- Sally, V. T. (1974). Bould poverty and work: beyond the stereotypes. *Asia Pacific Journal of Human Resources*, 9, pp.155-169.
- Kim, S. W. (2008). Work Values, Work Rewards, and Work Orietations: A Comparison among Korea, Japan, United States, and Swede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December 2008. 42(8), pp.125-150.
- Valadez, J. R. *Searching for a path out of Poverty: Exploring the achieve of a rural community college*.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식관리센터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234)

도서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시간 안내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2009-01	의료서비스 질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적 의료전달 시스템 구축 방안	신호성	미정
연구 2009-02	고가의료장비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오영호	미정
연구 2009-03	신의료기술의 패던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제도의 발전방향: 의약품 허가제도와 약가제도를 중심으로	박실비아	미정
연구 2009-04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국민의료비 분석(1)	정영호	미정
연구 2009-05	미 중속 의료수준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허순임	미정
연구 2009-06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취약점 중점 관리 방안	정기혜	미정
연구 2009-07	부문간 협력을 통한 비만의 예방관리체계의 구축 방안	김해련	미정
연구 2009-08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최은진	미정
연구 2009-0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윤석명	미정
연구 2009-10	글로벌 금융위기상황하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	원종욱	미정
연구 2009-11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	신현웅	미정
연구 2009-12	A study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health security system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홍석표	미정
연구 2009-13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노대명	미정
연구 2009-14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 연구	어유진	미정
연구 2009-15	저소득층 금융지원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김태완	미정
연구 2009-16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연구	김승권	미정
연구 2009-17	이동 청소년복지 수요에 기반한 공급체계 재편방안 연구 II: 지역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숙	미정
연구 2009-18	한국가족의 위기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김유경	미정
연구 2009-19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연계 동향 및 정책과제	윤상용	미정
연구 2009-20	사회자본과 민간 복지지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	박세경	미정
연구 2009-21	사회복지부문별 정보화현황 및 정책적용방안	정영철	미정
연구 2009-22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일상생활기능자립증진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선우덕	7,000
연구 2009-23	노인의 생산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 평가	정경희	미정
연구 2009-24	보건복지가족부 웹사이트 통합연계 및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미정
연구 2009-25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09	장영식	미정
연구 2009-26-1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법제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	이태진	미정
연구 2009-26-2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 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9-26-3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노대명	미정
연구 2009-26-4	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남상호	미정
연구 2009-26-5	저소득층의 자산실태분석	남상호	미정
연구 2009-26-6	2009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미정
연구 2009-27-1	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	홍석표	미정
연구 2009-28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정영호	미정
연구 2009-29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9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오영호	6,000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2009-30-1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권 (총괄)	강은정	미정
연구 2009-30-2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권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강은정	미정
연구 2009-31-1	2009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미정
연구 2009-31-2	보건복지제정의 정책과제	유근준	미정
연구 2009-31-3	정부의 사회복지제정 DB구축에 관한 연구(3차년도): 중앙정부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미정
연구 2009-31-4	보육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최성은	미정
연구 2009-31-5	자활사업의 평가 및 과제	고경환	미정
연구 2009-32-1	200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손창균	미정
연구 2009-32-2	200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여유진	미정
연구 2009-33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미정
연구 2009-34-1	다문화가족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상식	미정
연구 2009-34-2	육아지원 인프라의 양적·질적 수준 적정화 방안	신윤정	미정
연구 2009-34-3	장기요양등급유자 관리를 위한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오영희	미정
연구 2009-34-4	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이소정	미정
연구 2009-34-5	고령친화용품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수봉	미정
연구 2009-35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연희	미정
연구 2009-3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영철	미정
연구 2008-01	건강수명의 사회계층간 형평성과 정책과제	강은정	6,000
연구 2008-0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서미정	9,000
연구 2008-03	공공보건의료조직의 효율성 분석 및 운영 합리화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8-04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영양 관련 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모유수유 및 아동·청소년 영양문제를 중심으로	김혜련	7,000
연구 2008-05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상영	6,000
연구 2008-06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강신욱	7,000
연구 2008-07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의료공급자의 유인 수요와의 연관성 파악	허순임	7,000
연구 2008-08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재정적·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윤석명	7,000
연구 2008-09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	원종욱	7,000
연구 2008-10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안나	9,000
연구 2008-11	사회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2008-12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그 보편성과 특수성	노대명	6,000
연구 2008-13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김승권	10,000
연구 2008-14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	김유경	15,000
연구 2008-15	아동·청소년복지 수요 추계 연구 I	김미숙	8,000
연구 2008-16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형성의 실태와 과제	박세경	6,000
연구 2008-17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이소정	8,000
연구 2008-18-1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조건부 수 급자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
연구 2008-18-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법, 조직, 정보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8-18-3	2008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8-18-4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분석 II	신영석	6,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08-18-5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도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신현웅	5,000
연구 2008-18-6	서구 근로빈곤문제의 현황과 쟁점	노대명	6,000
연구 2008-19-1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기준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원종욱	6,000
연구 2008-19-2	한국의 복지 GNP	홍석표	5,000
연구 2008-20-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오영희	10,000
연구 2008-20-2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오영희	9,000
연구 2008-20-3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상식	7,000
연구 2008-20-4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방안	신윤정	6,000
연구 2008-20-5	노인 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선우덕	9,000
연구 2008-20-6	농촌지역 고령자의 생활가능 지립을 위한 보건복지 지원체계 모형 개발	선우덕	5,000
연구 2008-20-7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산 활용방안	김수봉	미정
연구 2008-20-8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과 과제	정경희	6,000
연구 2008-21-1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5,000
연구 2008-21-2	2007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여유진	9,000
연구 2008-22-1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정영호	9,000
연구 2008-22-2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정영호	8,000
연구 2008-23-1-1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1-2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평가: 상담서비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2008-23-2	사회재정평가지침-사례와 분류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3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남상호	5,000
연구 2008-23-4	의료급여 재정모형과 재정지출 전망	최성은	6,000
연구 2008-23-5	복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가족부문 투자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6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2차년도)	고경환	5,000
연구 2008-23-7	2008 사회예산 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7,000
연구 2008-24-1	국립소록도병원의 만성병 관리체계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5,000
연구 2008-24-2	드림스타트의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7,000
연구 2008-24-3	KTX의 건강영향평가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김진현	6,000
연구 2008-24-4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 감시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6,000
연구 2008-25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1년차)	오영호	5,000
연구 2008-2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8,000
연구 2008-27-1	능동적 복지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	김승권	8,000
연구 2008-27-2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7-3	능동적 복지개념에 부합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신영석	6,000
연구 2008-27-4	능동적 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방안	김승권	7,000
연구 2008-27-5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최은진	6,000